



11

주체 92 (2003)

문학예술출판사



주체 92(2003)년 제11호

(루계 제 673 호)

차 제

우리가 잘 아는분.....	4
전선길의 옹달샘	4
가사문학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시여	5
전설적영웅.....	8
보통날의 환희.....	9
강철로는 무엇을 웨치는가.....	10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	11
행 운.....	12
내 조국의 나이를 두고	13
혁명적대작창작의 영원한 지침	14
명언해설	16
흥하는 땅.....	17
분렬행진	18
수령님 추억속에	19
철창속의 메아리	19
고 향.....	20

고향과 나.....	30
내 다시 탄원입대하노라	32
가을하늘	33
나는 포를 사랑합니다.....	41
같은것과 다른것	42
우리 시절의 노래.....	46
어머니는 장갑을 씹니다	56
기다리시는 선생님	56
나의 안해에 대한 추억(2).....	57
비상소집	60
푸른 언덕.....	61
하루와 한생(외 1 편).....	72
《원호대표단》	72
저의 고향은 영웅의 고향입니다	72
고려지경	73
마리떼	80

우리가 잘 아는분

김만영

내 목청껏

심장을 다해

소리높이 웨치고 싶구나

이런 날 이런 때는

우리가 오늘 어느분을

우리 국가의 최고직책에 모시였는가

그 어느분을

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 모시였는가

그이는

우리가 잘 아는분

장장 수십성상 우리를 안고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분

우리에게 늘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며

우리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신분

우리의 운명 조국의 운명을 맡아안으시고

폭풍을 쳐갈기시는분

그이는 그 손길로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선군보석을 찾아

공화국의 머리우에

자주의 승리관을 엮어주어

존엄의 상상봉우에 세워주신분

아, 그이는

이 세상 오직 한분

우리 아버지

민족의 어버이

김정일장군!

가사

진정할길 없는 걱정을 안고

내 웨치노라

그이를 우리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셨다는것

그것은 우리의 하늘이

오늘처럼 변함없이 맑고 푸르다는것

그 하늘에 공화국기발이 세차게 펄럭이고

일심단결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영원하다는것

우리의 생활에 언제나 노래가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란다는것

그것은 우리가

수령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 하는 일이 오늘도 래일도 다 잘된다는것

미국놈들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고

언제나 공격하여 승리한다는것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며

장군님 만세를 소리높이 부른다는것

오, 행복이여라 공화국이며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며

영광이 있으라

더욱더 세계를 들썩이며

앞으로 나아가라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너의 진두에 거언히 서계시도다

너를 이끌고 용감무쌍히

미래로 나아가시도다

전선길의 웅달샘

하복철

전선길 산굽이에 솟는 웅달샘아

못잊을 그 사연이 뜨겁게 비졌구나

한모금 맑은 물로 끼니를 예워가신

장군님 그 모습에 눈시울 젖어드네

별들이 지는 새벽길을 떠나시여

령넘어 구름너머 이으신 천리길

전선길의 날과 달이 샘물에 다 어려와

장군님 그 자욱이 이 가슴에 젖어드네

내 나라 부강위해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머나먼 길 가시는 아버지

샘처럼 깨끗한 진정을 다 바치여

장군님 길이 모실 한마음 불타네

가사문학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시어

선군의 기치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펼쳐가는 이 땅 그 어디나 혁명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진다.

혁명적인 노래가 오늘날 시대의 진군가, 행진곡으로 되고있는 위력에 대해 생각할 때면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문학예술혁명의 나날 가사문학의 일대전성기를 꽃피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노래가 차지하는 기능과 커다란 위력으로부터 출발하시어 가사문학을 특별히 중시하시고 가사문학을 주체의 요구대로 혁신시킬데 대한 원대한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사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본질적내용은 가사의 내용과 형식, 형상 등 모든 면에서 온갖 넓고 반인민적인것을 철저히 타파하고 주체의 요구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가사의 내용에 우리 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가사를 당과 수령의 사상적무기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는 곡을 잘 만들어 부르는것도 중요하지만 가사를 잘 써서 사상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노래에서 가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인 노래의 가사는 내용이 철두철미 시대정신의 정수를 이루는 당의 사상, 령도자의 사상으로 일관되어있어야 한다.

령도자의 사상을 가사문학의 내용에 집중적으로 구현한것이야말로 온갖 넓고 그릇된것을 타파하는 가사혁명에서 근본을 이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문학의 본질적내용은 다음으로 가사문학의 형식과 형상에서 주체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쉽게 받아들이며 두고두고 부를수 있는 인민적인 가사형상으로 확고히 전환하는것이며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서정적형상의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것이다.

당시의 가사문학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결함과 부족점을 나타내고있었다. 정제된 가사형식이 약화되고 통속성, 대중성에 저애를 주는 현상, 형상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지 않은 결과 가사형상이 저조해지고 직선적인 경향, 내용을 설명하는 경향 등 서정적인 형상에 배치되는 현상이 지속되어오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그릇된 경향을 결정적으로 타파하고 가사의 형식과 형상면에서 광범한 대중의 심금을 울어줄수 있는 높은 수준에

오르도록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통속적인 형식과 시적인형상으로 반영한 가사문학이야말로 우리 가사문학발전의 뚜렷한 새 모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문학의 혁신적발전을 위하여 가요창작과정에 반드시 가사창작을 선행시킬데 대한 요구를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를 잘 지으려면 먼저 가사를 잘 써야 한다.》

곡부터 먼저 짓고 거기에 가사를 맞출것이 아니라 가사를 먼저 창작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던 첫시기부터 내세우신 원칙적문제이다.

가사는 곡의 사상에술적기초이므로 가사가 좋아야 곡이 잘되게 된다. 가사의 사상에술성은 곡의 사상에술성을 조건지으면서 노래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가사는 시적이면서도 표현이 간명하고 뜻이 깊게 되여야 한다. 또한 알기 쉽고 곡에 맞추어 부르기도 험하게 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넣을 노래를 들으시고 가극의 노래는 사람들이 가사만 보고도 그것을 따라외우게 될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명가사가 나와야 명곡이 나오고 명곡이 나와야 무용도 좋은것이 나올수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가사창작을 앞세우는것은 가요창작의 중요한 방도이며 명곡을 낳고 노래의 사상에술성을 높이는 기본담보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인들이 시대와 생활이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 세계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정치적생명과 관련되는 생활을 탐구하여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생각하게 하는 형상의 깊이를 가진 가사를 창작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충성의 한길로 가고자리라》가 창작되었을 때 이런 노래는 앞으로 우리 인민들이 혁명의 한길에서 계속 부르고 또 부를 노래라고 하시면서 가사는 이렇게 항구성이 있게 창작되여야 한다고 창작가를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가사혁명이 내세운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위한 비약의 위력한 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문학의 혁신적발전을 위하여 가사를 철저히 절대화할데 대한 원칙을

내놓으셨다.

절가란 정형시로 된 가사를 몇개의 절로 나누어 같은 선율에 담아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절가는 인민에 의해 창조되고 다듬어진 인민음악형식의 기본이며 알기 쉽고 부르기 험하여 인민들에게 오래전부터 친숙해진 노래형식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가극창조과정에 확증된 절가화방침의 생활력에 의거하여 가사문학의 형식을 철저히 절가화할데 대한 원칙적요구를 밝히심으로써 가사문학의 형식을 혁신하고 형상을 담보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위업계승에 관한 시대적인 주제와 정신, 전형적성격들을 가사문학에 먼저 실현하시고 문학예술전반에 보편화하도록 이끄시었다.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와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의 창작완성에 기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는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실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에 대한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지난시기 나타난 부족점을 분석해주시면서 《동지애의 노래》와 같은 식으로 정서깊고 사색있게 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당에 대한 노래라고 하여 감정을 띄워서 송가식으로만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해방직후에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나오고 1970년대에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노래가 나왔다면 1980년대에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나왔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 노래가사에 있던 《당중앙 우러러》라는 표현을 《당중앙 따라서》로 고쳐주시었다.

혁명위업계승의 시대사상과 시대정신을 웅심깊이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는 이 한편의 가사에 날이 갈수록 뜨겁게 미치었다.

그로부터 1년세월이 흘러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이 노래가사를 더 잘 수정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2절가시에 《우릴 불러 혁명동지라고 믿어주는 그 사랑에》라고 한 부분을 1절의 《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걸어온 길 그 얼마랴, 우리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혁명의 먼 길을 왔어라》라고 노래한 그런 전인민적인 폭으로 고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혁명위업계승의 새 시대를 더욱 폭넓고 즐기찬 서정적형상으로 하기 위한 가르치심이었다.

그러나 창작가들이 거듭하여 수정과 개작을 하였어도 위대한 장군님의 높이신 뜻에 오르지 못하였다. 실태를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손수 붓을 드시어 가사 2절을 다음과 같이 완성시켜주시었다.

혁명의 비바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몇만리나
성스러운 기발아래 다진
그 맹세 더욱더 불타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네구절로 혁명전사들이 사랑을 못잊어하는 감정을 담았던 구절들을 당을 따라 혁명위업계승완성의 일념을 안고 영원히 한길을 가는 전사들의 불같은 신념과 의지로 한계단 높이 승화시켜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종자를 주시어 창작된 노래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의 가사 3절 3~4행에도 혁명위업계승의 높은 뜻을 구현한 명시구가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수령님 찾아준 조국에
우리 당중앙 펼쳐준 락원에
투쟁속에 세대는 바뀌어도
성스러운 붉은기 지켜가네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가사문학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시인들에게 시대적인 주제와 시정신을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이 최대의 국상을 당한 준엄한시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떨쳐일어나는데 대한 호소를 가사 《우리는 맹세한다》에 담아 지도하신 사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당, 전군, 전민을 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노래가 창작되자 가사를 구절구절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면서 《총대로 웅위하리라 주체의 위업을》이라는 구절을 넣도록 하시었다.

바로 이 시구에는 선군혁명령도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시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와 우리 시문학과 문학예술전반을 선군혁명문학으로 혁신시키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문학주제도 가사문학을 통하여 제시해주시면서 문학예술전반을 새롭게 발전시켜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가 창작되었을 때 조선민주제일주의가 진한 노래, 어른, 아이들이 다 좋아할 노래, 어제도 맞고 오늘의 시대에도 맞는 참으로 훌륭한 노래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 노래를 가지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만들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참으로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에서 민족과 개인의 운명에 관한 철학적인 종자와 문학세계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폭넓게 실현하도록 가르쳐주신것은 우리 문학을 자주시대의 참다운 인간학으로 더욱 높이 발전시켜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애지가 비껴있는 말씀이었다.

이때로부터 우리 문학에서는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한선에서 틀어쥐고 그 열쇠를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서 찾는 웅심깊은 시대적주제와 감동적인 형상이 다채롭게 꽃피어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71(1982)년 4월 가사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을 보아주시다가 억척만반 우리 죽어도 장군님을 보위하리라라는 구절을 두시고 사람이 죽으면 수령님을 보위할수 없으므로 리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억척만반을 우리 살아서 장군님을 보위하리라》로 친히 고쳐주시었다.

우리 시대 인간의 혁명가적품도를 특징짓는 시련의 시기에 더욱 높이 발양되어야 할 혁명적라관주의가 구현된 노래 《승리의 길》도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깃들어있다.

그이께서는 노래 《승리의 길》이 좋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비록 어렵지만 난관을 뚫고나가면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사상이 얼마나 좋은가고, 이런 사상, 이런 신념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창작가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 노래의 가사에는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시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잘되었다고 높이 치하해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5(1996)년 4월 26일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번에 전연군부대를 돌아보니 군인들이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들으니 감회가 깊었다고, 오래전에 나온 노래이지만 조국을 지켜선 군인들의 사상감정을 잘 반영하였기때문에 오늘도 그들의 마음속에 인상깊이 남아 불리우고 있는것 같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 노래가사에는 고향과 조국, 인민에 대한 군인들의 사랑의 감정이 생활적이면서도 정서적으로 잘 반영되어있다, 그런 가사에서는 의례히 명곡이 나오기마련이다, 명곡은 세월이 흘러도 널리 불리워지면서 사람들을 숭고한 정신세계으로 이끌어간다, 여기에 바로 명작의 가치가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한편한편의 가사를 두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토록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가르치심은 시문학전반을 이끄시는 은혜로운 손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활적양상에 맞게 시적

일반화를 잘하도록 가사 《축배를 들자》의 창작사업을 지도하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결혼식와석에서 청춘남녀를 축하하는 생활적양상의 노래 《축배를 들자》가 나왔을 때 가사가 총체적으로 재미있게 씌여졌으나 생활적인 가사에서 사상 은 명백하고 뚜렷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반복되는 후렴구의 《백년가약 좋아》를 《로동당이 좋아》로 생활적인 맛이 나면서도 사상성있게 고쳐 당의 품에서 자라난 새 세대들의 결합에 대한 축복으로 한결 승화시켜주시었다. 또한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귀여운 옥동자의 출생을 가정의 큰 기쁨으로 여겨왔다고 하시면서 작가의 주관담긴 《금딸이겠네》라는 표현대신 《옥동자라네》라는 시구로 고쳐주시어 전통적인 민족적감정이 진하게 울려나오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3절의 《사랑만은 오늘처럼》이라는 구절대신에 《변함없는 사랑속에》로 쓰도록 하심으로써 시적정서의 폭을 넓히고 시문장을 음악적으로 완성시켜주시었다.

미숙한 가사를 단 몇개의 단어수정으로써 명가사로 완성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를 통하여 시인들은 시대와 민족의 전형적인 생활 감정을 일반화하는 높은 형상능력을 키워갈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사창작지도과정에 시어구사의 묘리와 비결도 시인들에게 체득시켜주시었다. 주체66(1977)년 7월 노래 《은 세상에 만발한 **김일성**화》가 창작되었을 때 《바다건너 산을 넘어 멀고먼 나라》로 된 가사를 《대양건너 산을 넘어 멀고먼 나라》로 다듬어주시였을 때 시인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바다》라는 어휘가 《대양》으로 달라졌을뿐인데 형상의 폭과 깊이가 확연히 달라지고 명가사로서의 그 품위가 보장된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75(1986)년 4월 가사 《전사의 길》에 대한 명쾌한 지도를 주시었다. 이 가사에서 《전사가 가는 길 후회가 없다네》라는 시구는 원래 시인이 《전사가 가는 길 앞에만 있네》로 썼던것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고쳐 주신것이다. 그리고 가사의 1절 3행과 2절 3행 끝에 있던 《말아》를 모두 《말라》로 고쳐주시었고 《나 하나의 행복찾아...》로 되어있던 시문장도 《하나의 행복찾아》로 다듬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사문학창작지도과정이야말로

조선의 문학이 받아안을수 있었던 시형상과 시어수련의 보람찬 대학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사창작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는 한편 시대정신이 훌륭히 반영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가사들에 대한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을 진행하여 문학운동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도록 적극적인 조치들도 취해주시

었다. 그리하여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동지애의 노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나는 알았네》 등 많은 명가사들을 놓고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한편의 명가사탄생이 시인집단의 경사만으로 되지 않고 주체문단의 중요한 사변으로 되었으며 중요하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문예사상과 리론을 깊이 새기며 주체문학을 더욱 개화

발전시켜나가는 문학운동의 중요한 계기로 전환되게 되었다.

참으로 문학예술에 대한 령도의 나날에 가사혁명을 일으키시고 오늘과 같이 시가문학이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게 하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문학예술령도업적의 중요한 내용이다.

전설적영웅

김창호

백두성산에 고향을 두시고
이 땅을 한품에 안으신분
총을 잡는 법으로 세상을 먼저 아시고
항일전장을 트랙으로 밟으시며
어리신 나이에 벌써 군인이 되신분

붉은기의 세찬 퍼덕임
돌격전의 우렁찬 합성속에
심신을 키우시며 의지를 버리시고
백두의 정기를 타고나시여
령장의 천품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

조국결사수호의 준엄한 나날
최고사령부 작전대결에서
무비의 담력을 키우시고
오만무례한 미제의 야망도
한줌에 거머쥐시고 짓부셔버리신분

예지로운 사색과 지략으로 비범하시여
신념도 배짱도
백두산악처럼 담대하고 기세찬것인가
조국의 미래, 인민의 운명을 한품에 안으시여
하늘이 낸 전설적영웅이신가

아 조선을 빛내이실 룡남산의 맹세
붉은기의 세찬 퍼덕임에 더 굳게 새기시고
위대한 선군장정으로
태양의 력사를 빛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강철의 령장 우리의 최고사령관

총대를 잡으시듯
세상도 그렇게 꼭 움켜쥐시고
단발명중 포성처럼
조국의 존엄도 그렇듯 단호히 떨치신다

안개도 날개런듯 온몸에 두르시고
천리도 지척처럼 번개쳐 누비시여라
폭풍도 길들여 쥐락펴락하시며
인민에겐 사랑의 해빛을
원췌에겐 죽음의 철추로 불벼락되어 쏟아지게
하시여라

탄생도 성장도 출중하시고
품으신 뜻 또한
하늘에 닿고 땅우에 넘치여라
빨찌산식, 빨찌산생활에 능통하시여
총대로 나라의 강성을 떨치시나니

백두의 기상으로 삼천리를 굽어보시고
야전차의 경적높이 온 나라를 종횡무진하시며
이 땅을 불패의 요새로 다지시여라
강철의 군단들을 사열하시며
선군정치로 조국을 빛내가시여라

아아, 세상에 다시 없는 일심단결
우주의 한끝까지 뻗쳐간 우리 힘으로
이 세기, 이 력사를 주도하시는
이분이 빨찌산의 아들, 전설적영웅이시다
이분이 오, 이분이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입니다!

보통날의 환희

석남진

9월 3일, 이날은 우리 나라 력서에 그 어떤 기념일로 표시되어있지 않은 보통날이다.

수많은 평범한 날들중의 하루라고 말할수 있다.

이날 나는 어느날과 마찬가지로 창작실에서 책을 마주하고 글을 쓰고있었다.

어제밤부터 억수로 퍼부어대던 비는 아침녘에 완전히 멎고 날은 맑게 개이었는데 활짝 열어놓은 창문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들어오고있었다. 나는 한 비전향장기수를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의 창작을 끝내가고있었다.

죽음의 책적이 무섭게 울부짖는 감옥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우러러 그리며 신념을 굳게 지킨 비전향장기수...

그가 우리 공화국의 품으로 송환되어오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대목을 쓰노라니 저도모르게 나의 눈굽도 뜨거워올랐다.

《**김정일** 장군님은 장군중의 장군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행복한 오늘에 대하여 상상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승승장구하는 우리 조국의 영광과 번영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의 신념은 더욱더 굳게졌으며 우리 혁명의 승리는 확정적인것입니다.

김정일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의 운명이시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입니다.》

이것은 비전향장기수동지가 나에게 강조하던 말이다. 어쩌면 우리 인민모두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했다고 볼수 있는 이 심장의 웨침은 수십년 세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형과 시련의 고비를 넘어온 신념과 의지의 강자인 비전향장기수의 입에서 울려나온것으로 하여 보다 무게있고 절절하게 나의 심금을 울리였었다.

나는 작가로서 비전향장기수동지의 간고한 인생체험과 그 총화를 진실하고 생동한 형상으로 창조하여야 할 의무를 자각하고 있었다.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원고지에 글을 써내려가는데 중대방송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낮 12시가 되어오는 시각이었다.

무슨 일인가 잔뜩 호기심이 동하여 회의실의 텔레비죤앞에 모여들 앉았는데...

아, 그것은 가슴이 터질 지경으로 감격이 솟구치는 소식이었다. 누구의 입에서나 감출수 없는 격정의 환호가 새어나오는 보도였다.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1차회의의 소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변함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그 보도가 전해지자 순간에 회의실안은 환희와 흥분의 세찬 감정으로 파도처럼 설레이었다.

언제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밖으로 나섰는지 나는 알수없었다. 어느 사이엔가 창작실마당에서는 출판이 벌어졌고 나도 그 출판에 어울려있었다. 기쁨에 겨워 어깨가 들썩거리지고 웃음이 절로 나왔다. 얼마나 경사로운 날인가, 우리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사는 장군님을 우리 국가의 최고수위에 다시금 높이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레사롭게 이날을 보낼수 있단 말인가.

나는 어느덧 창작은 까맣게 잊고 동무들과 더불어 즐기고 있었다. 우리 작가들모두가 나와 다들바없이 들떠있었다.

우리 창작실 맞은편 길건너에서는 소년단취주악대가 나와서 축하음악을 울렸고 어디에선가 경쾌한 무도곡이 울려오고있었다.

기쁨과 환희로 들끓는 온 나라의 숨결, 분위기를 피부로 느껴지는 광경이었다.

이날은 분명 보통 평범한 날이건만 평범하게 보낼수 없는 날이었다.

시간이 흘러 퇴근길에 올라보니 사람들의 머리우에선 축기가 축하의 분위기를 돋구며 바람에 펄럭이고있었고 고층살림집의 창가들엔 공화국기가 내걸리었다. 어느 기관의 마당에선 여전히 출판이 계속되고있었고 당창건기념탑 앞광장이며 동평양대극장앞의 넓은 공지에서는 무도회가 벌어지고있었다. 모름지기 시내의 곳곳에서, 아니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이날의 경사를 즐기고 있을것이다.

화려한 치마저고리차림을 한 대어섯명의 녀인들이 깔깔 웃어대며 걸어오고있었다. 그들은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하는지 앞에서 자전거가 굴러오며 종을 울리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꺾느라고 비칠거렸다.

넘어질뻔했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자전거에서 내려선 그 사람은 얼핏 보기에 대단히 결쾌있게 생긴 중년사나이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녀인들을 노려보는가 싶더니 별안간 하하하고 호탕하게 웃어대는것이였다.

《아저씨, 덤비지 말고 살살 타시라요.》

한 녀인이 제편에서 편잔을 주며 깔깔거리고 모두가 따라웃는다.

《종구만, 좋아.》 사나이는 조금도 녀인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자전거를 몰아간다. 사람들은 어느때없이 너그러워지고 기분이 양양되어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경애하는 장군님을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모두의 소망이 또다시 성취되었는데야... 어떤 명절인들 이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기쁨과 환희를 한가득 안겨줄수 있으랴.

나는 어쩐지 자신의 벅찬 심정을 내가 쓰고있는 장편소설의 원형인물인 비전향장기수동지와 나누고싶어졌다. 나의 발걸음은 비전향장기수동지가 살고있는 주택으로 향해졌다. 그와 더불어 경사로운 이날의 축배를 들수도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들뜬 기분으로 그의 집을 찾아갔건만 유감스럽게도 그를 만날수는 없었다. 머느리가 하는 말이 비전향장기수동지는 이 기쁜 날 춤이라도 한바탕 추어야겠다면서 옷을 펼쳐입고 밖으로 나갔다는것이였다.

하, 이런 참... 여든을 넘으신분이 춤이라...

나는 유쾌한 웃음을 머금었다. 젊은이들속에 섞여 어깨춤을 추고있을 그의 모습이 방불히 그러했다. 아니, 그분은 기쁨으로 뒤설레이는 어느 거리인가를 거닐며 혹은 젊은이들의 무도회를 뜨거운 눈길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을수도 있으리라. 그것은 우리 혁명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내다보며 짓는 신념의 웃음이라랴. 그리고 그의 두눈시울은 감격과 걱정을 이기지못해 축축히 젖어들리라.

나는 비전향장기수동지의 심정을 헤아려보며 평양역부근의 거리를 천천히 걸어갔다.

날은 어느덧 어슬어슬 어둡이 내리고있었던만 아직도 거리들을 울리는 노래소리는 잦아들줄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웃고 떠들며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아, 정말 좋은 날이였다.

이날은 분명 평범한 하루이면서도 우리모두의 마음속엔 분명히 비상히 경사로운 명절날이였다.

강철로는 무엇을 웨치는가

김정삼

내뽀지 않고서는 건딜수 없는
준절한 사연을 네가 품었느냐
쇠장대 잡은 이 가슴 불물로 끓여주며
이 밤도 거세차게 진동하는 강철로여

쇠물을 끓여도
남의 쇠물을 끓여야만 했던 그 세월
고역의 불가마앞에서
설음겨운 인생을 휘저어야만 했던 그 세월
파철처럼 던져졌던 내 아버지의 청춘을
너는 오늘도 기억하리라

뜨거운 화염앞에 녹아들던 그 청춘
허기진 창자를 움켜쥔채
용해장 광석무지에 피토하며 쓰러질 때
그 앙상한 잔등을 물어뜯으며
왜놈감독의 채찍이 휘파람을 일으킬 때

강철로여 그날에 네속에 끓여넘친것은
정녕 쇠물이 아니였다
나라잃은 망국노의 피기름이 설설 끓고
짓밟혀도 또 너와 마주서야만 했던
내 아버지의 숨죽은 운명이였다

해방을 안아오신 **김일성** 장군님
멍이 든 험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제는 이 로의 주인이 동무들이라고
동무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실
때
로정의 쇠란간을 소리없이 적시던 아버지의
눈물이며
세월넘어 흐르는 그 눈물의 진리여!

말하여라 강철로여
진정 네가 끓어 조국이 있더냐
조국이 있어 소리치며 네가 끓는것이냐
다시는 이 땅에서
수난자의 운명을 끓일수 없는 계급의 의지가
이글거리는 불물이 되어 출강구를 터치나니

노예와 주인의 두 시대를 산 아버지세대의
그 준절한 사연 뼈에 새기라고
김정일 장군님 높이 드신
선군의 총검을 무죄로 부어가라고
이 밤도 나의 강철로는 웨치고있다

그 누구도 끌수 없는 내 운명의 열을 뽀으며...
다시는 흐리울수 없는 내 운명의 빛을 뽀으며...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통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김일성

단상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

허수산

명절처럼 흥성이던 9월 3일이였다.

수도의 거리는 가는 곳마다 출판으로 설레었다.

출판에서 나와 달아올랐던 몸을 식히며 가없이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한점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 하늘을 바라보느라니 자연히 마음은 어린애마냥 즐겁고 흥그러우며 생각은 깊어졌다.

언제보아도 저렇듯 맑고 푸른 우리 사는 내 조국의 하늘!

그것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아니다. 하늘이 높고 맑고 푸르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컫는 9월은 참 좋은 계절이다.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이란 없다. 때로는 흐리고 때로는 비구름이 몰려온다. 그러나 구름을 가셔내고 하늘을 맑고 푸르게 하는것은 해빛이다.

그러니 어찌 태양을 떠나 맑고 푸른 하늘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오늘이 3에 3을 곱한 9월이고 날은 3일이거늘 9월 3일 이 평범한 날에 우리는 또다시 대행운을 받아안았수다. 그게 너무 기뻐 내 비록 늙었지만 이렇게 출판에 뛰어들었었다.》

지나온 생활고가 깊숙이 패여진 이마에 실려있는듯한 백발로인의 말이였다.

우리 조국이 대행운을 맞은 9월 3일!

우리 나라에서 3의 수자가 길수이니 9월 3일은 3자가 세번씩이나 들어간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또다시 변함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방송원이 낮 12시에 감격어린 어조로 대내외에 공포할 때 우리의 심장과 심장은 뜨거운 포옹을 하였고 모두의 얼굴에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아, 민족의 대경사, 전세계의 경사!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시고 우리 조국의 운명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이 경사.

이것은 우리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이고 믿음이다. 그리고 창창할 우리 조국

의 미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다.

지난 10년에 가까운 나날들만을 생각해볼 때 마음은 숭엄해진다. 뜻밖에 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의 언덕에서 울고있던 우리 인민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주시고 이 땅위에 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우시려 력사적인 선군정치를 펴시고 강성대국건설의 대진군을 선포하신 위대한 령장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끓인다.

얼마나 준엄하고 험난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이었던가.

잇올래야 잇을수 없는 간고했던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위인상이 온 세상에 파시되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선군의 총대로 짓부시며 승리의 개가를 련속 울리였다.

저 푸른 하늘은 력사의 진리를 우리에게 새겨준다. 령도자가 위대하면 어떤 고난도 웃으며 뚫고 나가며 조국은 언제나 필승불패한다는것을!

지금 령도자를 잘 만나지 못해 세계 여러나라들이 정치적소요와 동란속에 있지만 우리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평온하고

《고난의 행군》의 나날 인민은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와지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된 일터에서 자기의 희망을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한없이 고마운 우리 장군님의 품, 내 나라, 내 조국에서 조국의 귀중함, 조국이자 곧 수령이고 조국을 총대로 지켜야 함을 순간순간 깨달으며 자주적인민으로서의 주인의 권리를 행사해가고있다. 이것이 수령복, 장군복에 의해 천지개벽한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이다.

그 어떤 폭풍이 불어친대도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라는 철석의 신념을 실생활체험으로 다진 우리 인민.

하기에 인민은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였다. 이 하나와 같은 충성의 마음, 들끓는 환희가 하늘에 닿아서인가 맑고 푸른 하늘은 광한을 여러차례나 펼쳐 신비한 자연현상을 아름답게 펼쳐놓았다.

우리 조국은 위대한 선군령장, 천하제일명장을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언제나 백
승을 떨칠것이고 그속에 사는 인민의 마음은 맑
고 푸른 저 하늘같이 변함없고 배심든하리라.

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하늘은 영
원히 해빛찬란하고 맑고 푸르리라.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은 자연이 가져다주지

않는다.

저하늘에 해님이 있어 하늘이 맑고 창창하듯이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
없이 높이 모시였기에 내 나라, 내 조국의 하늘
은 제국주의자들의 검은 구름이 휘몰아쳐도 언제
나 오늘처럼 맑고 푸를것이다.

행운

나는 지금
나의 행운에 대해 생각한다
복받은 이 선군시대에 사는
나의 젊음에 대한...

국방위원회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여
끝없는 행복의 문이 열린 선군의 이 시대에
청춘으로 산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나는 참으로 행운아

있을수 없으라
이 땅에 흘러온 영광의 세월과 함께 자란 나의
청춘-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여
하늘땅에 차림치던 감격의 그 환희와 함께
이 시대에 들어선 나의 청춘이여
너는 그새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던가

이 땅에 내리는 찬눈비를 다 맞으시며
우리 장군님 오르고 오르신 철령과 오성산...
준엄한 전선길 그 자욱자욱을 맘속에 따라서며
한치 한치 열어가던 백리청춘로반우에
불타오르던 우등불
그 그리움의 우등불은
오늘도 이 마음속에 꺼지지 않았으라

그날의 천막자리는 없어졌어도
그 우등불자리는 지금도 남아있으리
저 멀리 전선길에서 돌아오시는
장군님 야전차의 불빛이
금시라도 내곁에 멈춰서실것만 같아
밤에도

새벽에도
불타오르던 나의 우등불

그 불무지 하나하나를 헤쳐보면
쟁쟁히 들리오리라
흠마대를 메고 달리면서도
최전연에 계시는 장군님을 생각하며
너도 나도 어깨결고 부르던 그리움의 노래

북두칠성 저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

장군님의 전선길만 따르면 힘든줄 몰라
흠마대를 메고 하루밤에 백리길도 달린
청춘이여, 나는 네가 자랑스러웠더라
복속에서 강쇠가 되듯이
시련속에서 억세어진 나의 청춘

우리 장군님
그 청춘을 아껴 청년영웅으로 내세워주셨더라
바친것보다 더 크게
이 세상 복을 다 안겨주시며
평범한 땀방울조차 보석처럼 빛내주는
영광의 시대에 사는
나는 청춘의 행운아

아, 우리 장군님 높이 높이 추대하여
가장 큰 행운이 열린 복받은 이 시대에
장군님 향도하시는 일을
참으로 피더웁게 할수 있는
나의 젊음이 무한히 자랑스럽다
값높은 청춘의 이 행운을 다시한번 힘껏
포옹한다!

리명옥

내 조국의 나이를 두고

강성희

거리는 감격의 환호성이었다.

사람들모두가 춤물결로 설레이었다.

공화국창건 55돐을 앞두고 명절분위기로 들끓는 9월 3일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시었다.

경축의 풍선이런듯 푸른 하늘엔 태양이 빛났고 기쁨의 꽃테프린듯 그 빛발은 줄줄이 늘어졌다.

온 나라가 크나큰 환희와 감격에 넘쳐 9월의 축전장으로 달려간다. 기쁨과 행복의 발걸음속에 공화국창건 55돐이 하루하루 다가온다.

공화국창건 55돐.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내 조국이 유구한 세월속에 빛나고 있는것인가.

정녕 지나간 력사의 갈피마다에 새겨진 흥망성쇠의 야화들은 얼마나 많고 많은것인가.

그속엔 위풍당당한 무사들의 요란한 말발굽소리도 오랑캐의 간담을 서늘케하던 대고구려의 호호탕탕한 기개도 비껴있고 사대의 봉물에 허리가 굽어들던 조선봉건왕조 500년왕조의 치욕도 나라를 통채로 빼앗겼던 을사년의 《시일야방성대곡》의 피눈물도 얼룩져있었거니.

남달리 뜨거운 애국열의를 안고 나라위한 성전에 목숨도 바치였건만 이 나라 수천만자식들에게 조국이 준것이란 봉건의 수레바퀴자리우에 남겨놓은 무지와 몽매, 락후와 빈궁뿐이었고 죽어서도 가실수 없는 망국노의 슬픔뿐이었다.

하기에 언제한번 자기가 나서자란 조국을 어머니라 애뜻이 불러보았던가. 자기들의 운명과 하나로 놓고 조국의 나이를 새겨본적 있었던가.

수난에 찼던 이 나라 수천수만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력사의 대돌우에 거연히 오른것은 바로 신다섯해전의 뜻깊은 그날이 아니었던가.

아, 가없이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발이 창공높이 휘날리던 환희의 그날, 이 나라 천만가슴들이 새삶의 희열을 한껏 터치며 내 조국의 힘찬 고고성인양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부르고 불렀거니.

정녕 이날이 있어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자기의 참다운 조국을 가지게 되었고 이땅에 흐르는 세월의 날과 달을 자기들의 운명과 하나로 이어진 조국의 나이로, 삶의 자욱으로 가슴뜨거이 새겨안게 되었다.

얼마나 많았던가, 가슴에 새겨안은 새삶의 나날이 더없이 소중하기에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 한목숨 서슴없이 내댄 애젊은 용사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청춘도 희망도 행복도 헌헌히 바친 이 나라의 열혈청년들은.

진정 조국은 곧 아버지수령님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한 우리 인민이었기에 재가루만 날리는 전후의 재더미속에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높이 이 땅우에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강성대국의 령마루로 힘차게 줄달음쳐가고있는것이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다박술초소에서 시작하신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로 빛나게 계승하시여 우리 조국은 변함없이 사소한 동요도 없이 자기의 력사를 아로새겨가는것 아닌가.

그러니 조국은 대대로 수령복을 누리며 선군의 한길 따라 힘차게 달려온 우리 인민만이 부를수 있는 행복의 대명사인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조국의 나이가 이 땅에 삶의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시작되는것도 아니며 또 시작되었다고 하여 세월의 거목속에 영원히 새겨지는 력사가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실로 진정한 조국의 나이는 이 땅의 모든 운명을 한품에 안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위대한 수령을 민족의 아버지로 모신 그때라야 비로소 시작되는것이며 대를이어 누리는 수령복이 있을 때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는것이다.

21세기의 태양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빛나는 우리의 삶,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는한 력사의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내 조국은 총대에 의하여 영원무궁할것이다.

혁명적대작창작의 영원한 지침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대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발표 40돐 맞으며-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52(1963)년 1월 5일 작가들을 접견하시고 **《혁명적대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여 근로자들의 혁명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소설문학에서 대작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신 때로부터 40년이 흘렀다.

위대한 선군령도를 받들어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우리 작가들은 지금 깊은 감회와 긍지높은 추억을 가지고 고전적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40년동안 우리 문학창작에서 이룩된 혁명적대작의 풍성한 결실을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대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는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시대적과업을 우리 작가들앞에 제시하고 그 창작방향과 방도를 심오히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우리 문학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관한 주제에 힘을 넣어 조선의 참된 혁명가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량만을 심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혁명적대작창작문제를 무엇보다먼저 주제문제와 련관시키고 혁명적주제를 탐구형상함으로써 작품의 혁명적내용을 튼튼히 담보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문학작품에서의 주제는 묘사되는 생활현상의 범위이며 그것을 통하여 작가가 이야기하려는 기본문제이다. 주제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혁명적내용을 담은 문제가 좌우되며 혁명적인 창작방향을 견지하는 문제가 기초지어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주제방향을 옳게 설정하는 문제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적대작의 기본주제에 대하여서와 그 호상관계에 대하여 탁월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무엇보다먼저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주제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릴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먼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대작들을 써야 하겠습니다.》

항일혁명투쟁에 관한 주제는 혁명적대작창작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주제령역이다. 주체혁명위업의 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전통주제는 우리 문학이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혁명적주제로서 영원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주제로 된다.

항일혁명투쟁의 주제를 틀어쥐고 나갈 때 우리 문학에는 혁명전통의 기본내용인 주체의 사상체계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다양하게 반영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대작을 창작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정신을 구현하여 예술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혁명가로서의 자부심과 투지를 안겨주는 혁명의 교과서로 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쓸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당시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음으로써 인민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으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혁명적문학예술이 북반부인민들의 투쟁만이 아니라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중요한 주제령역으로 파악하고 적극 탐구형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남조선인민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이 혁명적문학예술의 중요한 주제대상으로 되는것은 남조선혁명이 전반적조선혁명수행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하여 필연적인 것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인 남반부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그들 자신의 생활과 투쟁을 그리는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적대작창작의 중요한 창작실천적요구로서 혁명가들의 원형에 기초하여 작품을 쓸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원형에 기초하여 혁명가-주인공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주체의 기치밑에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수많은 배출된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대작의 미학적원천으로 전환시킨 탁월한 지침이었다.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기본품성으로 하는 참된 혁명가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와 영웅적인 투쟁위훈은 생활과 투쟁의 빛나는 본보기로 되고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여도 적지 않은 작가들은 혁명투쟁에 대한 체험과 자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탓으로 실재한 혁명가들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들과의 담화석상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인 김책동지와 안길동지, 마동희동지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일화와 특징적인 생활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그리고 실재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품모와 투쟁의 위훈, 삶의 보람에 대하여, 그것이 가지는 높은 미학적가치에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사의 원형자체가 그 사상정신적품모의 숭고성과 투쟁의 영웅성으로 하여 지난시기의 원형들에서는 볼수 없는 비상한 전형적가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항일혁명투사의 원형들이 가지는 이러한 전형적가치는 전형화의 방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인공의 원형으로 될 사회적전형들이 풍부히 배출되고 원형의 전형적특질이 비상히 강화된 현실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하시어 원형에 기초한 주인공의 전형화를 대작창작의 기본방도의 하나로 제시하심으로써 창작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혁명적대작의 영웅성과 숭고성, 진실성과 감화력을 높일수 있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대작이 주인공을 그리는데서 원형에 튼튼히 의거하면서도 그것을 전기식으로 전달하지 말고 예술적으로 전형화하여 흥미있고 교양적가치가 있게 형상화할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시었다.

원형의 전기를 쓰는 식으로 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은 원형인물의 운명로정과 품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며 옮긴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상방식은 주인공의 형상을 폭넓은 사회적관계속에서 심오히 일반화할수 없게 하며 작품을 순수 개별적인간의 생애의 기록으로 그치게 한다. 혁명적대작에 그려지는 혁명가의 성격은 실재한 원형에 기초하면서도 실재한 인물 그자체가 아닌 전형적성격으로 일반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원형에 기초하는 전형화에서는 예술적허구가 일련의 특수성을 가지고 적용되게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형의 개성적특징을 보존하는 범위안에서 허용되며 그 원형을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전형적성격으로 일반화하는데 복무한다.

혁명적대작의 구성도 원형인물의 자서전에 대한 기계적전달이 되어서는 안되며 뚜렷한 종자와 인간문제에 기초하여 재구성된 예술적화폭으로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규모에만 매달려 일률적으로 전기간의 투쟁을 통채로 그리는 경향을 배격하게 되며 종자의 요구에 따라 오랜 기간의 내용을 담기도 하고 혁명활동의 한 측면, 한 단락을 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여 내용을 대작으로 만드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원형의 본보기형상에 의거하면서도 전기나 년대기식창작경향을 철저히 극복하는데 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혁명적대작창작에 대한 새로운 문예리론을 제시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문학은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고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이바지하는 혁명의 참된 교과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혁명에 이바지하는 문학으로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대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는 그 불패의 진리성으로 하여 지난 40년간 비상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오늘 우리 문학은 로작에서 제시된 주제방향을 확고히 틀어쥐고 혁명적대작창작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주체문학의 화원은 대작의 풍만한 성과들로 장식되고있다.

고전적로작이 발표된 후 혁명적대작창작이 힘있게 벌어져 항일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장막희곡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 장편소설 **《서광》**, **《아들딸》**, 영화문학 **《미래를 사랑하라》**, **《벗들이여 우리와 함께 가자》**, **《한 지대장의 이야기》**, **《폭풍시절》**, 희곡 **《불사조》**, **《해바라기》**, **《태양의 딸》**을 비롯한 수많은 성과작들이 창작되었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1부) 중편소설 《전사들》, 《포화속에서》, 《포성》, 서사시 《수리개》 등을 비롯한 많은 혁명적대작들이 창작되었다. 또한 이 시기 남반부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과 조국통일을 주제로 하여 장편소설 《폭풍의 력사》, 영화문학 《성장의 길에서》, 희곡 《분노의 화산은 터졌다》 등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혁명적대작창작에서 우리 문학의 최대의 영예로 빛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대장편소설 군으로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이 최상의 사상에술적경지에서 왕성하게 창작된것이다.

우리 문학은 여러차례의 장편형식을 비롯한 대작창작전투를 벌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장중편소설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오늘처럼 혁명적대작의 번성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대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의 불패의 진리성과 생활력은 선군혁명문학을 건설하는 격동적인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 줄기차게 파시되고있다.

우리 시대 자주위업의 필승의 전략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장 빛나게 구현한 우리 식의 새로운 정치방식인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거대한 결실을 이룩하고있는 시대와 현실은 선군혁명문학이라는 새형의 문학을 탄생시켰다.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선군시대를 반영하는 문학으로서 주체문학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이루는 문학

이다.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비범한 정치철학과 령도예술이 집대성되어있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령도자의 천신만고의 눈물겨운 사랑과 헌신의 력사가 뜨겁게 새겨져 빛나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력사를 형상원천으로 하여 태어난 문학이다.

오늘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선군현실에 태줄을 묻고 수령결사옹위를 기본문제성으로 하여 번성하고있으며 특히 선군현실은 혁명적대작창작의 무궁무진한 소재를 제공하고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시되는것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는 60여편의 방대한 장편소설창작이다. 우리 문학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는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의 대작창작방침의 생활력을 한껏 시위하고있으며 그 위대한 진리성을 생동한 현실로 입증하고있다.

참으로 고전적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40년, 그것은 혁명적대작으로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빛나게 장식한 영광의 로정이며 로작에서 제시된 문예방침의 정당성이 힘있게 파시된 승리의 로정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대작창작방침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적대작창작에서 계속 양양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선군혁명문학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야 할것이다.

명언해설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인의 삶은 영원하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를 써낸 시인은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게 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시인이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그들의 기억속에 영생하자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즐겨 읊을수 있는 훌륭한 시작품을 창작해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향과, 사상감정을 생활그대로의 정서로 생동하고 감명깊게 담은 시들을 즐겨 읊으면서 그 시를 창작한 시인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훌륭한 시들은 또 한 당대사회뿐만아니라 후세에도 길이 전해져 후대들도 이 시들을 읊으며 그것을 창작한 시인을 두고두고 추억하게 된다.

흥하는 땅

김진경

흥주땅에 큰 경사가 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난 7월초 현대적으로 개건확장되는 흥주닭공장을 찾아주신것이였다.

바로 그날 이 고장에서 3대를 걸쳐 살아온다는 최로인의 집에도 경사가 났다. 막내며느리가 딸을 낳은것이다.

자식의 출생이 의미깊기를 바라지 않을 부모란 없는 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맞이한 크나큰 환희를 애기 역시 출생의 고고성으로 함께 나누려 한듯 싶은 이 신통한 일치를 두고 온 가족은 떠들썩했다. 그만큼 애기의 이름도 멋들어져야 한다는것이였다.

뜻깊고 부르기에도 고운 이름들이 연방 쏟아져 나왔다. 희영, 복화, 은정...

그때 가장인 최로인이 입을 열었다.

《복에 복이 겹치고보니 비명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이 나는구나.

어머니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해산한 날이였다고 한다. 그때 아버지는 기쁨보다도 산모에게 쌀밥 한그릇, 닭알 한알 못먹이는게 너무 안타까와 온밤 강변에 나와 혼자 우셨다는게 아니겠니. 달빛속에 번들거리는 하얀 조약돌들을 하나하나 골라 옷자락에 싸안으며 이게 모두 닭알이라면 얼마나 좋을가, 한광주리 삶아 안해에게 줄수 있다면!... 하고 통탄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건 너무 <행복한> 소원이였지. 산모에게 먹일 시래기죽조차 없어 애기는 태어나서 한달만에 빈 젖을 빨다빨다 굶어죽었다. 정말 처주로운 세상이였지.

헌데 지금은 어떠냐. 아버지수령님께서 이 험한 산골에 찾아오시여 큰 닭공장을 세워주시고 오늘은 또 우리 장군님께서 이렇게... 하늘같은 그 은덕, 그 사랑을 다 누리며 흥하는 이 땅의 주인이 되라고 우리 장군님께서 이 애에게 생을 주신거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니 애기의 이름은 마땅히 <흥주>가 되어야 한다!》

《흥주!》 이름이 좋았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졌다.

흥하는 땅의 주인! 흥하는 땅!

그 옛날 산모에게 먹일 닭알 한알마저 없어 피눈물을 뿌려야 했던 이 땅이 아니었던가.

바로 그 땅에 몸소 찾아오시여 닭공장을 세워주시고 우리 나라 기후에 적응된 튼튼한 닭종자를 《흥주닭》이라 이름까지 지어주신 아버지수령님!

그 사랑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오늘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3년전의 무더운 삼복철, 흥주땅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흥주청년 1호발전소를 돌아보신데 이어 새로 일떠선 전기화된 문화주택마을에도 들리시였었다.

그때 한 노동자의 집에 허물없이 들어서신 그 이께서는 살림살이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다가 텔레비존수상기가 없는것을 보시고 새집들이한 모든 세대들에 좋은 텔레비존수상기를 보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못다주신것이 있으신듯 프락의 한쪽 구석에 있는 닭우리까지 들여다보시며 닭들이 매일 알을 낳는가, 아이들에게 닭알은 먹이는가고 세심히 물으시였다.

바로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바쁘신 현지지도 일정도 뒤로 미루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일군들에게 이미있는 흥주닭공장을 최신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공장으로 개건확장할데 대한 과업과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신것이였다.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장정의 길우에서 이번에 또다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흥주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훌륭히 건설되여가고있는 공장구내를 돌아보시면서 멀지않아 강계시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넉넉히 먹일수 있게 된것이 너무 기쁘시여 그리도 환히 웃으시였다니 천여버이 은정인들 이보다 더 뜨겁고 다심할수 있으랴!

이미 신흥지구에 현대적인 닭공장이 건설되여 그 덕을 크게 입고있는 우리들이였다. 매일같이 닭알차가 달리고 그것이 상점마다 쌓여 가정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 때 우리 얼마나 감격에 겨워 남몰래 눈굽을 적셨던가. 그런데 사랑을 주시여도 이 세상을 통채로 다 기우려주고 싶어하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또 하나의 닭공장을 일떠 세워주시니, 아 그 품은 하늘인가, 우주인가!

이제 흥주닭공장과 흥주청년 2호발전소까지 완공되면 강계시민들의 생활에서는 더 큰 전변이 일어나게 된다. 전기난방화된 집에서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즐길 때 사람들은 어찌 흥이 나지않으랴.

우리 장군님의 사랑으로 이름그대로 흥하는 땅,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나날이 늘어 흥이 나는 땅.

바로 이것이 오늘의 흥주인것이다.

그 홍주는 강계땅 어디에나 있다. 고기와 알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강계닭공장과 언제나 손
 님들로 흥성거리는 강계닭내포국집, 우리 장군님
 께서 이번에 돌아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여
 주신 강계기초식품공장과 강계토끼종축장 그리고
 21세기의 표본공장으로 불리우는 강계포도술공
 장이며 강계고려약공장, 강계피복공장, 견직, 견
 방직공장들, 또 크고 작은 수많은 발전소들... 강
 계시는 그대로 하나의 큰 《홍주땅》으로되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리도 기쁘시
 여 강계시는 정말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여기에
 오면 떠나고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정들어하시는 강계
 땅, 어디가나 사회주의맛이 나게 알뜰히 꾸려놓
 고 성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치는 사람들, 기분중
 계 들려오는 발전기와 기대들의 동음, 높이 쌓이
 는 고치산, 활력이 넘치는 거리로 쿵우유며 알파

고기를 가득 싣고 내달리는 운반차, 랭동차들,
 대인공호수로 변한 장자강에 유유히 떠노는 하얀
 유람선, 식탁마다 놓이는 유명한 강계포도술, 푸
 집한 닭내포국에 흐뭇하여 수염을 쓸어내리는 할
 아버지들, 장맛이 달다고 상점이 들썩하게 웃어

대는 녀인들, 전기난방화된 려관방에 짐을 풀어
 놓으며 엄지손가락을 내두르는 손님들...

《고난의 행군》의 치렬한 전구였던 우리 강계땅
 이 어떻게 되어 오늘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영광
 의 땅, 행복의 땅으로 될수 있었던가?

사람들은 말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엄혹한 눈보라길을 앞장
 서 헤치시였기에 이 땅우에 락원의 행군길이 열
 리였고 강계정신의 고향으로 꽃피날수 있었다고,
 이 땅이 흥해지니 온 나라도 흥하여 강성대국의
 새 아침을 환희속에 마중해간다고.

그렇다. 오늘도 흥하지만 래일은 보다 더 흥해
 질 자강땅의 모습,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
 선군의 위력으로 가꾸어가시는 번영하는 내 조국
 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손녀인 홍주를 높이 쳐들어올리며 말하는 최아
 바이의 목소리는 사뭇 엄숙했다.

《홍주야, 잊지 말아라. 흥하는 땅의 주인이란
 복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아끼
 고 더 풍성하게 꽃피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우
 리 장군님께서 그것을 믿기에 더 자주 찾아주시
 는거란다. 알겠니?!》

분렬행진

한원희

돌격대의 기발을 앞세우고
 발걸음높이 대오는 나아간다
 강변에 립시로 닦은 운동장이지만
 열병행진 나아가듯이
 유격대행진곡에 용진용진 나아간다

아침마다 벌리는 려단의 분렬행진
 여기서 다 판정되지 않던가
 돌격대의 규률과 사기, 전투력
 중대와 중대의 위신과 명예

-중대-
 차렷-
 우로-뵈

대오앞에 울리는 중대장의 구령
 일제히 주석단을 향하는 얼굴들
 직선 직각 립름한 중대 횡대
 또 하루 사나운 강을 막아갈
 용맹과 위훈이 차넘치는 억센 기상

허나 이 무슨 일인가

려단장은 대오를 멈춰세웠다
 -락제!...
 이게 무슨 꼴이요?
 맨발벗은 대원이 셋,
 분렬행진에!...

중대장은 주눅이 들었다
 -사실은 저...
 어제 밤에 정전이 되고...
 그래서 저 동무들이
 자기 신발로 해볼을...

려단장의 엄격한 얼굴이 풀리었다
 저들은 야간작업 마치고 방금 돌아왔지
 신발을 갈아신을 째도 없었구...
 제 심장이라도 해볼로 추켜들 사람들이지

돌연 려단장의 목메인 구령이
 멀리 울려퍼졌다
 -중대, 차렷
 앞으로- 갓!-

수령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형권삼촌은 체포된 후 얼마동안 **홍원경찰서**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후 **함흥감옥**에 다시 이송되어 거기서 또 중세기적인 고문을 받았다.

함흥지방법원에서의 법정투쟁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 우리에게도 전달되였다.

그때 **형권삼촌**은 법정에서 일제의 죄상을 추상같이 단죄하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웨치였다고 한다.

삼촌이 이처럼 법정에서 당당하게 처신할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혁명에 대한 신념과 충실성이였다고 생각한다. 삼촌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을 정의롭고 용감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신념에 대한 배신이였을것이다.

...

삼촌과 그 전우들은 재판장에서 혁명가요를 우렁차게 불렀다. 노래가 끝나면 구호를 넘다불렀다.》

철창속의 메아리

박정애

아득한 세월을 넘어 울려오는
파발리의 그 총성 생각깊이 들을 때면
조국의 해방위해 시련의 가시밭길 걸어오신
김형권선생님 못잊을 옥중의 나날이
뜨거운 추억을 불러주며 무거이 실려오누나

선생님의 한생은 길었던가 짧았던가
홍원경찰서
함흥감옥
서울마포형무소
서리찬 새벽길의 생애가 비껴진 자서전인듯

악형에 어혈든 한몸의 쓰린 아픔보다
나라잃고 신음하는 민족의 고통을 뼈깊이
느끼시며
수령님 안겨주신 무장투쟁의 불씨
온 강토에 지퍼올리지 못한 전사의 안타까운
마음
철창가에 흘러드는 달빛우에 전하시던 선생님

팔목과 발목의 쇠고랑은
순간을 다투며 살을 파고 들어도
붉은기 날리는 혁명대오 총잡고 조국으로 진군할
노을피는 그 아침 그려보시며
철창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거니

온갖 형벌을 들썩우는 재판정에서도
뜰기우고 불에 타는 아츠러운 고문장에서도
원수들을 추상같이 단죄하던
선생님의 격노한 그 음성
그대로 파발리의 총성처럼 울렸고

열번 쓰러지면 백번다시 일어나 웃으시며
우렁차게 부르시던 혁명가요 선물로 하여
일제의 패망을 선언한 그 총성
신음하는 조국땅에 울린 그 총성
감옥안을 울렸어라 메아리쳤어라

갓 서른 한생이라 하기엔 너무도 짧은 생애
형장의 못판길에 피어린 자욱 찍으시며
철창속의 기나긴 10년 온넛을 불태우신 그 모습
절개높은 그 생을 파발리총성에 실어실어
오늘도 이 가슴 울려주는 철창속의 메아리

선군혁명대오의 앞길에 울려오는
조국이 알고 력사가 기억한
내 조국의 영원한 불멸의 메아리
혁명가의 인생관을 후손만대 가르쳐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생의 메아리여라

고 향

김택룡

성심의 가슴속에는 건잡을수 없는 세찬 소용돌이가 일었다. 그래서 밤이 이슬했으나 그는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곁에 누운 어머니는 아무런 기척이 없는것으로 보아 곤히 쉬고있는듯 싶었다.

스르시 눈을 감고 성심은 또다시 입속으로 셈세기를 되풀이했다. 하나-둘-셋-넷-다섯-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정신은 더욱 맑아만 졌다. 그는 엷은 담요를 턱밑으로 끌어올리고 또 다른 《수면법》을 궁리해보았다.

가물거리며 멀리로 흘러간 소녀시절... 살뜰하고 웅심깊은 어머니가 소곤소곤 그에게 들려준 어렴풋한 옛말을 기억의 밑바닥에서 더듬었다. 아득한 옛적, 나라를 지켜 전장으로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한 어머니와 외동딸...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마을에서 함께 싸움터로 나갔던 친구가 아버지의 피묻은 갑옷과 장점만을 어머니앞에... 그날 외동딸은 남복을 입고 결연히 말에 올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전장으로 달려나가... 달려나가... 달려나가... 아니, 아니다. 아른거리는 파아란 동심의 련못에서 퍼낸 옛이야기도 졸음을 실어오지는 못했다.

이제는 깃털처럼 갑작한 담요마저 두터운 철판같이 가슴을 지지누르는듯 싶어 성심은 슬그머니 옆으로 밀어제치었다. 아마 자정도 훨씬 넘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뒤숭숭하고 무직하다. 전등을 끈 어스름한 방안에 귀뿌리가 저리도록 피피이 서린 정적... 정적... 착-착- 규칙적으로 울리는 오직 하나의 음향만이 실내의 짙은 고요를 한결 더 깊게 해주고 있을뿐이다.

착-착- 숲처럼 검은 공간에서 희미한 빛으로 번들거리는 커다란 거울우에 높이 걸린 전자벽시계가 나직이 토막토막 뱉어내는 단조로운 소리, 쉽없는 벽시계의 짹고 무심한 음향은 그 어떤 차갑고 딱딱한 물체가 련달라 부딪치는 웅글은 소리로 점점 크게 공명된다. 절그럭- 절그럭- 그래, 저건 분명 모가 난 새하얀 얼음조각들이 맞부딪치는 소리다. 절그럭- 절그럭- 두터운 얼음장을 광광 내리찍으며 번뜩이는 도끼날, 사방으로 튀어나는 얼음조각들, 얼음판우에 덧쌓이는 커다란 얼음덩이들... 추억의 상념은 어느덧 성심을 눈보라가 류달리도 사납게 기승을 부리던 두해전 겨울의 그날로 이끌어갔다.

그날 군에 불 일이 있어 갔던 성심은 저녁어스름이 깃들무렵에야 돌아오고있었다. 한낮경부터 터진 눈보라가 어찌나 세차게 불어치는지 눈을 뜰수 없을 지경이었다. 성심은 더 늦기전에 양어장에 도착하려고 걸음을 다그쳤다.

양어장옆을 흐르는 강에 놓인 다리를 건너던 성심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두터운 얼음이 덮인 강복판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기때문이었다. 눈보라때문에 잘 알아볼수는 없었으나 도끼로 얼음을 깨내고있는것 같았다.

웬 사람일가?... 뉘시질을 나온걸가? 헌데 하필이면 이런 날씨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게지. 성심은 호기심을 누를길 없어 강쪽을 내렸다. 미끄러운 얼음판을 조심조심 걸어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던 성심은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졌다. 눈보라속에서 헉헉 단숨을 몰아쉬며 세팔게 도끼를 휘둘러대고있는 사람이 군복을 입은 병사였던것이다. 무슨 일로 군인동무가 이렇게 눈보라 세찬 날에 강에 나왔을가... 혹시?...

성심이가 자기를 지켜보는줄도 모르고 억척스레 도끼를 휘둘러대고있는 군인, 도끼날이 공중에서 반원을 그릴 때마다 날카로운 얼음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난다. 어느새 작은 밥상만한 구멍이 얼음에 뚫렸다. 군인은 장갑을 벗더니 맨손으로 거무스름한 물우에 뚱뚱 떠도는 얼음덩이들을 건져낸다. 두손이 대번에 홍당무우뺏같이 되었다.

성심은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어 그에게로 다가갔다.

《저 군인동무.》

군인은 고개를 들고 성심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모진 추위에 질려 검푸릿해보였다. 그런데도 겨울모자의 귀덜개는 그냥 올린채로였다. 눈가루와 얼음부스레기가 하얗게 달라붙은 솜옷깃에서 사관장령장이 유포하게 시선을 끌었다.

《전 여기 양어장 반장이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저...》

사관장은 입술이 찢찢하게 얼어서 그런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몇번 문지르고서야 너부죽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사실은 물고기를 좀 잡아볼가 해서 그러니다.》

《물고기요?》

《예, 실은 얼마전에 우리 중대의 한 병사가 임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경과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입맛을 잃고 식사를 못합니다. 그 동문 우리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산골출신인데 물고기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동무의 입맛을 돌려세워볼가해서 이렇게...》

성심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동지를 위해 눈보

라치는 사나운 날씨에 얼음을 깨내고있는 그의 뜨거운 마음에 가슴이 후터워났다.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솟구쳐올랐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찾아올것이지, 절대 양어장을 두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서 가시자요.》

사관장은 사람좋은 웃음을 띄우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됩니다. 절대로...》

성심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절대로라고요... 동문 정말 너무하군요. 군대와 인민은 한가정, 친형제라고 하면서도...》

성심은 격해올라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사관장은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민들에게 폐를 끼쳐선 안된다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규률이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입니다.》

《그래도 오늘과 같은 경우에야...》

사관장은 그저 빙그레 웃음을 지을뿐이었다.

성심은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인민을 위해서는 죽을 고비에도 서슴없이 뛰어들면서도 인민에게 자그마한 부담도 주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 병사들, 이들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병사들이었다. 이런 병사들을 돕는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도리가 아니겠는가. 성심은 돌아서서 양어장쪽으로 달려갔다.

성심이 큼직한 물고기 두마리를 넣은 비닐구역을 안고 돌아왔을 때 사관장은 얼음구멍앞에 작살을 들고 앉아있었다.

하얗게 성애가 불린 눈썹, 팻팻하게 얼어붙은 솜옷앞자락... 하지만 사관장은 얼음구멍만을 훑어지게 지켜볼뿐 까딱 움직일줄 모른다.

성심은 젖은 목소리로 조용히 불렀다.

《사관장동무.》

사관장은 고개를 돌려 성심을 바라보았다. 무릎이 얼어들어 그런지 겨우 일어서서 성심에게로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반장동무.》

《저- 적지만 이걸 가져다 앓고있는 병사동무의 입맛을 돌려세워주세요.》

성심은 사관장의 가슴에 비닐구역을 안겨주었다.

구역을 헤쳐보던 사관장의 얼굴이 일순 환해지는듯 하더니 다시 성심에게로 내밀었다.

《저- 고맙긴 하지만 안됩니다.》

《예?》

《지금이야 겨울이어서 종자물고기밖에 없겠는데 혹시...》

《아니, 이진 종자물고기가 아니예요.》

《그래도...》

성심은 격해서 부르짖었다.

《사관장동문 정말 너무하군요. 진정이야 받아

들일줄도 알아야지요. 진정을 무시하는것도 일종의 모욕이랍니다.》

사관장은 난처한 기색으로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차렷자세를 하며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했다.

《고맙습니다. 반장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기야, 많지 못해서...》

《아닙니다. 우리 은식동무가 정말 좋아할겁니다.》

《병사동무가 기다리겠는데 어서 가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때나 들리세요.》

사관장은 사람좋은 웃음을 지어보이고는 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성심은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있었다. 눈보라가 그칠줄 모르고 계속 사납게 울부짖었다.

그때로부터 거의 보름이 지나서였다. 밤급 아침모임을 끝내고 관리공들이 밖으로 밀려나가자마자 작업반선전실안으로 사관장이 불쑥 들어섰다. 무겁게 배낭을 걸머진 그의 뒤에는 동그란 얼굴에 처녀들처럼 뺨이 붉고 두눈이 초롱초롱한 중급병사가 따라섰다. 성심은 은근한 반가움과 기쁨을 숨기지 않으며 얼른 일어났다. 사관장은 한 전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그는 《결정적》이라는 말마디에 각별히 힘을 넣었다.) 도움을 준 양어장동무들에게 중대를 대표해서 감사사를 전달하기 위해 왔노라고 정중히 말한 다음 병글거리면서 중급병사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은식이, 인사하라우. 양어작업 반장동무야.》

키가 자그마한 병사는 발뒤꿈치를 힘있게 부딪치며 각듯이 거수경례를 했다.

《작업반장동지! 안녕하십니까? 잉어를 보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어마나!- 그게 무슨 큰거라구... 이젠 다 나왔어요?》

《옛! 체중이 네키로그램이나 불었습니다.》

병사의 명쾌하고 오달진 대답소리에 성심은 미소를 금치 못했다. 사관장도 곁에서 병긋이 따라웃었다.

《며칠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어이 양어장엘 와서 반장동무를 만나겠다구 생떼를 써서 따라왔습니다. 우리 은식동무 고집은 누구도 당하지 못하니깐요.》

《사관장동지두 참, 어서 그 배낭이나 벗어놓으십시오. 내가 메구 오겠다는데두 종내...》

은식은 민망스러운듯 사관장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겨내며 일부러 불분은 소리를 했다. 불수록 정이 드는 병사였다. 친동생의 응석을 받아주는 어진 형처럼 사관장은 그가 하자는대로 배낭을 내맡기고 다시금 성심을 마주했다.

《반장동무, 여기 작업반일을 좀 도울가 해서 몇가지 미술기자재를 마련해가지고 왔습니다.》

《미술기자재요?》

은식이 배낭속에서 퉁퉁퉁 꺼내놓는 아연화

봉지며 색감통들과 붓들을 보며 성심은 너무나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사실 작업반은 조만간에 3대혁명붉은기정취관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다른것은 능히 자체로 해결할수 있지만 직관물만은 남의 힘을 입어야 했다. 각종 구호들과 선전화며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의 그림판들을(새 기술이 도입되어) 다시 그려붙여야 하기때문이었다. 이런 때 땀을 흘리며 미술기자재를 배낭에 그득히 메고 온 군인들이야말로 얼마나 고마운가.

《정말 요긴히 쓰겠어요. 감사해요. 이젠 읍으로서 미술원만 모셔오면 되겠군요.》

흐뭇한 표정으로 성심이가 이렇게 말을 하자 웬일인지 은식은 모욕이나 당한듯이 눈섭을 치켜올렸다.

《미술원이라니요? 우리 사관장동지를 제쳐놓고 도대체 누구의 손을 빌린단 말입니까?》

《?!》

《작업반장동지두 참, 우리 사관장동지가 당당한 미술가인줄 아직 모른단 말입니까. 입대전에 예술학원 미술학부를 졸업했던 말입니다. 참!...》

《어마나!- 그래요?! 난 그런줄도 모르고 통...》

《아닙니다. 작업반장동무, 은식동무가 너무 요란히 광고를 하누만요. 얼마간 손에 익혔을뿐인데...》

(참말이지 자기를 꼬물만큼도 내세울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사관장의 의젓한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에 잠겨들었던 성심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런데 사관장동무, 어떻게 우리 작업반에 제기된 일을 것처럼 정확히 알아맞혔는가요?》

《그야 뭐, 전번에 여기 왔을 때 보니 길가에 세워진 구호판들의 글이 거의 바랬더구만요. 특히 정문앞에 그려붙인 대형선전화가 퍼그나 퇴색했더군요. 그래 중대부에서 제기했는데 지휘관들이 모두 도와주자고 찬성을 했습니다. 은식동무까지 협조원으로 붙여주면서...》

총렬(사관장의 이름)의 말을 잇달아 은식이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참견해나섰다.

《우리 사관장동진 늘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는 사격목표를 정확히 맞힐줄 알뿐만아니라 인민들의 마음도 잘 살필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군 합니다. 게다가 또 사관장동지의 눈은 미술가의 눈이 아닙니까!》

《참 그래요. 정말 옳은 말이에요...》

그날부터 선전실은 직관물제작을 위한 전투장이 되었다.

한주일은 실히 걸려야 할줄 생각했었는데 그들은 3일동안에 끝내었다. 선전실가까이에 조용하고 아늑한 방 하나를 마련해놓았지만 그들은 매일밤 40리길을 걸어서 부대에 돌아가 자고는 이튿날 어둑새벽에 어김없이 당도하군 하였다.

일을 마감짓는 날 총렬은 너렁청한 방에서 열심히 선전화를 그리고 있었다. 씩없이 붓질을 하

는 총렬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던 성심은 김이 물물 오르는 단물을 곁뽕에 따라 권했다.

《좀 쉬엄쉬엄 하세요. 오늘은 일찌감치 끝을 낼것 같구만요.》

총렬은 색감이 묻은 붓을 그냥 한손에 꼬나든 채 병긔이 웃으면서 물고뽕을 받아들었다. 그는 조금씩 마시면서도 시선은 그림에서 뽕줄을 몰랐다. 성심은 저으기 호기심이 어린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사관장동문 앞으로 제대되면... 분명 미술창작기관으로 가겠구만요?》

총렬은 서두르지 않고 진중하게 대꾸를 했다.

《아니, 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내 고향을 더 좋은 락원으로 꾸리렵니다. 그러면서 내 고향의 달라진 모습을 화폭에 담으렵니다. 말하자면 남의 손에 의해 꾸려진 고향땅이 아니라 자신의 땀을 바친 고향산천을 그리는 것이 저의 리상이고 소원입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부곡이라는 뭐나 흔한 고장입니다. 이름난 도시를 끼고있지요. 땅이 기름져서 해마다 농사가 잘되는데다 갖가지 과일은 또 얼마나 많더구요. 천하절승으로 손꼽히는 명산과 잇닿은 풍치수려한 산줄기가 마을뒤에 병풍처럼 뽕어있으니 말그대로 선경입니다. 하기에 우리 고향에 그림그리러 자주 오군 한 동무들이 나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이런곳에서 명작을 내지 못하면 화가가 아니라면서...》

반장동무, 웃지 마십시오. 어린애가 엄마품을 떨어질수 없듯이 난 고향을 잊고서는 한시도 살것 같지 못합니다.》

《!...》

과묵하고 독한줄로만 알았는데 어찌면 이렇듯 그림도 잘 그리고 말도 거침없이 잘하는가. 마치 격동적인 시를 읊는것처럼... 성심은 저도모르게 총렬의 기분에 휘말려들었다.

《그래요. 나 역시 이 양어장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것 같지 못해요. 단 하루라도...》

선전화를 마주하고 섰던 총렬이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성심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의 눈길에는 한없이 그윽하고 파스한 빛이 어려있었다. 성심은 왜그런지 가슴이 떨리고 속이 활랑거려 고개를 다소곳이 수그렸다...

추억의 노을 연연한 사관장과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석달전에 성심의 앞으로 편지가 날아왔다. 총렬이 보낸것이였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곳을 보니 언제인가 총렬이 그토록 자랑하던 고향에서가 아니라 이름모를 고장이였다. 어째서 고향으로 가지않았을까?...

제대되어 부대를 떠나는 날 성심이한테 들려 작별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만나지 못했노라고 쓴 다음 이제부터 편지

로라도 자주 소식을 전하겠다는 간단한 내용이 전부였다.

편지를 읽고나서 성심은 그가 제대되어 가는줄 알았으면 자기가 먼저 도리를 지켰을걸 하고 못내 서운함을 누르지 못하였다. 동시에 고향을 그처럼 사랑하는 충렬동무가 무엇때문에 고향이 아닌 딴 고장으로 갑자기 가게 되었는지 자못 의문스러웠다. 그러나 충렬의 말대로 두번째 편지가 곧 날아들었다.

《성심동무! 우리들이 스스로 찾아온 여기 마을은 길디깊은 산간오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얼마나 인정이 넘치고 부지런하고 낭만적이겠습니까! 성심동무, 벌써부터 우리 제대군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큼직한 일감들이 련속 생겨나고있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 마을도 반드시 들에는 알찬 곡식이 실레고 산에는 양, 염소떼가 흐르며 물고기 육실대는 양어장을 가진 문화농촌으로, 못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고장으로 전변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우리가 어째서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이곳으로 달려왔는지 성심동무에게 몇몇이 이야기하렵니다.…》

이렇게 그들사이에는 편지가 자주 오고갔다. 충렬은 자기네 제대군인들의 보람찬 생활을 실감있게 자세히 적어보내고 성심은 진심으로 그를 위하며 고무하는 길지 않은 글을 또박또박 써보내고… 허나 언제부터인지 충렬의 편지를 받을 때면 막연한 불안과 함께 야릇한 기쁨이 엮인 이름 못할 감정으로 주저하게 되는 성심이었다. 이제는 회답을 쓰기에 앞서 은연중에 일종의 겁마져 느끼는 그였다.

그런데 어제 충렬의 편지를 또 받았다. 줄달아 날아온 편지는 번거로운 성심의 심신을 송두리채 뒤흔들어댔다. 지금 잠자리에서 두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있지만 충렬의 모습은 그의 망막을 그득히 채우며 한시도 사라지지 않았다.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다. 그는 슬며시 눈을 떴다. 어둠던 방안이 대낮같았다. 넓은 창문으로 흰 달빛이 넘치게 밀려들어왔던것이다. 그룹속에서 헤매던 보름달이 싱싱한 자태를 드러낸 모양이었다. 벽쪽으로 돌아누운채 여전히 움직일줄 모르는 성심의 시선은 그대로 반듯한 벽면에 못박혀 있었다. 연한 닭알빛벽지에 새겨진 새하얀 눈송이무늬들이 자꾸만 눈앞에서 사물거리었다. 줄줄이 이어진 잘다란 눈송이들… 눈송이들… 차츰 그 잘다란 문양들이 하나, 둘 형체를 바꾸더니 미구에 또렷한 글자로 변모되었다.

《…우리는 마을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선참 청년돌격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심동무! 나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구고 흘러나가는 물을 리용하는 양어장을 건설하자고 돌격대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무조건 앞으로만 전진하는데 습관된 우리 제대군인들을 비롯하여 모두가 충

천한 기세로 찬동해나섰습니다. 낮에는 발전소건설, 밤에는 양어장공사… 이렇게 한꺼번에 밀고 나가고있습니다. 점점 양어장의 체모가 갖춰질수록 동무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농장에도 동무와 같이 풍부한 양어지식과 경험을 가진 훌륭한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선지 잊지 못할 그곳 양어장의 정경이 무시로 눈앞에 펼쳐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솔직히 말해 정결한 유리판같은 수면우에는 매양 동무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러면 조용히 동무와 엉뚱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성심의 가슴은 불뭉치를 안은듯 했다. 얼굴이 또다시 활활 달아오르고 심장은 급스레 두근대었다. 도끼날에 튕겨나는 얼음조각들이 떠오르는가 하면 그림판에 마주앉아 붓질을 하던 충렬의 모습이 양어장의 철썩철썩 꼬리치는 산천어들이 눈앞에서 번갈아 어른대었다. 허나 잠시후에 성심은 그 놀라운 운명의 굴이 새겨진 담벽이 홀지에 쿵- 무너져 덮치는듯 한 환각과 압박감을 일시에 느끼며 몸을 뒤흔들었다.

(그럴수 없어… 난 그럴수가 없어. 그럴수가 없어…)

그러나 여전히 그는 궁싯거리다가는 나직한 한숨을 내쉬곤 했다. 왜 이다지도 속이 갑갑하고 어수선탈가. 여름밤은 노루꼬리처럼 짧다는데 어째서 날은 밝지 않는가… 아무래도 그냥 자리에 누워 견딜수가 없었다. 마침내 스르시 일어난 그는 어머니가 깨어날가봐 숨소리를 죽여가며 옷들을 걸친 다음 밖으로 나왔다.

얼마간 서쪽으로 기울어지기는 했으나 은점처럼 둥근달이 한껏 웃어주는 여름밤은 얼마나 유정하고 아름다운가. 온 하루 뜨겁게 달구어진 대지는 채 식지를 않아서 아직도 후끈후끈 열기를 뿜어올리고있었다. 초저녁부터 하늘에 떠있던 먹장구름들은 간데없고 물에 씻긴듯 한 별들이 모록모록 박혔는데 집집의 울바자를 가리우며 높이 솟아오른 호합진 줄당콩잎사귀들과 키를 넘게 자란 강냉이밭의 길죽한 잎사귀들이 푸른 달빛을 번들번들 흘리고있었다. 멀리 양어못쪽에서는 개구리들의 극성스러운 울음소리가 꿈결에서처럼 어렴풋이 들려왔다. 고개를 수긋한 성심은 발길 닿는대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일매지게 돌포장을 한 길목에 이르러서야 그는 자기가 양어장입구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식했다.

양어장의 밤풍경은 그지없이 신비로운 운치를 돋우고 살들히 성심을 맞아주었다. 바둑판처럼 펼쳐진 고기못들과 검푸른 잔디옷을 입고 끈게 뻗어간 수로쪽우에는 수면에 넓은 그림자를 질게 내던진 버드나무들이 줄을 지어 늘어섰는데 무성한 가지와 잎새들속에서는 놀란듯 한 밤새소리가 간간이 울려나왔다. 이슬에 젖어 싱그러운 냄새를 풍기는 물기 번지르르한 잔디밭가운데서도 씨

특씩 특씩 물벌레소리가 지긋게 이어졌다. 양어못마다에 설치한 배수구의 물갈이수차에서 떨어지는 선선한 물소리와 새소리, 벌레소리며 곳곳에 환히 매달린 유아등불빛이며는 어느 밤에나 정겹게 안겨오는 것이지만 오늘따라 유난스레 성심의 마음속을 헤집으며 파고들었다. 성심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양어장의 모든 것이 그를 반기는 듯싶었다. 마음이 저절로 파스해진 성심은 살찌우기 못들중의 하나인 첫번째 못기슭에 세워놓은 나지막한 나무결상에 편히 주저앉았다.

물갈이수차에서 생긴 물결이 달빛과 유아등불빛을 한데 받아 눈부시게 이랑을 지으며 못 한복판으로 서서히 흘러들고있었다. 수면위에 낮추드러온 유아등둘레에는 부나비들과 하루살이떼가 분주히 맴돌아치는데 물에 떨어지는 곤충을 남먼저 가로채느라 빌리는 물속 고기들의 싱갱이가 야단스러웠다. 이따금 류달리 사납고 드센 높이 공중에 불끈 솟구쳐올라 먹이를 덥석 물고는 철썩덕 곤두박히기도 했다. 그러면 물밑에서는 즉시 먹이를 뺏느라 고기들의 맹렬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꼬리들에서 튀겨오르는 물방울이 사방에 휘뿌려지곤 했다. 성심의 입가에는 즐거운 미소가 어리고 두눈은 잔잔한 열기로 반짝이었다.

(10여년전엔 못마다에 아버지가 석유등불을 켜놓곤 하셨지. 그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마다 물을 가득 채운 소랭이 한가운데다 사이다병으로 만든 석유등을 간간스레 세워놓곤 하시던 아버지, 거울같이 반듯한 수면우에는 두툼한 입술을 꼭 다문채로 소리없이 빙그레 웃으시는 아버지의 수척한 얼굴이 방불하게 그려졌다.

...군대에서 제대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온 성심의 아버지는 양어사업소 로동자가 되었다. 어느 해엔가 100리나 떨어진 분장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갓 생겨나는 외진 산골의 자그마한 양어장(아직은 빈 터전뿐인)으로 가게 된 사람이 갑자기 앓아누워서 대신 보낼 사람을 찾는데 선뜻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하여 아버지가 자진해나섰던 것이다. 아버지를 따라 다른 한 가정과 함께 새 고장으로 갔지만 그들은 오래지 않아 적적해 못살겠다며 판고장으로 이사를 가고 말았다. 사업소에서는 또 누구를 곧 보내주겠다고 약속은 하였으나 인차 그렇게 되질 못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밤낮없이 뛰어다녔다. 본장과 멀리 떨어져서 벌려놓은 일기기에 조련치가 않았다. 생땅을 파서 고기못을 만든다, 새끼고기를 받아온다, 사료를 마련한다... 하루세끼 밥도 제대로 편히 앉아서 먹지 못하던 나날이었다. 하지만 노력의 보람은 있어 이듬해 봄부터는 못들에 제법 고기떼가 육식거렸다.

그런데 장마철에 접어들어서였다. 대줄기같이 쏟아지는 비는 꼬박기 며칠간 계속되었다. 보기도문 큰 홍수가 났다. 고기못들이 홍수에 휘말려

들었다. 본장에다 도움을 청할 겨를도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갈광질광하면서 황포한 물과 힘겨운 싸움을 벌렸다. 그러던 아버지는 터지려는 새끼못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다가 그만 사품치는 물결에 삼키웠다. 다행히도 나무뿌리에 걸려 생명은 구원되었으나 한달나마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허나 아버지는 그 몸으로도 양어못을 떠날줄 몰랐고 오늘처럼 번듯한 양어장을 일떠세우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 하기에 이 양어장의 모든것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성심에게 아버지에게 대한 연연한 추억을 불러내는 것들이었다. 양어장구내를 거닐면 거닐수록 성심의 가슴속에는 가지가지 애절한 회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기만 했다. 즐거움과 함께 괴로움과 쓰라림도 없지 않은 잊지 못할 나날들이 그의 눈앞에서 흥떡이었다. 바로 여기서 직심스레 일을 하면서 대학공부를 마치고 어엿한 양어기사로, 초급일군으로 자란 그였다. 진정 양어장의 그 어느 번두리 일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성심의 뜨거운 숨결이 스며있고 후더운 땀이 젖어들지 않은데 가있으랴...

날이 희뵈히 밝을녘에야 성심은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아침을 지으며 한숨을 거두지 못하던 어머니는 퍼그나 달라진 성심의 낫색과 거동을 조심스레 살피었다.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다 허리병이 도져 직장에는 못나가지만 양어장일이라면 아무때나 기를 쓰고 도와나서는 어머니였다.

성심은 아무말없이 옷방으로 올라가 책상을 마주했다. 종이 한장을 꺼내놓고 만년필을 찾아쥐었다. 그러나 정작 글을 쓰려고 하니 손이 화들거렸다. 무슨말부터 써야 하는가, 단 한마디면 될 것이다. 아니, 가슴에 쌓인 유정한 말들은 죄다 덮어버리고 단념을 뜻하는 차거운 말만 짤막히 적어보낸다면 그건 너무나 박정하고 위선적인 자기 기만행위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방금전까지 태연해졌던 성심의 가슴은 또다시 사정없이 흘러내리는 아픔의 엄습으로 옥죄여들었다. 하지만 잠시후에 그는 강잉히 자신을 다잡고 나서 한자한자 새겨나갔다.

갑자기 더운 눈물방울이 눈에서 후두둑 떨어져 만년필을 쥔 손등을 적시었다.

아, 도대체 무슨 말을 써보낸단 말인가... 아니, 난 그렇게 할수 없어. 못쓰겠어. 그건 나를 속이고 충렬동무를 속이는 죄스러운 일이야...

종시 더 쓰지를 못한 성심은 종이장과 만년필을 한옆으로 힘겹게 밀어놓았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맥없이 팔래감들을 소랭이에 담아끼고 밖에 나서려하는데 어머니가 겁을 먹은듯이 급하게 밀막았다.

《아니, 이렇게 신새벽에 빨빨 주무르다니, 밥도 먹지 않구. 아무리 쉬는 날이라두 말이다.》

《인차 돌아와요, 어머니.》

《아니 성심아! 너 어제 저녁두 굶었는데...》

《있다 먹겠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걸으로는 평온을 보이며 심상히 말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저도모르게 떨렸다. 어머니의 눈길과 마주칠가봐 저어하며 그는 황황히 문을 열려고 했다.

《성심아!-》

어머니는 무슨 말인가 더 이을듯 하다가 긴 한숨만을 나직이 내그었다. 성심의 마음은 초불처럼 흔들렸다. 그는 열결에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헤아릴수 없이 깊은 련민과 불안이 뒤엎킨 초조히 떨리는 어머니의 눈길과 마주쳤다. 늘쌍 은근하고 온화한 빛이 떠나지 않던 어머니의 얼굴에 질게 어린 이름할수 없는 우수를 감축하는 순간 성심의 가슴은 느닷없이 찌릿해왔다.

《어머니!-》

성심은 어머니의 꺼칠꺼칠한 두손을 마주잡으며 그의 가슴에다 와락 얼굴을 묻었다. 하고는 막았던 물고를 터치듯 총렬이와의 관계를 죄다 설도해버렸다. 그래서인지 답답하던 속이 비로소 얼마간 홀가분해지는것 같았다. 성심의 잔등을 다심히 어루쓸던 어머니는 한참후야 저으기 침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성심아... 너한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줄 이 에민 진작 알구있었단다.... 어제밤엔 별루 졸음이 안오더라. 눈은 감구있었어두...》

《...》

《그래, 네 말이 옳구말구. 네가 어떻게 이 양어장을 훌 버릴수가 있겠느냐. 아버지가 한생을 바친 곳인데... 그러구 이제 정이 들대로 들어 고향과 같은 곳이 아니냐. 이웃들도 직장사람들도 모두 우릴 끔찍이 위해주는 이 고향을 어떻게 쉽사리 뗄수가 있겠느냐. 더구나 거진 사람도 산천도 생소한 땅인데다 보기 드문 산골이라니...》

잠시 동안을 두었던 어머니는 변함이 없는 곡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하지만 세상에... 처녀의 첫 사랑이란 늙어 죽을때까지두 잊혀지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성심아, 내 요즘 생각하구 또 생각한 뒤에 꺼내는 말이다만 난 네가 그 총각을 따라가는게 마땅할것 같구나. 구름은 바람따라 가구 너자는 남자를 따라가는 법이라는데...》

《...》

역이 꺾 막혔다.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섭섭함이 한꺼번에 울컥 솟구쳐올라 말문을 열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곧 머리를 들었다. 물끄러미 어머니를 향한 그의 고뇌어린 커다란 두눈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어쩌면... 어머니 내 마음을 다는 모르시는군요.》

...장마통에 심하게 상한 아버지의 몸이 점점 회복되어가던 어느날, 성심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매일 10리나 되는 심심산골의 학교길을 혼자서 오고가기가 쉽지 않았다.

둘이 비죽비죽한 양어장잡이에 들어서던 그는 오뎅 멈춰섰다. 홍수로 꽤 깊은 웅덩이가 생긴 곳에서 아버지가 부지런히 삽질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얼마전에 본장의 노동자들이 떨쳐와서 터진 양어못둑들을 든든히 고쳐쌓고 잔디까지 입혀 놓았는데도 아버지는 째깍이 지팽이를 짚고 양어장주변을 돌며 이것저것 손질을 하군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아버지의 등을 떠밀어 집으로 돌려보내곤 했었다. 마침 오늘 어머니가 본장에 내려간 틈을 타서 아버지는 또 일감을 찾아온 모양이었다.

《아버지-》

성심은 아버지곁으로 달려갔다.

천천히 허리를 펴면서 아버지는 싱그레 미소를 지어보였다. 성심은 눈굽이 찌릿해왔다. 대체로 열심히 일을 하면 사람의 낮이 벌겍게 상혈되기 마련인데 힘든 작업을 하는데도 피기 한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축간 얼굴은 온통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아버지, 어서 집으로 가지자요. 이러다가 또 누우시면...》

성심은 울상이 되어 애원조로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옷소매로 땀을 훔치면서 대견해하는 표정을 띄울뿐 삽자루를 놓을념 안했다.

《성심아, 손을 댔던 김에 마저 하자꾸나.》

《참, 이런 웅덩이쯤은 메꾸지 않아도 되잖나요, 아버지.》

《성심아, 앞으로는 여기로 자동차들이 와랑와랑 다니겠는데 잘 다쳐놓아야지.》

어릴적부터 아버지를 무조건 따르는데 버릇이 된 성심은 아버지의 손에서 살며시 삽자루를 당겼다.

《아버진 쉬세요. 내가 제격 할테니...》

했으나 아버지는 한사코 곡괭이질에 달라붙었다. 일을 끝내고 돌아올 때 성심은 한손으로는 책가방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어깨에 멘 삽과 곡괭이를 붙잡은채 아버지와 발맞춰 걷다가 조심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살면 안되나? 우리 고향으로.》

《고향?》

《응, 고향으로, 사업소본장이 있는데로 말이지 뭐.》

아버지는 슬그머니 멈춰섰다. 그러나 인차 지팽이에 의지하여 다시 절뚝절뚝 걸음을 내짚으면서 말을 꺼내었다.

《물론... 그래도 되지. 그럴수도 있어. 하지만 성심아, 우리 여기다 새 고향을 만들면 어떡냐?》

《아이참, 아버지두, 고향이 무슨 물건이라고 만들어내겠어요?》

《아니, 고향도 만들수가 있단다. 예로부터 정은

고향이라는 말이 있지. 하지만 성심아, 어찌 제가 태어난 정든 고향만이 고향이겠니. 자기의 땀과 노력이 깃든 곳도 고향이 아니겠니.

물론 여기가 아직은 우리가 살던 곳, 우리 고향만큼 살기 좋은 곳이 못되지.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또 너랑 땀을 바치구 정력을 들이면 우리 고향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될게다. 그때 가서는 아마 너두 여기를 떠나랴구 해두 못떠날게다. 고향처럼 정들어서 말이다. 허허...

그리구 누구나가 이렇게 새 고향을 많이 만들 수록 내 나라는 더욱 흥해지구 부강해지는거란다.》

《?!》

《너두 이 아버지의 말을 앞으로는 틀림없이 리해하게 될게다. 성심아.》

《...》

한동안 생각에 잠긴 얼굴로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던 아버지는 은근히 이렇게 물었다.

《학교다니기가 퍼그나 힘이 들지?》

《아니예요. 난 그저... 아버지랑 어머니랑 살기 좋은 고향을 떠나 이런데루 와서 밤낮 고생을 하는게 막 안타까와서...》

《성심아, 아버지와 어머니 지금 고생을 하는게 아니란다. 정말이지.》

《그럼... 고생이 아니문 뭐나?》

《새 고향을 만드는 일이지. 바로 우리의 고향을! 허허허...》

《?!...》

두눈이 동그래진 성심은 말끄러미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말이 아직 잘 리해가 되지 않았지만 더구나 의아스러웠것은 저으기 흥에 겨운듯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병색이 짙은 얼굴에는 피로가 폭 배였으나 두눈은 빛다른 광채와 열기를 황황 내뿜고있었던것이다...

나무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양어장길을 오르내리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한번 언뜻 그러본 성심은 어머니를 위로하듯 그러면서도 결연한 어조로 나직이 말했다.

《어머니, 녀려마세요... 이젠 내 마음이 더는 흔들리지 않을거예요. 그리고 그 동무에 대한 얘기는 더 꺼내지 말자요.》

한달후였다. 서컨 하늘에는 한창 선홍빛노을이 익어가고 있었다. 퇴근길에 오른 성심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자기가 술한 사람들앞에서 산천어기르기에 대한 경험토론을 제대로 할수 있을가 하는 위구심때문만이 아니였다. 산천어를 생각하면 어쩔수없이 마음의 안정을 잃게 되는 성심인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게 참말 다행이었다. 래일 사업소에서는 군적인 방식상학이 진행되는데 각별히 품을 들여야 할 산천어기르기경험토론은 응당 성심의 몫이라고 하면서 일군들이 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것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온군의 인기를 독점한 산천어였다. 양어장에서 육실대는 흔치 않은 물고기인 산천어를 생각만 해도 충렬이에 대한 추억으로 어쩔수없이 끌려들게 되는 성심이였다.

두해전 초가을,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며칠 앞둔 날의 한낮때였다. 넓다란 살찌우기못은 물고기잡이로 흥성이였다. 기운센 남자관리공들이 그물을 천천히 끌어다가다가 기슭에 이르러 우썩우썩 들어올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잉어들이 요동치군 했다. 관리공들의 환성이 연방 터져올랐다.

펼 펼쳐 뛰는 생선을 주변주둔 인민군대에 선참 보내게 되는 기쁨으로 관리공들은 모두가 성수가났다. 제일 실한 잉어 한마리를 골라 저울에 달아본 처녀가 성심을 향해 웨쳐댔다.

《반장언니, 이 대짜배기잉어는 사관장동지한테 안겨줄거예요. 특별히 포장하자요. 호호호...》

성심이 와뜰 놀라며 노염을 타는듯이 위협하는 시늉을 해보이자 웃음소리는 더 높아졌다.

《호호호...》 《하하하...》

바로 그때 약간 황이 들기 시작한 버드나무사리로 함창소리도 우렁차게 이쪽으로 행진해오는 인민군병사들의 대렬이 얼핏 눈에 띄었다. 관리공들은 잠간 대렬쪽에 시선을 주었음뿐 계속 물고기잡이에 몰몰했다. 그러나 성심의 귀에는 노래소리가 점점 더 크게만 들리는듯 싶었다.

(웬 군인동무들일가...)

대렬이 못가에 가까와지자 듄직한 체구의 군인 하나가 훌쩍 떨어져나오더니 곧추 성심의 앞으로 다가왔다.

《수고하십니다. 작업반장동무!》

《어마나!-》

삼시에 반가움과 수집음의 열파가 휩쓸어 닥쳤다. 가뜰이나 커다란 두눈을 둥그렇게 뜨며 놀라는 성심을 보고 충렬은 우람진 가슴을 제치면서 병긋이 웃었다.

《쉬엇! 해쳐갓!》

군인들이 우르르 양어못가로 달려왔다. 그들이운데서 은식이가 한손에 네모진 새파란 보꾸레미를 들고 숨가빠 종종걸음치는것이 대번에 알렸다.

은식은 성심의 앞에 멈춰서더니 거수경례를 하기가 바쁘게 보란듯이 보꾸레미를 쏙 내대였다.

《이게 뭘지 알아맞춰보십시오. 반장동지!》

《...》

성심은 어리둥절해졌다. 곁에 선 충렬은 시치미를 떼고 그냥 빙글거릴뿐이였다. 어느새 처녀들이 채깔거리며 그들을 둘러쌌다.

《아- 참, 작업반장동지두. 사관장동지가 반장동지를 위해 애써 마련한건데 못알아 맞히다니요. 참...》

《?!》

성심의 낮은 더욱 단풍잎같이 빨개졌다. 충렬

이 성심에게 무슨 기념품을 가져왔단 말인가. 하지만 점직하면서도 마음속은 마냥 즐거워만 지는 성심이었다. 처녀들이 조심스레 키득거리며 소곤대었다.

《어서 헤쳐보이라구, 은식동무.》

총련의 재촉을 받고서야 은식은 능청스레 처녀들쪽에 대고 눈을 찡긐한 다음 일부러 끄끙 갑자기 옥뱀하듯 보자기의 매듭을 풀었다. 유리처럼 투명하고 반들거리는 새하얀 비닐통이 드러났다.

《자- 보십시오. 어떤 희한한 보물인가. 귀염둥이 산천어새끼들이란 말입니다.》

《어마나- 보물이요?》

《산천어새끼라니요?...》

어깨를 비비대면서 관리공처녀들이 성심을 따라 비닐통에 눈길을 박았다. 과연 통안의 맑은 물속에는 성냥가치 절반만한 고기새끼들이 바글바글했다. 아마 수백마리는 흔히 될것 같았다. 비닐통을 이쪽저쪽으로 돌려가며 관리공들은 큰 경사를 만난것처럼 떠들썩했다.

《아니, 이 귀한걸 어디서요?》

이렇게 성급히 성심이 묻자 은식은 바로 그런 질문을 기다렸다는듯이 제격 대답을 가로챘다.

《작업반장동지, 이번에 우린 이동훈련을 나갔습니다. 어지간히 먼 곳으로요. 마침 거기 양어장에서 얻었지요. 사관장동지가 말입니다.》

왜 그런지 성심의 낮은 또다시 알릴듯말듯 붉어졌다.

《이 걸 기르기가 몹시 까다롭다고들 하더군요.》

총련의 목중하고 미더운 목소리가 웅글게 울렸다.

《하지만 대답하게 길러보십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양어장에서 갖가지 물고기를 길러야 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중대에서는 산천어못도 아예 건설해주고 한개 소대동무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이 좋아라!》

《야-아! 멋있구나! 고기못까지...》

일시에 처녀들의 입에서는 환성이 터져나왔다. 어린애같이 손뼉을 쳐대는 처녀들도 있었다.

허나 성심은 가만히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군인동무들, 정말 고마와요.

하지만 못만은 우리가 파겠어요. 훈련도 바빠텐데 못파는 일까지야 어떻게... 안됩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몇시간이면 와닥닥 해제길테니 걱정말라고 저저마다 말하였다. 총련이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한걸음 나섰다.

《반장동무, 아무튼 우린 값을 톡톡히 받아낼작정입니다.》

《?!...》

《이 산천어를 기르면서 얻은 경험을 우리한테

꼭 알려주어야 한다는겁니다. 후날 고향으로 가면 우리도 양어를 한번 본때있게 해볼 작정이니까요. 그러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예요. 참 훌륭한 생각이예요. 알겠어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성심이 맹세하듯 약속의 말을 되풀이하는데 은식이 끼어들었다.

《저한테두요! 반장동지, 저도 산천어기르기경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

성심은 가슴이 화끈해졌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심깊은 미래에 대한 설계가 군인동무들의 가슴속마다에 뜨겁게 간직되어있는것인가!

뒤켠에 서있던 중급병사가 은식의 어깨를 슬쩍 밀치며 익살을 부렸다.

《여 은식동무, 동무야 반장동지한테가 아니라 이 단발머리 멋진 처녀한테 부탁을 해야지. 과거를 헛갈렸어. 하하...》

《하하하.》

《호호호.》

...(지금 총련동문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동안 한번도 회답을 안했으니...)

착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성심은 무겁게 걸음을 옮기었다. 이미 심장의 문을 꼭 닫아매고 다시는 그에 대해 생각지 말자고 모질게 마음을 버리곤 했던만 자꾸만 그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성심은 호- 한숨을 내쉬고 더는 부질없는 상념에 휘여잡히지 않으려고 저 멀리 하늘가를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했다. 저녁해가 저가는 서켠 하늘가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비껴있었다.

성심이 집뜨락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다급한 걸음새로 마주나왔다.

《애야, 왔다 왔어.》

《예?! 오다니요?...》

성심은 심장이 후두둑 뛴는것을 느꼈다.

《총련이 그 사람이 보낸 처녀가 왔어.》

성심은 무뎠다 그 자리에 굳어졌다. 총련동무가 보낸 처녀라니?... 그럼 혹시?... 아니,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그 어떤 날카롭고 예리한것이 가슴 한복판을 꿰뚫는듯 했다.

성심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방문을 열자 불이 오동통한 애된 처녀가 활짝 웃으며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

《총련오빠가 보내서 왔어요. 김은희라고 불러요.》

《난 최성심...》

《난 다 알아요. 성심언니!》

뺨에 진한 홍조를 머금은 처녀는 성심의 두손을 꼭 잡았다.

자그마한 키에 동그란 얼굴, 웃을 때마다 랑볼

에 패이는 인상적인 보조개... 성심은 은희가 어디선가 꼭 본것처럼만 느껴졌고 친동생처럼 정겹게 생각되었다. 그는 은희의 손을 살뜰히 쓸어만 지었다.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요?》

《아니예요. 언니, 난 언니를 보니 무척대고 기쁜걸요. 호호...》

은희는 밝게 웃었다. 무척 활달하고 명랑한 처녀였다. 성심어도 따라웃었다.

은희는 손가방에서 편지봉투 하나를 꺼내 생글웃음을 지으며 성심앞에 내밀었다.

《언니, 충렬오빠의 편지예요.》

《?!...》

불시에 성심의 가슴은 후두둑했다. 첫 순간은 기쁨으로, 다음순간은 미묘한 두려움으로 심장이 높뛰었다. 편지를 받아드는 손마저 가볍게 떨리는것 같았다. 성심은 벽쪽으로 반쯤 돌아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야 나는 성심동무가 왜 회답이 없는가 하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무의 깊은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저를 아무쪼록 용서하십시오.

성심동무는 언젠가 자기는 정든 고장을 영원히 뜨지 못할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성심동무의 심장속깊이에 간직되어있는, 자기의 고귀한 땀과 노력, 정열을 바친 향토에 대한 그 소중한 애착심과 긍지감을 빼앗아낼 권리가 없는겁니다.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동무의 고결한 마음에 나는 머리를 숙입니다.

나도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성심동무처럼 진정으로 고향산천을 사랑하고 더 아름답게 꾸리도록 하는데 저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렵니다.

동생 은희를 보내니 그한테 양어기술을 잘 가르쳐주길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충렬.》

성심의 얼굴이 해쓱하게 질렸다. 단박에 심장이 줄아드는듯 했다. 눈앞이 막 얼른거리고 귀가 멍멍해났다.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오르는 바람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옷방으로 올라갔다. 책상에 엎드려 소리없이 흐느껴 울었다.

(아, 너무해요. 충렬동무.

행복하라고요. 그 말이 그리도 쉽게 나오던가요?... 정말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 내 속마음은 모르고...

아니, 충렬동무를 탓하지 말자 모든건 나때문이야, 나때문...)

얼마후 다소 진정이 되었다. 애써 혼연한 표정을 지으며 성심은 아래방으로 조용히 내려갔다.

은희가 무엇을 감추었는지 성심의 곁으로 다가들며 근심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성심언니, 혹시 우리 오빠가 언니를 노엽히게 아냐나요?》

성심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언니, 우리 충렬오빠를 이해해주세요. 충렬오빠 정말 훌륭한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충렬오빠가 친아들 못지 않다고 내내 외우신답니다.

그리고 동네사람들도 우리 마을을 제 고향처럼 사랑하는 흔치 않은 젊은이라고 모두들 칭찬한답니다.》

《아니, 친아들 못지 않다니?!》

성심은 아까 은희의 이름을 들을 때 충렬이와 성이 같지 않던것을 언뜻 상기하며 의아히 물었다.

《충렬오빠 사실 저의 친오빠가 아니예요.》

《그럼?...》

은희는 추억을 더듬는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답답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충렬오빠 우리 친오빠네 중대의 사관장이었어요. 그는 신입병사시절부터 중대의 막내라고 우리 오빠를 친동생처럼 각근히 사랑해주었대요. 오빠가 간혹 앓아 입맛을 쯏힐 때면 충렬오빠는 어떻게 해서든 물고기생선을 구해다주곤 했대요.

물고기가 귀한 산골에서 자란 오빠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만 편지마다에서 자기네 사관장을 자랑하곤 했어요. 친형님같다구요.

언니, 우리 오빠 훈련중에 갑자기 터지게 된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어 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되었어요...

그래서 충렬오빠는 제대를 앞두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에게도 그리운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있고 앞날의 창창한 꿈이 비긴 정든 고향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제대군인오빠들이 그러는데 충렬오빠네 고향은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 정말 멋들어진 고장이래요. 하지만 충렬오빠는 전우인 우리 오빠를 대신해서 우리 고향으로 올것을 결심했대요.

언니, 그뿐인줄 아세요. 충렬오빠의 결심을 알게 된 오빠네 소대의 부소대장과 분대장도 함께 우리 고향으로... 후...》

은희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

성심은 세찬 충격에 가슴이 뻐근해났다. 아, 나는 왜 진작 그걸 몰랐던가. 그토록 가슴뜨거운 사연을... 한편으로는 그런 사연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는 충렬이가 섭섭했다.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니 다감하고 쾌활하고 열정적이던 은식동무가 바로 은희의 친오빠가 아닌가! 산천어못을 파던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항상 웃음을 띄우고 있던 그의 밝은 얼굴이 눈앞에 보이는듯 했다. 자기네 고향의 메주덩이만한 감자와 기막히게 감미롭고 향기로운 산골자랑으로 양어공치녀들의 부러움에 찬 눈길을 모으던 꿈많은 청년... 은식동무가 그렇게 희생되다니... 밝은 눈물이 성심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충렬오빠넌 우리 농장에다 배낭을 풀어놓은 날부터 줄창 일밖엔 몰라요. 군복은 벗어도 혁

명적군인정신을 안고 전투적으로 일해나가는 오빠네들을 보며 우리 고향사람들은 장군님께서 키우신 제대군인들이 다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하루는 내가 충렬오빠한테 물었어요.

<오빠, 오빠넨 고향생각이 안나나?>

충렬오빠는 병긋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생각나지. 정말이지 고향이 그리다.

하지만 은희야, 고향이란 어떤 곳이겠니?... 자기의 뜨거운 진정과 열렬한 사랑, 소중한 땀과 정열을 바쳐가는 곳이 아니겠니. 그런 진정과 사랑을 바치지 못한 곳은 아무리 태를 묻은 고장이어도 고향이라 말할 수 없는거다.

은희야, 너의 오빠는 동무들한테 자주 이야기 하곤했지. 후날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기네 산골 마을을 도시 부럽지 않게 보란듯이 꾸려놓겠다고... 날마다 웃음속에 노래속에 흥성이는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만들겠다고...

은희야, 오빠가 간직했던 그 고향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바쳐 오빠가 바라던 락원을 펼쳐놓아야 해. 이것은 오빠의 전우로서 우리가 지닌 의무이고 지켜야 할 의리야.>

성심언니, 충렬오빠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

은희의 말은 끝났으나 성심은 말없이 그대로 앉아만 있었다.

잠시후 성심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어젖히었다. 서늘한 저녁공기가 확 밀려들었다. 그러나 성심의 돌아오른 가슴속은 식어들줄 몰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아직도 방안에서는 은희의 말소리가 거세찬 파도소리마냥 메아리치는것만 같았다. 발전소며 양어장을 건설하느라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공사장의 활기띤 갖가지 음향이 금시 귀전에 들려오는듯 싶었다. 쉼없는 삽, 곡괭이질소리며 용을 쓰는 프락포르들의 드센 동음소리, 호야호야 일판을 들었다놓는 웃음소리며 격동적인 노래소리들, 곳곳에서 돌격의 구령소리마냥 바람결따라 몸부림치는 붉은기들의 펄럭임소리... 성심은 말없이 고개를 들고 창너머 멀리 노을이 불타는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충렬이며 청년돌격대원들의 자랑찬 군상이 우뚝하게 안겨왔다. 성심은 그 군상속에서 자기자신의 모습도 찾아보고싶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두손을 꼭 마주잡고 지그시 힘을 주었다. 어찌선지 온몸에 류다른 열기가 전류마냥 흐르는듯 싶었다. 심장의 박동이 점점 빨라지는것만 같았다. 그렇다! 귀중한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영웅적으로 희생된 애젊은 병사- 은식동무의 고향을 아름답게 가꿔갈 의무는 나에게도 있는것이 아닌가.

(...충렬동무의 말이 옳아. 자기의 뜨거운 진심, 열렬한 사랑을 깡그리 바치는 곳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진정한 고향으로 되는거야.

그렇게 공을 들이고 정을 들인 고향들이 모여 내 나라, 내 조국이 되고 내 조국은 강성대국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되는거야.)

불현듯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정든 고향을 떠나 생소한 이곳에 와서 양어장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한것은 여기가 결코 나서자란 고향이 여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곳도 내 조국땅의 한부분이기때문이었다. 그런데 난 아버지의 진정, 깊은 속마음을 다는 모르고있었어. 아버지의 고결한 뜻을 욕되게 했어. 아, 아버지가 이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섭섭해하시랴...

붉은 노을이 동녘하늘을 신비롭게 물들이는 청신한 아침이었다.

풀잎마다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아침해살에 구슬처럼 명롱히 빛을 뿌리는 언덕우에 두 처녀가 서있었다. 충렬이네한테로 떠나는 성심이와 은희였다.

성심은 묵직한 배낭을 지고 한손에는 새파란 꽃보자기로 정히 싼것을 들었다. 언젠가 충렬이 산천어새끼를 가지고 왔던 새하얀 비닐통에 자기가 직접 길러낸 산천어새끼들을 담아가지고 떠난 길이었다.

걸음을 옮기던 성심은 문득 멈춰서서 뒤를 돌아다보았다. 푸른 버드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선 양어장이 한눈에 안겨왔다.

성심은 속으로 속삭였다. 잊지 못할 일터여, 양어장이여! 나의 인사를 받아다오. 그리고 기다려다오, 우리의 소식, 기쁜 소식을... 그러자 노을빛에 싸인 양어장도 따뜻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면서 바래주는것만 같았다.

성심은 손을 높이 쳐들어 저으며 걸음을 다그쳤다.

고향과 나

김봉운

고향의 노래

고향-

어머니란 다정한 부름처럼
조용히 불러본다
그러면 정다운 혈육의 대답인양
마음속에 울려오는 고향의 메아리
내 한생 못잊는 기계의 동음소리

애젊은 시절에 군복을 입고
고향떠나 몇몇해던가
이제는 군모밀에 머리도 희어져
왜서인지 더 자주 불러보는
나의 고향아

추억의 문을 열고
고향을 그려볼 때
누구는 어릴적 뛰놀던 산촌의 시내물소리
류다른 산향이라지만
나에겐 먼저 떠오르는
기계공장의 그 장쾌함 그 동음소리

야장간 마치소리만 처량하던 산촌
그마저 폭격에 빼만 남았던 절벽가에
아버이수령님 세워주신 공장
아버지 손목잡고 희한해 들어서던
그날의 그 황홀함 잊을수 없구나

내 자주 고향을 찾지 못해도
오늘은 매일과 같이 고향소식 듣나니
우리 장군님 그리도 자주 찾으시여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내 고향 자강도

피눈물 언덕넘어
《고난의 행군》의 눈비를 헤치시며
우리 장군님 걸으신 선군의 길에서
현대화의 메아리 높이 울린 내 고향
온 나라 인민들 제 고향보다
더 자주 불러보는 내 고향

어려운 나날에 장군님께 힘을 준 땅
온 나라에 타번지는 위훈의 봉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높이 추켜든 나의 고향

그때문이리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면
온 나라에 힘을 주는 기계의 동음소리
선군의 숨결높은 그 메아리 울려오는것은
그 누구에게나 자랑하고싶은
내 고향이라오

맑은 샘 오늘도 솟아

실버들 아지도 제 모습 비쳐보다
하도 맑아 구슬같은 이슬알 떨구며 시샘하는가

금수굴 천연바위 뿜고 뿜고
정가롭게 솟고 솟는 내 고향의 맑은 샘

가렬한 전화의 그날
전선길에 쌓인 피로 다 풀린다시며
우리 수령님 달게도 드신

내 고향의 맑은 샘이라오

수령님 헤치시던 포연서린 전선길
그 길에 더운 땀 식혀드린 맑은 샘
위대한 승리의 길 열어가시는 수령님께
인민의 마음처럼 진정을 고인 내 고향의 맑은 샘

잊지 못해
그 나날을 잊지 못해

오늘도 그날처럼 솟고 솟는 맑은 샘
그날처럼 그날처럼
우리 장군님 모시고 싶어

우리의 마음처럼 인민의 마음처럼
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 그리며
오늘도 솟고 솟는 내 고향의 맑은 샘

내 고향의 대답

시련도 아픔도 많은
고난의 그 나날
기계공장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부탁할것은 없는가
선반공처녀에게 다정히 물으실 때
처녀는 마음속 진정을 담아
장군님께 삼가 대답올렸네

-장군님!
더 많은 일감을 주십시오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일터
생활상문제로 물어둔 말
어찌 없으랴만
조국과 혁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들으시는 우리 장군님

머리 희도록 살면서
내 이제는 말할수 있구나
나서부터 내 이름결에 새겨진 고향
군복을 입던 그날도 구대원들 먼저 묻던
고향과 나의 떨어질수 없는 인연을

태를 묻고 자라서만이 아니여라
왜 누구나 이름과 나란히 고향을 적는지
가까운 친척보다 먼저
고향을 묻는지
내 이제는 말할수 있나니

높낮은 산밭은 나의 골격
기름진 땅은 나의 살점
맑은 내물은 나의 양심
고향과 나는 하나

때아닌 폭우에 사태가 일어도
내 뼈마디 부서지듯 저려라

말없이 말없이
처녀의 손목 꼭 잡아주셨네
가는 손목 말라터진 입술에서
생활의 모든것을 다 읽으시며...

깨끗이 정리된 일터
반짝이는 기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장군님 한 처녀만이 아닌
내 고향의 대답을 들으셨네
인민의 대답을 들으셨네

고난을 박차고 래일을 내다보며
장군님 계시기에
승리를 확신한 그 대답
전선길 천리에 장군님 안고가신 그 대답
그 길에 오늘도 울려오는 내 고향의 그 대답

고향과 나

비물에 밟고랑 하나 꺼져나가도
가슴쓰리고 아파라
내 살점 떨어져나가는듯

봄이 오면
내 마음에 먼저 고향의 꽃이 피고
푸른 잎 설레이는 산천을 바라보면
백발의 내 머리에도
푸르청청 젊음에 훔날리어라

어린시절부터 귀에 익은 기계소리는
조국을 받드는 내 고향의 숨결
나날이 높아가는 그 숨결에
내 잇고 사는 한생이어

고향은 나와 하나
나의 작은 아픔도 고향은 다 알고
고향의 기쁨 나도 알아라
들에 핀 한송이 꽃도

내 마음엔 사계절 지지 않아라

누가 그 누가 감히

내 살점같은

고향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다치라

목숨도 하나

고향도 하나

백두의 냇이 숨쉬는 땅

선군의 기치따라 열정높은 산천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나의 고향

준엄한 싸움의 그날

그대를 지켜 목숨을 내댈 생은 얼마이며

《고난의 행군》길에 쓰러지면서도

그대의 숨결에 박동을 더해주며

기대결에서 웃으며 간 사람들 그 얼마던가

오, 기쁨도 슬픔도 같이 하는 나날에

고향이여

너는 정녕 내 심장에 더 깊이 새겨져

세월의 준엄한 폭풍을 쳐갈리며

장군님 옹위해 더 높이 성새로 일떠선

고향아 너는 나!

나는 너!

내 다시 탄원입대하노라

정동찬

이른 봄날의 역광장에

작별로 뒤설레는 입대날이 왔노라

가야 할 길

얼마나 험난하고 먼 길 앞에 놓여있는지

얼마나 숭엄한 조국앞에서 입대를 언약했는지

미처 알지 못하는 저 붉게 익은 얼굴들을

내 어디서 보았더나

흘러간 입대시절 그 무더운 여름날

애절한 처녀리발사의 가위밥이

내 무릎위에 툭툭 떨어지고

까까머리 모양새를 거울에 비쳐볼 때

날보고 창력에 매달려 방그레 웃던

그 못잇을 얼굴들일수도 있으리

기다리는 부모님들앞으로

분명 그날에 나의 입대증 발급되었고

나의 탄원을 받아준 조국이 너무도 고마워

달리는 열차의 창가에서

떨어지는 고향산천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더라

그날로부터 이어진 복무의 서른해를

자서전에 올린 로병이건만

내 다시금 저들속에 나란히 마음을 세워보며

입대를 청원하게 됨은

아직도 다하지 못한 입대언약 빛으로 남아있고

조국이란 의미를 다 알 그때까지

툭고 툭아야 할 나의 행군은 첫 걸음에

머물러있는듯

입대증서에 실려있는 조국의 무게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굳이 묻고 싶었노라

마주선 가슴들을 두드리며

입대를 거치고 선서를 외웠어도

만약 그 어떤 위험과 마주 서게 될 때

닥치는 시련과 간고성앞에 주저앉고

병사의 영광에 손상을 준다면

고향집벽면에 낫추 걸어놓은 입대증서

날마다 쳐다보곤 할 어머니얼굴에

그늘이 가고

그런 수치를 남기는 병사의 입대언약은

아 조국앞에서 거짓으로 될뿐

쉽게 말하지 말자 입대를 두고

입대란 그 첫걸음에서부터

병사의 한생 전 로정을 내다보며

병사의 량심 깨우기 간직해야 하는것임을

병사의 삶이 길든 짧은

신성하고 위대한 조국앞에서는

오직 입대만이 있고 제대란 없거니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부끄럼없는 그런 병사만을

조국은 더욱더 품어안고 엄숙히 보증하리라

한 국민의 영원한 탄원입대의 진실을

가을하늘

평문희

순옥은 밤깊도록 잠들수 없었다. 오늘 낮에 있던일이 마음에 웅이처럼 걸려 내려가지 않았던것이다. 반장은 어찌자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까? 자기 혼자 알고있어도 될것을...

《순옥동무만 알고있소. 여기저기 말하지 말고...》 반장이 하던 말이였다. 그 혼자만 알고있으라는 소리가 순옥을 불안케 했다.

딸 영희는 세상모르고 잠들었다. 아무 시름도 없이 단잠에 든 영희가 부러웠다.

순옥은 한숨을 내그었다. 아까 영희가 토달거리던 말이 떠올랐던것이다.

《어머니, 탈곡장관리원일은 뭇하러 말아가지고 사람들한테서 <북데기깅쟁이>라는 말을 듣는가요?》

돼지우리에 넣을 깃을 한임씩 이고 가는걸 보고 벼알을 깨끗이 뽑아낸 다음 가져가라고 도로 내려놓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 모양이였다.

부지중 낮에 있던 일이 또다시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오늘 낮에 순옥이네 작업반에서는 벼탈곡을 전부 끝내였다. 예상수확고보다 탈곡한 수량이 더 나와서 모두가 싱글벉글 웃는 얼굴이였다.

가을날씨가 유난히 좋아 벼 천알무게가 레년보다 훨씬 높아져서 그렇다느니, 순옥이가 탈곡장관리를 잘해준 덕이라느니 하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부반장은 품종별로 수확고를 분석해보더니 새 품종이 예상보다 정당 이삼백키로그램씩 더 나왔다고 떠들었다.

《그대신 예상보다 떨어진데도 적지 않소.》

반장이 핀잔주듯 통명스레 하는 말이였다.

지레 기뻐할진 못된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성과보다 결함에 눈을 돌리라는 소리인지 알수 없어 부반장은 눈만 껌벅거렸다. 군대에서 제대되어 군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부반장으로 임명된후 첫째 농사를 지도하느라 눈코 뜰새없이 돌아친 그였다. 봄내 여름내 땀흘린 결과 마련된 이수자들이 그에겐 첫 사업성자로 되는것이였다. 새 품종은 그가 시험재배한 품종이였다.

순옥은 민망스러운 눈길로 부반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 남편이 졸업시킨 첫 제자들중의 한사람이였던것이다. 꼭 자기가 무안을 당한것같은 심정이였다.

순옥은 반장과 함께 가마니에 종자를 넣어 포

장하였다. 그리고는 창고에 들어쌓았다.

이제 겨울을 나고 3월에야 종자처리를 할것인지라 습기를 받지 않도록 바닥에는 각자들을 깔았다.

종자를 넣은 창고에 오이손이며 후리채, 박막 통구리따위를 꾸역꾸역 쓸어넣었다.

오후에 량곡수매원이 수확고측정을 하러 작업반에 나왔다. 그는 벼알의 수분을 측정하고 수량을 계산하였다.

반장도 전자수산기를 꺼내들고 수자들을 놀렸다. 《그러니까 이제 탈곡장잔고는 분배식량, 유치원원아용 흰쌀을 내놓고 다섯톤이 남았겠군요. 그렇지요? 반장동무.》

수매원이 묻는 말에 반장이 머리를 끄덕였다.

《탈곡장관리원과도 수자대조를 합시다.》

순옥은 수첩을 펴들고 수매원옆으로 다가갔다.

수매원이 부르는 수자와 자기 수첩에 적힌것을 맞춰보던 순옥은 수량이 차이나서 눈길을 들었다. 수매원의 수자보다 자기의 수자가 두가마니 더 많았던것이다.

수매원이 수자를 헛갈리던가 반장이 가마니수자를 잘못 생각했든가 무슨 착오가 생긴듯 했다.

《저... 수매원동무!》

순옥이 머뭇거리며 사연을 말하려는데 반장이 알릴듯말듯 머리짓을 했다. 가만 있으라는 신호였다. 순옥은 공연히 가슴이 활랑거렸다.

《마당장아주머니, 왜 그러니까?》

수매원이 안경끈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햇빛이 부서지는 그 안경유리가 순옥에겐 엄청나게 큰 눈자위처럼 가슴을 섬찍하게 했다.

《한가위때 1분조 벼를 찢어다 분배했는데 그 수자가 빠지지 않았는가 해서...》

순옥은 다른것을 묻고 말았다.

《참, 그 800키로그램을 빼놓을번 했수다레.》

반장이 하마트면 잊을번 했다는 투로 하는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순옥을 향해 한쪽눈을 찌긔해보였다. 정황처리를 잘했다는 소리같았다.

《반장동무는 빼놓을수 있겠는지 몰라도 이 아주머니는 한키로그램도 빼놓지 않는단 말이요. 내 이제 농군맹위원장한테 말해서 아주머니의 모범과 경험을 꼭 소개할 작정이요. 거 공훈마당장 칭호는 없는가?》

수매원은 미더운 눈길로 순옥을 바라보았다.

순옥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총수확고를 계산하고 수매전표를 대조한뒤 수매원이 동쪽길로 멀어져가자 반장은 순옥에게 다가왔다.

등어리가 반드르르한 새끼돼지들이 순옥이 금방 손질하던 북데기무지에 모여들어 주둥이로 헤집기 시작하였다. 순옥은 그놈들을 쫓아보내고나서 벼알이 드문드문 섞인 북데기를 찬찬히 쓸어모았다.

《순옥아 주머니만 알고있소. 창고에 두가마니 더 넣은것 말이요. 모내기때 지원자들이 나오면 쓰자고 하오. 여기저기 말하지 마오. 여럿이 알면 재미없으니까.》

순옥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얼마후 반장의 말이 가지는 의미를 깨닫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그 두가마니를 몰래 감추려고 창고에다 온갖 자질구레한 영농자재들을 쓸어넣은 모양이구나 하고 비로소 그제서야 깨달았다.

탈곡장관리원을 여러해째 해오는 순옥이었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었다. 마당관리원은 별관의 곡식을 꺼들이기 시작한 첫날에 임명되어 탈곡장의 곡식이 다 처리되면 해임되는 임시적인 직무이다.

탈곡장이라는 커다란 로천창고의 창고장이나 다름없는 탈곡장관리원은 아주 책임성이 높아야 한다. 연방 실어들이는 벼단들을 분조별로 갈라 쌓아 비가 새지 않도록 보살펴야 하고 강냉이무지들에서 더운김이 나지 않는가. 콩이나 메밀, 수수같은 소수곡종들의 난가리에 곱새를 제대로 해 썩었는가. 일일이 감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뿐아니라 교대별 탈곡수량, 분조별 출고수량, 분배수량, 벼통구리마다 넣은 수량... 이런것들을 환히 꿰들고 탈곡장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천성이 고지식하고 마음이 깨끗한 순옥은 여름 한철 내내 메고 다니던 토끼풀바구니도 가을철에는 절대로 메고 다니는 법이 없었다.

짚이고 강냉이속이고 북데기고 마당안의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손을 대지 않았거니와 남도 마음대로 내가지 못하게 했다.

회계실의 출고전표가 없이는 짚 한단도 거저 주는 법을 몰랐다. 20여년간 반장사업을 해온 채 정기령감은 마늘밭에 덮을 북데기 한달구지도 전표를 떼다 바치고야 실어갔었다. 그런 반장한테서 배우고 그 반장한테 습관되었던 순옥이었다.

해마다 가을만 되면 의례히 순옥이가 탈곡장관

리원이 되는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데 새로 된 반장 명두범은 좀 달랐다.

순옥의 성미와 생활신조에 맞지 않는 일들이 종종 그를 괴롭히었다.

가령 그 누가 손달구지에 벼짚을 싣고 나가는것을 보고 벼이삭이 있는가 검사하려들면 대뜸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반장한테 승인받았소.》

그 어조속에는 《제가 뭐 반장인가?》하는 속대사가 느껴지였다. 그러면 순옥은 저도모르게 주눅이 들어 《그래요? 그럼...》하고 통가시켜버리는것이였다.

대용연료로 써야 할 강냉이속을 대사집 지짐불을 놓겠다고 손달구지로 실어가는것도 요새는 레상사가 되였다. 그도 반장이 승인했다고 했다.

두범이 반장이 되자부터 체계정연하던 마당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한것이였다.

순옥은 자기가 날이 갈수록 우유부단해지고 멧고 끊는데가 없어진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날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자 순옥은 모든 일을 원칙 하나로는 대할수 없다는것을 느꼈다.

어느날 젊은 녀석들이 콩난가리에 슬그머니 손을대여 콩청대를 해먹는것을 보고 순옥이 성이 나서 달려가려는데 반장은 이런 말로 그를 만류하였다.

《그런 재미도 없이야 힘든 농사일을 어떻게 하겠소? 논두렁콩이야 수매하는것도 아닌데... 지내 야박스레 그러지 마오.》

순옥은 반장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한결음 두결음 양보하였다.

더군다나 자기가 통제해야 할 대상들은 너무나 잘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랜 친지들, 가까운 이웃들, 시킨 친척들, 남편의 제자들...

규정과 원칙 하나로 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할수는 없는것이였다.

오늘 일만 해도 그렇다. 반장이 자기 배를 불리자는것도 아니고 지원자들을 위하여 저축하는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까밝혀 나쁘다고 하겠는가?

순옥은 저도모르게 또 한숨을 내쉬였다.

생각할수록 자기가 마당관리를 공연히 맡았다는 후회가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일이 바로 되려면 두범이 반장으로 오자마자 결심을 했어야 했다. 자기는 두범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지 않았던가?

새로 된 반장 명두범은 순옥이와 처녀총각때 한분조에서 일했었다. 어느 때인가는 두집사이

혼사말까지 오고 갔었다. 누구마파나 《살변. 말변》한 사이였던것이다.

거의 다 된것같던 혼사가 된것이 누구의탓인지 딱히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사연은 오직 본인들만이 알고있는 비밀이었다.

사실 순옥은 아까 반장에게 그 두가마니를 내놓자고 말하려 했었다. 그런데 문득 옛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두가마니, 그 수자가 갈구리처럼 그의 가슴속을 허비였다. 운명처럼 자기들을 따라다니는 그 두가마니... 30년전 그날에도 두가마니의 벼때문에 인생의 쓰거운 고배를 마신 자기들이었다.

...그때, 순옥은 두범이네 분조원이었고 두범은 순옥이네 분조장이었다.

학교때 동창생으로서 그들의 우정은 각별한 것이었다. 모내기철이면 논물을 잡으려 밤새워가며 같이 관개수로로 오르내렸다. 달이 둥둥 떠내려오는 물길을 따라걸으며 고향의 노래를 부를 때면 소란스레 떠들던 개구리들도 숨을 죽이곤 했다.

아득히 높은 벼날가리우에서 문득 떠오른 시구절을 읊던 가을날,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노란 조롱배를 절반 쪼개여 노나먹을 때, 하늘은 왜 그리도 맑고 마음은 왜 그리도 즐거웠는지? 마주보는 서로의 눈동자에서 넘쳐날듯 출렁이는 말들은 썸물같이 깨끗했었다.

사랑이라고까지는 할수 없었지만 다정하고 순결하고 따스한 감정이 그들사이에 아름다운 선물처럼 흘렀었다.

이무렵, 뜻밖의 일이 둘사이에 흐르던 그 노래를 토막내버렸다.

두범이 알곡수확고에서 농장적으로 1등을 하고 농민휴양을 떠난 다음 두범이네 분조원들은 된줄경을 치르었다. 두범이 실지 수확고보다 두가마니 불구어 보고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다. 수확고에 해당하는 수매수자를 보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이미 차례진 두범의 명예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가리될 판이었다.

순옥이네들은 먼지를 뽀얗게 들쓰며 북데기탈곡을 세번씩이나 다시 했고 짚단속에 섞여나간 벼이삭을 갈피갈피 뒤져냈다. 했어도 그 두가마니를 채울수 없었다.

두범이가 떠난후 대리분조장을 맡았던 순옥은 모자라는 량을 자기 분배몫에서 떼어내여 보충했었다. 순옥의 어머니는 벼자루를 이고나가는 딸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았으나 두범의 사람됨을 두고는 근심겹게 한마디 했다.

《원, 빈달구지처럼 소리만 큰 녀석이 아닌지 모르겠다.》

순옥은 두범이가 그 일이 걱정되어 휴양생활을 마음놓고 못할가보아 《알곡수매완료》라는 전보까지 쳐주었었다.

그러나 보름후에 휴양에서 돌아온 두범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천연스러운 얼굴로 《래년엔 군적으로 1등을 해서 농업대회에 가야겠다.》고 흰소리를 치는것을 보고는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때부터 순옥은 두범을 뒤통수대하였다. 두범이 역시 그러는 순옥에게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애정으로 다가가던 그들의 우정은 서로 다른 가치에 제나름의 꽃을 피우는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세월이 켜 흐른 다음에야 두범은 자기의 휴양기간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다. 두범은 순옥을 찾아와 허심하게 자기를 뉘우쳤다.

명예에 도취되어 한 처녀의 진정을 모욕하고 인간의 참된명예를 더럽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했었다.

그후부터 두범은 《일 잘하는 분조장》으로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반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늘어난 두가마니가 아니라 줄어든 두가마니때문에 두범이와 자기가 천평의 량쪽끝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전에는 불어난 두가마니를 모두가 알고있었지만 오늘은 자기와 반장 두사람만이 알고있는 두가마니였다.

어제날 두범이가 허위보고한 두가마니속에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홀륭한 존재로 보이고싶어하는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

순옥은 바로 그 공명심이 싫었고 남이 수고한 대가로 자기값을 올리려는 두범을 경멸했던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두가마니에는 명예에 대한 갈망대신 고난과 시련앞에 무력해진 두범의 나약성이 비껴있었고 집단로동의 결과를 제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철면피성에 가까운 그 무엇이 깔려있는 것이었다.

순옥은 그것을 너무나 잘알고있으면서도 속수무책인 자기에게 화가 났다.

《4반 북데기깅쟁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자기가 반장과 함께 두가마니의 벼를 감추었다는것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것인가?

《자기 몫을 챙기려고 그렇게 극성이었던걸...》 할게 아닌가?

군대에 나간 아들 경식이는 자기에게 《깅쟁이》

청호는 어머니의 금지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금지마저 사라져가고있었다. 순옥은 래일 아침 반장을 찾아가 마당관리를 탄 사람에게 인계하게 해달라고 제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면 모든 근심에서 해방될것이였다. 그 래도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마치 그 두가마니의 무게가 온몸우에 통채로 실린듯 했다.

×

땡땡... 시계가 석점을 쳤다. 벌써 밤 3시다.

아니, 새벽이 가까와왔다. 독방속에 든것같은 고독함과 지겨운 생각을 하면 이제야 3시라는 말이 적중하였고 한초한초 다가오는 시간이 벌써 3시였다.

이제 반장앞에 나서서 마당관리원 일을 못하겠다고 말해야 할 그 순간이 순옥에게 최후의 시각처럼 두려웠던것이다. 모든것을 강건너 볼보듯 하려는 자기자신이 혐오스러웠고 그렇다고 하여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킬수도 없는 자기가 얼마나 가련하게 생각되는지 몰랐다.

문득 밖에서 대문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순옥동무!》

귀에 익은 반장의 부름소리였다.

순옥은 벌떡 일어나 전등을 켜려했으나 불시에 방향감각을 잃었다. 스위치가 있을 바람벽이 어디였던지 도무지 가늠할수가 없어 한참이나 어루더듬었다. 한가지생각에 골똘한탓에 착각이 온 모양이였다.

전등을 켜고 밖에 나가니 서너사람이 어둠속에서 있는것이 보였다.

《순옥동무, ... 귀한 손님들이 왔수다.》

반장은 청높은 목소리로 발전소건설장에서 식량접수를 온 손님들인데 순옥이네 집 신세를 저야겠다고 설명하였다.

음식솜씨가 남다른 순옥에게 작업반에 온 손님들을 치르는것이 통례로 되였고 순옥이 역시 그것에 공지를 느껴오던바였으나 오늘 밤에는 썩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내색없이 그들을 흔연히 맞아들였다.

《잠드신걸 깨워서 미안합니다. 반선전실에서 눈을 잠깐 붙이면 된다는데도 반장동무가 굳이 이리로 데리고 오누만요.》

《별 말씀을 다... 먼데서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어서 들어가십시다.》

순옥은 그들을 집안으로 안내했다.

순옥은 그들의 모자와 옷저고리를 벗기다싶이 하여 옷장보를 제끼고 옷걸개에 걸었다.

그 서술에 안에 걸려있는 두벌의 학생복과 모

자가 눈에 띄었다.

《아드님들 교복입니까? 군대에 보낸 아들이 둘이구만요. 옳지요?》

젊은 사람이 물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제격 알아 맞추나요?》

순옥이 어쭙게 웃으며 묻는 소리에 그 사람은 활달하게 대꾸했다.

《우리 어머니도 내가 제대되어올 때까지 내내 대학생복을 한자리에 걸어놓으셨더군요. ... 참, 어머니들의 심정이란...》

《우리 어머니 오빠들이 보고싶으면 저 교복냄새를 맡아본답니다.》

어느새 깨어나났은 영희가 철없이 말참네를 했다. 순옥은 민망스러워서 가만히 눈을 흘겼다.

남들처럼 나라에 바친 아들로 생각하고 대법하게 살대신 날마다 벗어놓고 간 옷가지나 만져보면서 그리운 생각만 하고있다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변변치 못하게 여길것인가?

《세대주는 어데 갔습니까?》

나이지속한 사람이 물었다. 《학생아이들을 데리고 답사를 갔답니다.》

순옥의 대답을 듣자 그 사람은 머리를 끄덕였다.

《아들한테 그 소식이랑 편지로 알려주십시오. 우리 발전소건설장에서도 군대들이 큰 몫을 맡아 제일 어려운 모퉁이를 뚫고 나가고있지요. 세상에 농사군이 제일 수고한다, 탄부일이 제일 힘들다, 건설자들이 제일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군대들에 비기지 못하지요. 우리야 그래도 제 집에서 자고 더운 음식을 먹지만 비오는 날, 바람부는 날 할것없이 군대들은 명령관철에 투신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전투를 벌린답니다. 발전소, 유원지, 고속도로 할것없이 다 군대들의 어깨로 일떠세웠지요.》

《이제 아드님들이 큰 공을 세울겁니다. 들다 푹푹하게 생겼구만요.》

젊은 사람이 벽에 걸린 사진액틀을 들여다보며 하는 소리에 순옥은 눈물이 핑 돌았다.

별치 않은 청찬에도 아들과 관련된것이면 괜히 눈물이 헤퍼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순옥은 그들에게 자리를 보아주고나서 부엌으로 나왔다.

《이 사람들 식사는 영희한테 맡기고 인차 뒤따라 나오시오. 벼를 가마니에 넣어야 아침 첫시간에 떠날테니까. 나오는 길에 포장새끼를 있는데로 다 가지고 나오우.》

반장은 말을 마치자 급히 돌아서서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순옥은 마음이 급해났다. 일손을 다그쳐야 했다. 순옥은 닭우리에 들어가 커다란 수닭을 안고 나왔다.

《아니, 어머니! 종자수닭을 잡으려고 그래요? 반장이 시켰어요?》

부엌에 있던 영희가 눈이 동그래서 놀란 소리를 질렀다. 순옥은 얼른 손가락을 세워 입가에 가져다댔다. 떠들지 말라는 신호에 영희는 입을 다물었으나 무엇이 안심치 않은지 미간을 찌지 못했다.

순옥은 영희와 함께 마주앉아 닭의 털을 뽑았다. 탁, 탁, 불씨를 튕기며 아궁이에서는 창작이 타고 있었다.

《어머니, 작업반엔 이렇게 큰 수닭이 없어요.》

영희가 속삭이는 어조로 하는 소리였다.

《못쓴다. 오빠네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예? 우리 오빠들 있는데서 왔대요?》

영희는 의아쩍은 눈빛으로 순옥을 마주보았다.

순옥은 정말 이 사람들이 남같지 않았다. 자식을 내놓은 어머니의 심정을 속속들이 헤아려주어서만이 아니었다. 자기아들 경식이포래 군대들과 함께 발전소를 세우면서 군인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매일매시각 보고있다는 이 사람들이 꼭 자기 자식들한테서 온것같이 여겨지는것이였다.

이제 우리 애들도 꼭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올거라고 했지.

《어머니, 약속하지요. 난 꼭 영웅이 되겠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영웅이 되세요.》

군대에 나가면서 경식은 그렇게 말했다.

《영웅이 뉘집에 이름인줄 아니? 영웅은 고사하구 웅근 하나구실하는 사람되기도 힘들단다.》

《어쨌든 난 훌륭한 아들이 되겠어요. 그건 믿지요?》

《그래, 믿는다. 나도 훌륭한 어머니가 돼야 할텐데...》

《어머니야 지금도 훌륭한걸요. 그럼 자, 약속!》
경식의 가느다란 새끼손가락이 순옥의 굵고 마디진 손가락을 찾아 갈구리처럼 걸렸다.

그 손가락으로 수표와 도장을 대신하는 엄숙한 언약이 모자간에 맺어졌다.

아마 경식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려 애쓰고 있을테지. 그런데 나는 어미라는게...

어쩐지 자식밖에 뭣뭣치 못한 자기라는 생각이 그어떤 죄의식처럼 슬그머니 마음구석에 기여들었다.

순옥은 옆가마에 강냉이를 닭었다. 강냉이가 노릿노릿해지며 딱딱소리를 낼 때 셋노란 햇콩을

쏟아두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날 때 보낼 심산이였다.

경식이도 이런것을 무척 즐기였다. 그 애도 누군가가 보내주는 닭은 강냉이를 먹겠지 하고 생각하니 저절로 입귀가 벌어졌다. 자기처럼 자식을 내놓은 어머니들이 어데선가 경식을 친아들처럼 보살펴주고있을것이다. 자기가 이들을 생각하듯이...

순옥은 영희에게 해야 할바를 세세히 가르쳐주고 집을 나섰다.

미명속에서 닭우는 소리들이 아침을 부르고있었다. 물에서 건져낸듯 축축하고 깨끗한 대기가 태양을 기다리고있었다.

간밤의 어둠속에서 숨을 죽였던 못생명들이 활기를 띠고 새날을 맞이하는 냄새를 온몸으로 느끼며 순옥은 마을길로 걸어갔다.

×

탈곡장에는 벌써 여러명이 나와있었다.

순옥은 벼통가리속에 들어가 가마니에 벼를 퍼담았다. 벼질으로 엮여 빙 둘러친 통가리안에서 벼가마니들이 연방 밖으로 나갔다.

장정들이 그것들을 받아 저울옆으로 날라갔다.

반장은 매 가마니무게를 맞추느라고 쇠바가지를 들고 저울앞에 서서 벼를 퍼내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했다. 포장이 다 된것들은 메여날라다 차곡차곡 쌓았다.

순옥은 벼를 퍼담으며 생각했다. 이것들이 하얀 쌀밥이 되어 발전소건설자들의 힘을 돋구어줄 것이고 그들은 그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할것이다.

군대한테 가면 군량미가 되고 야영소에 가면 아이들의 노래가 되는 쌀, 1년 365일 늘 밥상에 마주 앉으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쌀의 의미가 새삼스레 정으로 쏘아박듯 가슴속에 새겨지였다.

쌀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고난의 행군》이 더욱 간고했으며 아직까지도 그 쌀때문에 온 나라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있음을 순옥은 잘 알고 있었다.

두범반장이 수확고를 허위보고하던 그 시절에는 나라의 쌀독이 넘쳐났었다. 마치 부모네 집의 풍성한 고간을 등대고 뿜내는 자식마냥 두범은 두가마니를 더 보태였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식량공급을 하지 못하는 오늘에는 오히려 돌아앉아 탄보따리를 꾸지고 있는것이였다. 순옥은 슬며시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알곡생산계획은 몇해째 미달하고있는 자기들이였다.

순옥은 허리를 펴고 벼 통가리잡으로 반장을 내다보았다.

반장은 벼가마니를 헹헹 들어서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맞춘 다음 또 헹하니 들어 내려놓는다.

빙 둘러막힌 통가리안에서 은연중 굳혔던 결심이 반장의 모습을 보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순옥의 눈길은 종자창고쪽을 더듬었다. 거기에 있는 두가마니의 벼가 또 불안을 안아왔다.

순옥은 어차피 그 두가마니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것을 예감하였다.

그 순간이 두려워 이 일을 그만두려던 자기였지만 그런 이유때문에 그만둔다는것이 랑심에 걸리는것이였다.

용기를 내어 반장을 설복해볼가 하고도 생각했으나 일년사시절 발바닥이 닳게 뛰여다니던 모습을 상기하자 곧 자신을 잃고 말았다.

올해에도 지원자들의 밥그릇이 높지 못하다고 속이 얼얼해서 담배만 태우던 두범이다.

봄명절날에도 꾸밈히 차려놓고 출판을 벌렸으면 더 좋았을걸 하고 후회하던 반장이다.

그러니 다음해에 쓰겠다고 건사한 그 두가마니에 대해 어떻게 탓할수 있겠는가!

순옥의 결심은 어느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해버렸는지 종적이 없어지고 말았다.

어느새 가마니에 넣은 벼가 성벽처럼 쌓였다.

《반장동지! 새벽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게다가 닭까지 잡아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발전소사람들이 나와 두범의 손을 잡고 인사를 했다. 순옥이 시킨대로 영희가 반장이 보내준 닭이라고 한 모양이였다.

두범은 처음에 떠름했다가 영문을 깨닫고 순옥이한테 미더운 눈길을 보냈다.

그들은 순옥에게도 진정어린 사의를 표했다.

《양말까지 다 빨아놓았더군요. 고향집어머니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순옥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 인사를 받았다.

《자! 이젠 실읍시다!》

반장이 첫 가마니를 번쩍 들어 어깨에 메며 소리쳤다.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벼가마니를 싣기 시작했다.

순옥은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저울을 치우는것을 도와주려다가 문득 굳어졌다. 날이 활짝 밝아지자 저울눈금에 눈길이 갔던것이다. 가마니무게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뜯것 같았다.

(반장이 혹시 착각한것이 아닌지...)

순간 여러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만일 발전소건설자들에게 한키로그램이라도 적게 공급된다면...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려났다.

농장에서 그렇게 받아왔다고 하면 같이 일하는

군대들이 뭐라고 할것인가? 후에 경식이가 안다면 이 어머니를 얼마나 원망하겠는가? 그 순간 순옥은 통계원과 저울을 맞드는 반장에게 다가갔다.

《반장동무, 저울눈을 보세요. 가마니무게를 놓지 않고 달군것 같아요.》

저울눈을 다시 보던 반장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그럴수 없는데. 통계원이 가마니무게 두키로 오백을 필경 밀어놓았는데...》

그러자 통계원이 옆에서 응수했다.

《눈금대가 상할가봐 내가 이자 밀어놨수다.》

그제야 반장의 굳어졌던 안색이 풀리였다.

《아, 어련할려구요. 자 제걱 실읍시다.》

옆에 와있던 운전사가 하는 소리였다.

순옥은 얼굴을 붉혔다. 반장보기가 무안했다. 그 눈치를 챘는지 반장도 너그럽게 한마디 했다.

《날이 채 밝지 않았을 때이니 미처 가려보지 못할수 있지요.》

히죽이 웃는 그의 눈빛은 예없이 밝았다. 그 밝은 웃음이 순옥의 가슴에 바늘처럼 박혔다.

자동차가 떠나려 할 때였다.

동쪽길로 영희가 총알같이 뛰어나오며 웨쳤다.

《운전사아저씨! 이걸 가지고 가세요!》

숨이 턱에 닿아 뛰여온 영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얀 자루에 넣은것을 내밀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닭은 강녕이에요.》

영겁결에 영희가 내미는것을 받아든 운전사는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이걸 왜?》

《우리 어머니가 보내는거예요.》

순옥은 영희의 손을 나꾸어채며 낮은 소리로 딸을 나무랐다.

《넌 무슨 소동이냐?》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순옥의 두손을 뜨겁게 잡았다. 자동차는 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해가 솟아오르는 동녘을 향해 달려갔다.

순옥은 통가리가 서있던 자리에 널린 벼알들을 꼼꼼히 쓸어내고 키를 가져다 깨끗이 까불었다. 너저분해졌던 탈곡장을 안방처럼 새말갯게 거두어놓고서야 아침밥을 먹으려갔다.

반장은 노상 시무룩한 얼굴이였다.

순옥이 아침을 치르고 나와 복데기를 손질하는데 반장이 다가왔다. 순옥은 반장을 마주보기가 무엇해서 눈길을 떨어뜨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오늘 새벽에 참 수고했소. 이따가 닭관리공보

고 큰 닭을 한마리 달래서 가지고 가오. 영희네 닭만큼 큰 닭이 없으면 좀 작은거루 두어마리 달라고 하오. 나도 말은 했소.》

순옥은 어리둥절해서 반장을 쳐다보다가 말뜻을 깨닫자 눈을 내리깔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싫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경식이한테 죄가 될것 같아서...》

순옥의 말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럼 내가 미안하지 않소. 인사는 내가 받았는데... 반에서 치르어야 할 손님시중을 영희네한테만 부담시킬수야 없지요.》

《은, 별소리 다 해요.》

순옥은 반장이 친절하게 나올수록 더욱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졌다.

《저... 아까는 미안했어요. 전... 반장동무를 의심했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반장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다.

《뭐 미안하기까지야... 평소에 내가 그렇게 보인적이겠지요. 의심하는 사람보다 의심받게 행동한 사람한테 문제가 있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움이 실려있었다.

순옥은 더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반장사업을 새로 맡아가지고 힘에 부쳐 뛰어다니는 그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내 힘자라는것 반장사업을 뒤받침해주고 작업반 세간살이를 보태주자!

순옥은 탈곡장안에 《산줄기》를 이루고 솟아있는 북데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다짐했다.

저것만 다시 추어내도 벼알이 퍼그나 나올것이다. 언젠가 북데기 한달구지를 실을 때 보니 벼알이 한웅큼나마 나왔었다.

순옥은 《마당농사》를 잘하여 반장을 도와주리라 마음먹었다.

×

순옥은 앞목벼를 선풍하고 있었다. 앞목벼란 탈곡한 벼를 선풍할 때 바람에 불려나간 앞부분에 쌓인 벼를 말한다.

뒤목에는 잘 여문 알들이 쌓이고 앞목에는 가볍고 여물지 못한것들이 날려가 쌓이는것이다.

쭉정이에서 골라낸 웅근 벼알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순옥에겐 무척 대견하였다.

따로 갈라낸 쭉정이를 보며 순옥은 자연히 생각이 깊어졌다.

그것들도 모두 제대로 여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은 씨앗에서 싹터나 해빛도 거름도 물도 다 같이 먹으며 자랐는데 어째서 쭉정이가 되었을까? 벼씨가 땅에서 싹터나 알로 잉글 때까지

를 벼의 일생이라고 하는데 저것들은 일생을 쭉정이로 마치고 마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왜 그런지 서글퍼졌다.

그리고보면 사람이나 식물이나 사는 섭리는 다 같은 모양이다. 경식은 자기더러 훌륭한 어머니가 되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될수 없는 자기가 돌이켜진것이였다.

텔레비죤에서 노래부르는 아름다운 녀가수, 가슴에 훈장과 메달이 주렁주렁한 녀성관리위원장, 청춘을 바쳐 과학탐구에서 이름을 떨친 과학자, 하다못해 자기네 작업반의 처녀분조장만큼이라도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야 할텐데 자기는 《북데기깅쟁이》로 밖에 통하지 않으니 저 쭉정이와 다르게 뭔가?

순옥은 가만히 한숨을 짓고나서 북데기를 추어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담배씨로 뒹뒹박을 파는것만치나 자리가 나지 않는 일이었다. 한달구지도 넘게 북데기를 추었는데 모아놓은 벼알은 한줌이 될가말가했다. 그 많은것을 혼자서 다 선별하자면 한달도 넘게 씨름해야 할것 같았다.

순옥은 점심시간에도 그 일을 계속했다. 순옥이가 들어오지 않자 영희가 점심을 가지고 나왔다. 삶은 고구마와 김치를 달게 먹는데 영희는 순옥의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산더미같이 추려놓은 북초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벼알무지를 본것이였다.

《이건 쥐구멍을 막겠다고 대들보 들여미는 격이군요.》 영희가 하는 소리였다.

《쥐? 대들보를 틀어막아서라도 쥐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지 뭐.》

《이제 반장이 오면 전체 작업반이 달라붙게 해달라고 제기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다 고르겠는데...》

영희가 하는 말에 순옥은 도리를 저었다.

《나야 마당관리원인데 이런것도 안하고 뭘하겠니?》

《엄만 아마 절구공이로 바늘도 만들어낼거야.》

《그러면 쇠가 다 닳아없어지지 않니? 바늘을 모아 절구공이를 만든다면 몰라도...》

순옥의 대답에 영희는 《어마나-》하고 웃어댔다.

《역시 어머니 깅쟁이야.》

순옥은 웃었다.

《어머니, 사람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우리 작업반 탈곡장에만 들어오면 수확고가 높아진대요. 울가울에도 예상보다 실수확고가 더 올라갔는데 그제 모두 어머니공로라는거예요.》

영희가 순옥의 목을 껴안으며 자랑스럽게 뇌이는 말이였다. 그 말에 순옥은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원 무슨 똥판지같은 소릴…》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기쁨의 샘이 솟구쳤다.

다음날 아침, 순옥은 여느날보다 좀 늦어서 출근길에 올랐다. 어미돼지가 새끼를 낳는 바람에 지체되었던것이다.

작업반이 바라다보이는 둔덕에 이른 순옥은 탈곡장에 눈길을 주었다가 닝큼 놀랐다.

북데기더미에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던것이다. 소석회를 실은 트럭포르가 한열에 서있는것으로 보아 함께 떠났던 반장도 돌아온 모양이였다. 순옥은 발걸음을 다그쳤다.

탈곡장에 다달은 순옥은 뜻밖의 사태에 아연해졌다. 사람들이 모두 들어붙어 북데기에다 진거름을 들붓고 소석회를 뿌리며 결이대질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속성 퇴비를 만드느것이였다.

《안돼요!》

순옥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웨쳤다. 분조별로 북데기를 날라가던 녀인들이 들것채를 땅에 놓고 눈이 둥그래서 순옥을 바라보았다.

여직껏 순옥의 그런 태도를 본적이 없었던것이다. 그저 조용하고 차분하고 소털뿔아 제구멍에 꽃을만큼 예누리없는 순옥이에게 습관되었던 그들로서는 놀랄만도 한 일이였다.

《여기에 낱알이 있는데 이런 법이 어데 있어요? 도대체 랑심들이 있나말이예요?》

순옥은 격해서 부르짖었다.

《반장이 시키길래 …우린 또 다 골라낸줄 알았지. 하여튼 반장도 한심하다니까.》

누군가 반장을 나무랐다.

(반장이?)

불쑥 노여움이 끓어올랐다. 매일과 같이 북데기더미에 나와 살다싶이 하는걸 보면서도 한알이라도더 끌어모으려 아득바득 하는것을 그렇게도 모른단말인가.

그러나 다음순간, 사람들앞에서 반장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마음속 목소리가 울렸다.

《그렇게 아니예요. 내가 오늘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거예요. 반장은 아마 내가 낱알을 다 골라낸줄만 알고 속성퇴비를 만들라고 했을거예요. 날보고 북데기속에 한알의 벼알도 섞이지 않게 하라고 얼마나 다짐을 두었게 망탕 지시를 했겠나요.》

속성퇴비생산은 곧 중지되고 저저마다 벼알선별작업에 달라붙었다.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반장이 아무려면 벼알

을 두엄더미에 썩이자고 했을가?》

나이든 녀인이 하는 말에 모두들 공감했다.

순옥은 반장을 찾아 관리위원회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논두렁이고 풀덤불이고 가림없이 걸치고 어푸러지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문득 앞에서 반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딜 그렇게 급히 가요? 무슨 일이 생겼소?》

순옥은 머리를 들었다. 물이 바랜 작업복, 그췌한 체격, 부리부리한 눈동자와 호인형의 얼굴, 그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어렸다.

《무슨 일이요?》

반장이 채차 물었다. 순옥은 그만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참지 못하고 주르르 흘려버렸다.

《벼알을 마구 …짓밟고 퇴비속에다…모두 쓸어넣으면…난…어떻게 해요?…그 두가마니는…글쎄…어쩌면 그렇게 모질어요? 한알이라도 더 찾아서 보태면 뭐가 나빠요?》

순옥은 숨이 차서 겨우 말을 번지였다.

반장은 아무 말도 없었다. 한참후에야 먼저 걸음을 내짚으며 순옥을 향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갑시다. 순옥동무.》

순옥은 반장을 따라 걸어갔다. 그림자들이 우줄우줄 두사람의 발치에 묻어갔다.

《내가 또 순옥동무를 고생시켰구만. 그전에는 불어난 두가마니때문에 고생시켰는데 이번엔 또 반대로 줄어든 두가마니때문에… 그러니까 순옥동무가 날 의심할만도 하지. 하긴 나도 요새 순옥동무를 보면서 생각이 깊어지오.》

반장이 앞서가며 주근주근 하는 말이였다.

순옥은 걸음을 멈추었다. 반장도 멈추어섰다.

《반장 동무, 난 사실 마당관리를 그만 두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데선가 매-하고 염소가 울었다.

《그래, 그 말을 하자고 뛰여오던 길이었소?》

한참후에 반장이 물었다. 목소리만 듣고는 다 알수 없었지만 서글픈 색조가 짙게 어려있었다.

《그렇게 아니예요. 그때도 지금도 난 반장동무를 진정으로 도와주지 못했어요. 내 진정을 모욕하고 내 수고를 몰라주는것이 섭섭해서… 용서하세요. 그래서 마당관리를 탄 사람한테 인계하려고까지 했던거예요.》

가슴속에 웅췌던 속생각을 시원히 터놓은 순옥은 마음이 개운해졌다.

《나때문에 속이 타하는걸 다 아오. 한알이라도 허실할세라 손끝이 모지라지게 일하는걸 보면서 나두 채심하게 됐소.

그 두가마니가 어디요. 그걸 얻어내겠다고 애쓰면서 ...나를 얼마나 탓했겠소. 내 늦게나마 깨달았으니 다시야 그런 일이 있겠소.》

×

이튿날, 반장은 종자창고에서 두가마니의 버를 꺼내다가 복데기속에서 골라낸 두가마니옆에 나란히 세워놓았다.

《아니, 복데기속에서 네가마니가 나왔단 말입니까?》

기술부반장이 놀라운 어조로 순옥에게 물었다.

《복데기속에서 나온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요.》 반장은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순옥은 잠자코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처럼 마당관리원이 금지스럽게 생각되어본 적은 없었다.

(난 정말 머저리였어. 마당관리를 그만두려하더니?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릴번 했으니...

참 믿어준다는건 얼마나 좋아!)

순옥은 머리를 들어 끝없이 높게 펼쳐진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때때로 흐릴적도 있고 이따금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은 가을하늘하면 언제나 맑고 푸른것으로 알고있다. 순옥은 자기도 가을하늘처럼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받고있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아들과 약속한 그 《훌륭한 어머니》가 될 자신이 생긴것이였다.

나는 포를 사랑합니다

- 《너멥호》 포 증정식에서 -

김휘조

광장을 흔들며 나아가는 나아가는
저 포를 봅니까
이 땅의 어머니 내 마음입니다
《너멥호》 포가 땅을 흔듭니다
나는 저 포를 사랑합니다

한푼두푼 쪼개고 모아 나도 바친 지성
이 나라 너성들 지성이 모여
번뜩이는 저 무쇠가 되였습니다
나는 저 포를 사랑합니다

부드러워야 할 너인의 마음이
무쇠를 사랑한다 탓하지 마세요
원쑤들 피눈이 되어 넘보는 이 땅
억세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이 땅
나는 저 포를 사랑합니다

너성은 꽃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 없이 꽃도 뵈니까
이 손이 부드러울수 있습니다
나는 저 포를 사랑합니다

미국놈들 구두발이 한치도
잔디푸른 이 땅을 밟지 못하게
이 땅에 다시 사백어머니묘가
백둘어린이묘가 없게 하기 위해

나는 저 포를 사랑합니다

미국놈들 씨종자도 없이
캄캄한 무덤속에 처박기 위해
나는 저 포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린것에게 물린 단젖이
피눈물에 마르지 않도록
나의 딸의 새별눈이
검은 구름에 흐려지지 않도록
나는 저 포를 사랑합니다

격전의 날 쿵쿵 저 포소리 울리거든
너인들이 품어온 사랑인줄 아세요
그리고 그대들결에
이 너인도 서있는줄 아세요
마음속에 언제나 군복을 입은 너인
나는 저 포를 사랑합니다

미국놈이 없어야 잘 살수 있는 이 땅
이 너인의 정깊은
노래입니다 웃음입니다 저 포는
기쁨에만 살고픈
이 너인의 목숨입니다 저 포는
나는 저 포를 사랑합니다

같은것과 다른것

-새 세대 형상문제를 두고-

김일수

《조선문학》잡지(주체92년)에 실린 단편소설 《눈보라는 후덥다》(박일명 5호)와 《한생의 밀천》(최영학 6호)의 첫 부분을 읽을 때 받은 느낌에 대한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련다.

백두산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려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단편소설 《눈보라는 후덥다》.

아마도 실화문학을 제외하고는 백두산지구건설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소설화한 첫 계열의 작품들중의 하나일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가움과 함께 은연중 기대를 실어본다.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신념을 안고 살며 투쟁하는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가 우리의 심장을 후덥게 달구어주리라...

반영된 생활무대가 새롭고 선군시대정신이 세차게 나래칠수 있는 생활바탕에 의거하고 있다는 리유에서였다.

돌격대에 탄원한 한 처녀의 일기가 소개된다. 처녀는 그가 이미전부터 알고있던 청년이 소대장으로 있는 소대에 배속된다. 그의 이름은 김석철, 탄원하기전 공장에 있을 때 《처녀들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 《별난 사람》으로 치부했던 총각, 처녀는 《그 청년만 보면 왜 그런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편 단편소설 《한생의 밀천》의 첫 느낌은 이와다른 각도에서 안겨왔다. 역시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취급한 작품이였는데 청년영웅도로건설시기를 배경으로 하고있었다.

이미 우리 문학에서 일정하게 취급된 생활세계이다. 그 과정에 단편소설 《내물은 바다로 간다》(주중선), 《불타는 노을》(강호진) 등의 인상깊은 작품들도 나왔다.

같은 대상을 취급했는데 과연 어떤 새로운 성격, 새로운 생활을 퍼냈을가. 《같은것》속의 새것을 기대할수 있을가? 얼핏 스쳐지나는 우려감...

첫 부분에 눈길을 돌린다. 먼저 읽은 《눈보라는 후덥다》는 작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감을 받았는데 이 작품은 시작하자 돌연 끝나는감이 들었다.

《따따따-》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며 발과준비신호나팔소리 가 50미터의 수직굴속으로 울려왔다.

이제 담배 한대 태울쯤이면 점화신호나팔이 울

릴것이다.

이런 장면속에서 우리 눈앞엔 밤새 50미터깊이에서 수굴작업을 하고 장약을 끝낸후 대피구역으로 나오는 금석이라는 청년의 모습이 안겨왔다. 아직은 그가 어떤 청년인지 알수 없다. 그에 앞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발과장면! 다른 작품들같으면 대개 중간부분이나 절정장면에 가져갔을 생활일텐데?!...

하지만 시작이야 어떠하든 탓할것이 없다. 절정이 먼저 오는 작품도 있을수 있는것이고 그야말로 찰나적인 한순간, 하나의 계기에 고도로 생활을 압축시켜 폭발하는 작품도 있을수 있는것이다.

서로 각이한 첫 느낌을 준 두 소설!

그러나 다 읽고나니 기대감을 주었던 소설은 실망속에 찾아들었고 어느정도 우려감의 그늘을 드리웠던 소설은 도리어 일정한 감흥을 불러왔다. 결국 다같이 오늘의 새 세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감화력에 있어서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작품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이제 그 리유를 한마디로 압축해본다. 새로운 생활령역을 반영하였으나 형상세계가 《평범한것의 답습》에 머물렀기때문에! 《같은것》속에서도 새 세대형상의 새로운 문제성과 시대적성격창조를 지향하였기때문에!

그러면 이 작품들에서 구체적으로 같은것과 다른것이 무엇인가.

같은것이 있다면!

우선 그것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반영하였다는데 있다. 백두산지구건설장과 청년영웅도로건설장 등 선군시대 청년들의 기적과 위훈, 랑만이 창조되는 거창한 생활무대가 배경으로 펼쳐진다.

다같이 새 세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혁명선렬들의 넋을 이어, 부모세대의 정신세계를 이어받아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가는 우리의 새 세대들이...

이와 함께 청년주인공들의 시대적모습을 뚜렷이 부각시킬수 있는 정황, 사건들이 설정되고있다.

백두산의 겨울과 통나무생산, 청춘과 눈보라... 도로건설의 돌파구-50만산 대발파를 위한 수

굴작업결사대, 정신육체적인 최대마력을 요구하는 수굴작업, 긴장한 발과전투...

우리는 이러한 전투적이며 결사적인 생활정황, 환경과 인물설정을 통하여 두 작품이 다같이 선군시대와 청춘의 값높은 삶이라는 문제에 해답을 주려는 긍정적인 지향과 의도에서 출발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출발점이 같거나 어슷비슷하다고 하여 결과에로 가는 과정이나 종착점이 같아지는것이 아니다. 때로 판이한 대조에로 이끌어갈수도 있는것이다. 하여 이런 물음을 던져본다. 다른것은 무엇인가?

읽는 느낌이 달랐다. 단편소설 《눈보라는 후덥다》가 어느 정도 부담감, 지루감을 주었다면 단편소설 《한생의 밀천》은 감칠맛있게 독자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감흥의 세기와 여운에서 달랐다. 전자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의 확인에서 끝났다면 후자는 《고난의 행군》시기 새 세대의 성장을 두고 깊어지는 사색과 정서적여운을 남기었다.

어찌 그뿐이라. 주인공들의 성격에 대한 공감과 구성수법의 견지에서... 그저 다르다고만 할수 없는 형상적차이점이 두 작품을 구별짓고 있었다. 보다 중요한것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대적변천과 함께 이룩된 새 세대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들을 강성대국건설의 주인공-시대의 전형으로 훌륭히 그려냈는가 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소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늘 목격할수 있는 평범한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며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전형화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두 작품의 직선적인 대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보다는 지금의 일부 새 세대형상작품들에서 1990년대 후반기의 준엄한 시련의 시대가 낳은 새 세대의 새로운 성격적특질, 정신세계를 깊이 파지 않고 그들의 사상적높이에 대한 일면적강조로 성격형상을 대치하고 있는 문제를 두고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일부 작품들에서 청년들의 투쟁과 생활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위훈의 아름다운 소행으로 가리워놓는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우리 소설문학은 마땅히 그 어떤 위훈의 높이보다도 그들의 정신적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모를 박아야 하며 인간의 내면세계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새 세대들의 정신세계에로의 침투! 우리는 바로 이것이 오늘의 새 세대형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인정한다.

오늘의 우리 새 세대들은 《고난의 행군》이전 시기의 주인공들과 다르며 그들의 생활도 그전과 같지않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새 세대 주인공과 그들의 생활은 이전과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며 구태의연한감을 주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시대의 변천과 함께 이룩된 새 세대들의 정신세계, 강성대국건설이라는 변혁적시대가 낳은 새로운 성격들을 그 생활적깊이에서 파고들지 않기때문이라는데서 찾게 된다. 단편소설 《눈보라는 후덥다》를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 소설을 보면 12월의 엄혹한 추위속에서 100m²의 통나무생산계획을 소대사체의 힘으로 기어이 수행하였다는것과 이 과정에 소대장을 오해했던 처녀가 자기를 뉘우치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러한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속에 어떤 인간문제가 있는가. 청춘시절을 빛나게 살자는것이 과연 이 작품에서 비로소 제기된 문제인가. 그리고 무엇인가 흔적이 남게 살자는 일반적인 문제제시이상 인물성격형상을 통하여 더 심화된것이 있는가....

우리는 이 순간에 이미전에 나온 일련의 작품들을 되새겨보고싶다. 장편소설 《북부철길》(허춘식), 단편소설 《청년개척자의 수기》(김관일), 텔레비죤극 《북방의 겨울》(윤광연)... 그리고 《궈도가 뻗어간 곳》을 비롯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깊이 파고든 여러편의 단편소설들...

이제 다시 읽어보아도 그 시대의 숨결과 생활화폭, 청년들의 모습이 생동하게 살아뛰고있음을 확인하게되는 소설들이다. 창작된지 10년이상 지난 그 작품들을 우리가 기억하는것은 바로 그 시대와 그 인간들과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문제성, 성격 등의 견지에서 볼때 오늘의 시대적면모가 잘 안겨오지 않는다. 문제는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벌어진 방대한 량의 통나무생산과정을 보이는데 청년들의 사상정신적지향의 강렬함, 그 강의하고 아름다운 생활과 위훈의 창조자들의 성격이 시대적높이에서 감수되지 않는것이다.

백두산지구 청년건설자들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깊이있는 체험, 차분하고 진지한 묘사력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것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선군시대 새 세대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깊은 파악과 형상적탐구의 몫이, 백두산의 겨울과 인연을 맺고 백두의 눈보라를 청춘의 벗으로 삼으며 눈보라를 후덥게 느끼는 그들의 지향세계, 감정정서세계가....

이것은 곧 작품이 돌채취나 통나무생산과 같은
외면적인 생활만을 그리는데 치우쳤다는것을 의
미한다.

혁명의 뿌리가 내린 백두산과 새 세기의 청춘!
이런 각도에서 마땅히 오늘의 시대가 특징지어
지는 새 세대의 정신적미를 그렸어야 했다.

이 소설에서 청년주인공들의 정신세계를 시대
적높이에서 웅당하게 보여주지 못한것은 단순히
작품을 인간에 대한 물리해와 그것이 풀리는 파
정으로만 엮은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작품은
순 오해에 기초하여 인간관계를 엮고 오해가 풀
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

그들, 김석철과 은옥은 청년돌격대에 나가기전
한직장에서 생활한 사이였다. 다른 사람에게 자
기에 대해 《호기심이상 물었다는것》과 학습에
줄 늦은것을 가지고 《시가슬렸다》고 해서 석철
에 대한 인상을 흐린 처녀는 《이런 불쾌한 인연》
으로 그가 자기를 《종계 불리 만무》하다고 단정
해버린다. 날이갈수록 짙어지는 고까운 생각과
오해... 소대원들모두가 《소대장은 참 좋은 사람》
이라고 하는데 어쩌서 은옥이만은 그를 이해할수
없어하는것이며 또 어쩌서 《갑자기》 그가 《생
각두 깊구 인정두 뜨겁》다는것을 뉘우치며 눈물
흘리는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애정관계의 《굴곡》과 《극성》
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 생활의 오해이기전에 생
활에 대한 작가자신의 오해이며 꾸며낸 생활이
빚어낸 후과라고 해야 할것이다. 10년전, 20년전
도 아닌 오늘에 와서 단순히 누구를 이해하고 리
해못하는 수준정도의 어설픈 애정관계, 얇은 오
해선으로 엮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과연 우리 새
세대들의 정신적높이를 어느만큼 진실하게 보여
줄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기에 과연 시대의 본질
이 체현된 생활의 진실이 있다고 할수 있는가.

애정심리 그자체도 지내 수가 낮고 뻔드름해서
읽을 맛이 전혀 없다. 새로운 인간문제가 실리
지 못한 사랑선설정, 심리를 파지 않고 설친 대
사에 의한 감정의 직선적인 처리, 목은 때를 벗
지 못한 판박이오해수법의 답습, 외궂을 타고 평
면적으로 흐르는 구성방식...

여기서 구성의 조형미, 리듬미를 기대할수 없
으며 구성의 깊이가 담보되지 못한 작품에서 형
상의 깊이 또한 보장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이 작가가 몇달전에 발표한 단편소설 《자남산
은 노래한다》에서는 시대와 생활의 진실에 발을
붙인 작가의 모습이 보여왔는데 이 소설에서는
도저히 그런 체취와 모태감을 느낄수 없는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청년영웅도로건설 수굴돌격대 작업현장에서 생

긴 불발을 해제하기 위한 투쟁이야기를 담은 단
편소설 《한생의 밀천》은 시간적길이로 볼 때 불
과 몇분동안을 집약화한것이다.

발파과정에 생긴 하나의 불발해제를 위한 헌신
적인 투쟁이 기본사건으로 되어있으나 작품은 결
코 그 과정자체에 대한 성실한 묘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무엇이 주인공 금석이의 헌신성과 결사의 각오
를 낳은 힘의 원천이였는가. 작품의 전반흐름이
이런 문제의 제시와 그에 대한 해명과정으로 되
고 있다는 점에서 벌써 새 세대들의 정신세계,
시대적모습을 보여주려는 강렬한 창작적지향을
느낄수 있다. 우리가 이 작품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불발을 제거하기 위해 한몫숨 서
슴없이 내댈 청춘의 용감성에 대한 감탄에 앞서
무엇보다도 산 인간으로서의 개성적이며 진실하
고 미더운 새 세대의 인간미에 감동되는것이 바
로 그러한 창작적지향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
다.

한생의 밀천!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어떤 재부
였는가 아니면 조국애로 불타는 새 세대의 순결
한 량심이였는가?

평범한 로동계급청년인 금석에게 제기된 문제
이자 이 작품이 새 세대형상에서 새롭게 들고 나
온 문제성이다. 주인공의 사생결단의 투쟁정신에
대한 형상도 이 문제의 해명과 련결되어있다.

사생결단의 각오와 새 세대의 량심문제-분명
여기에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현실속에서
새롭게 파악되고 선군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심화
된 인간문제, 새 세대의 정신세계에 대한 작가적
탐구가 깃들어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량심문제를 취급한 작품이라면 흔히
대조되는 두 인물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작가의
공정과 찬양으로 이야기를 끌고나가면서 문제성
을 심화시키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새 세대가 지녀야 할 신념
과 량심문제를 다름아닌 금석이자신에게 체현시
키고 그의 생활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는것을 보
라. 돌격대탄원동기며 《아버지와 사회앞에 남모
르게 지고 있는 죄의식에 쫓기며 모든 일에 앞
장》 선 그의 생활의 계기들을 아버지의 편지와
련관시켜 주인공의 자기반성과 분발 등의 심리에
굴절시키면서 시대적높이에서의 새로운 성장을
선명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은 또 어떠한가.

아버지가 한평생 현장먼지를 쓸어모아 얻어낸
금은 아들인 내 일생의 밀천으로 되여야 하지 않
겠는가...

...살아서 그 행복을 잃어버릴바에는 죽어도 그
행복을 지켜야 한다.

작품의 문제성을 중심으로 한 대조적인 형상으로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단계를 뚜렷이 확증하고 있는 이 대목들에 다시금 주의를 돌려보자. 아버지가 물려준 얼마간의 《밀천》과는 대비할수도 없는 집단과 동지들의 믿음앞에 성실하고 부끄러움없이 살려는 강렬한 지향과 각오가 얼마나 세차게 분출하고있는가.

불발해제후 금석이가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금향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침해가 떠오른 평양하늘을 우러르는 환희에 찬 심정을 양양된 시적열정으로 묘사한 마지막부분은 또 얼마나 깊은 의미와 여운을 주는것인가.

지금 우리는 《갑자기 부닥친 고난의 시기에 주춤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뒤걸음치기도 하였》지만 《종당에는 자신을 이겨내고》 시대의 높은 언덕 위에 올라선 새 세대의 긍지높은 모습을 보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작가의 해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인공자신의 마음속깊이에서 울려나오는 새 삶의 송가로 되고 있다는데서 그 형상적의의가 더 부각된다.

정말로 작품은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나날에 더욱 깊이 간직한 조국에 대한 사랑,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몰라보게 성장한 새 세대의 모습을 아무런 꾸밈없이 생활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작품이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을 그리면서 그 어떤 청춘의 위훈과 량만, 용감성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그 행동을 낳게 되는 사상정신적기초, 생활적바탕을 깊이있게 드러내는데 보다 주목을 돌림으로써 형상의 깊이를 일정하게 담보할수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물론 금석이의 아버지에 대한 형상에서 시대정신의 정확한 반영, 생활의 진실성문제를 두고 일정한 의견도 있지만 자기의 주인공을 그저 《아름답게》만 그리려는 일면적지향에서 벗어나 오늘의 새 세대가 지닌 아름다움이 진정 어떤것인가를 그의 구체적인 사고와 감정, 심리, 지향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점을 우리는 적극 긍정하고싶다.

이 소설에서 한 인물의 성격속에 내재하고 있는 긍정과 부정, 진실과 비진실의 두 측면을 예리하게 파고들면서 마침내 자기의식검토의 《폭풍》속에, 시대의 격류속에 마련된 새 인간의 탄생을 격조높이 보여준것은 설득력이 있고 생활적으로 공감이가 간다.

인물관계를 단순히 교양하고 교양받는 관계로만 엮지 않았으며 현재와 과거생활의 교차, 회상수법과 내면독백의 수법 등의 효과적인 리용으로 주인공자신의 극적체험을 진지하게 추구한 결과이다. 이것은 새 세대의 성격과 생활을 여러 각

도에서 다양하게 형상하는데서 한결을 전진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새 세대들의 생활을 그 내면적깊이에서 인간학적으로 보여주려는 이런 창조적지향과 새로운 형상적시도는 귀중한것이다. 비록 그것이 사회적환경, 집단과의 관계속에서 주인공의 성장을 보다 폭넓게 보여줄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있다 할지라도...

이 작품에서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거쳐 몰라보게 성장한 새 세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이룩된 새 세대의 정신적변모에 대한 깊이있는 체험과 작가적탐구를 떠나 바랄수 없는것이다. 새 세대들을 형상한 작품들의 감화력이 서로 다른것은 바로 이와 관련된다.

새 세대들의 생활과 위훈의 투쟁을 보여준다고 하여 어떤 큰 일을 해냈는가 하는 외면적생활을 소개, 전달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사상정신세계, 내면세계의 깊이를 추구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군시대 새 세대형상작품이라면 그 생활적형상과 성격적높이에서도 오늘의 시대적높이에 올라서는것이 마땅하다. 지난 시기의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오늘의 산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 새 세대의 지향세계를 얼마만큼 생동하게 그릴수 있으며 그것을 떠나 형상의 깊이와 감화력을 얼마만큼 담보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새로운 성격적미, 정신세계를 찾아내고 밝혀내지 못한다면 작품의 사상에 새로운 독특한 의미도 철학적심오성도 부여할수 없다.

강물은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그 깊이를 어찌 수면위의 잔파도와 그 설레임으로 다 보여주었다고 말할수가 있으랴. 우리 새 세대들의 내면세계를 그 밑바닥까지 꿰뚫어보며 그것을 시대의 지향과 감정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이라야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수 있다.

생활의 결면만을 적신 무난한 붓대로는 아무것도 보여줄수 없다.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시대의 작가다운 대답성과 생활의 진실에 대한 깊이있는 체험으로 예리하게 다듬어진 붓대만이 독자들의 마음속에 충격과 흥분을 던져줄수 있다.

그러자면 새 세대형상의 출발점부터 달라져야 한다.

새 세대들의 정신세계에로의 침투! 이것이 오늘의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작가의 몫이다. 이것을 떠난 작품의 생명력이란 바랄수 없다.

우리 시절의 노래

리령철

...
비가 옵니다.
어머니, 그러니 이해 겨울도 다 지나갔지요?
학원 정원숲 칠벗겨진 결상이며 그뒤에 둘러선 나무들도 새벽부터 내린 보슬비에 젖어서인지 생기를 뱉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 부드러운 훈향! 봄! 봄이 오는게 아니겠습니까.

또 봄이냐? 어머니 그르실 겁니다. 사넨 겨울을 좋아해야 한다. 늘 이러셨지요?

허나 이 편지를 보신다면, 남모르게 겪었던 아들의 심적고충을 읽으신다면 어머니 아마 우실 겁니다. 아들이 지향하는 삶의 아름다움에 가슴이 몽클 젖어올라 미래를 축복해주시며 만시름을 놓고 기뻐 우실 겁니다.

알다시피 저는 두달전에 예술학원 작곡학부 졸업을 앞두고 창작실습지를 북방으로 정했습니다.

선생님과 동무들은 아연해했습니다. 그럴것이, 지금까지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은 창작실습지를 극장으로 정하는것을 피할수 없는 하나의 법칙으로 되어있었으니까요. 예술학원이 생겨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극장과 북방땅, 거리가 먼 저의 실습지를 놓고 녀선생님은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자는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아들의 심정을 리해하실 겁니다. 아들이 울리려는 시절의 노래선율을 어머니 가려들으실 겁니다.

편지는 그대로 아들이 울리는 선율입니다.

×

추억은 사진보다 더 방불한 모습을 떠올리는것 같다. 어머니며 나의 친우 명수, 정겹고 의로운 모습들과 더불어 꿈을 키워오던 그 시절의 잊을수 없는 모든것을.

중학교졸업을 앞둔 그 시절 우리는 늘 아버지네 직장에 가곤 했다.

아버지네 직장이란 기관차대이다. 정문에 들어서면 우선 보이는것은 육중한 기관차며 차량들이고 들리는것은 그것들이 내는 둔중하고 쇠된 소리뿐이다. 구내 환차기인 증기기관차가 열심히 오간다. 그러다간 이따금 멈춰서서 흰김을 내뿜는데 동시에 울리는것은 목신것 같은 기적소리였다. 그래도 좀 멋있게 들리는것은 손풍금리드가 부드럽게 떨리는듯한 전기기관차의 《목소리》였

다. 그러나 그것도 가까이에서 들으면 자극센 음파나 다름없다.

나와 명수는 구내공원으로 들어간다. 이어 그의 나팔소리가 울린다. 중학교 음악소조원들속에서 한창 유행되던 《내가 지켜선 조국》의 선율이다.

자유롭게 메아리치던 선율이 똑 끊어졌다.

《어때, 좀 느긋 같니?》

하얀 명주천에 빨간색으로 《일당백》이라고 쓴 손수건을 꺼내서 취구자리가 또렷이 난 입술을 땀시있게 닦으며 명수가 묻는다.

《응, 근데 왜 멈췄니?》

《이 대목엔 좀 자신이 없어. 병사의 감정을 터뜨리는 부분인데 너무 음이 높아서 두렵거든.》

그 다음 길게 울리는 지속음.

《그건 왜 그렇게 부니?》

《응. 이건 기적소리처럼 내보려구 하는거야. 악기소리가 가야 할 종착점은 현실이거든.》

《?...》

《왜냐하면 음악은 생활을 진실하게 표현해야 한다는거다. 그렇게 쳐다보지 말어. 너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명수는 어릴적부터 나와 함께 어머니에게서 음악을 배웠다. 그는 지금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을 생각하며 나팔을 부는것이다.

나는 그 참 뜻을 리해하지 못했다.

나는 소란스러운 구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어머니의 창작실로 간다. (처녀적부터 어머니는 구내의 기관차대회관 2층에 자기의 창작실을 가지고있었다.) 올라가면 나는 창문을 꼭 닫고 휘장을 빈틈없이 친다. 그러고도 한참 정신을 가다듬고서야 건반에 손을 얹는다. 어떤 날엔 끈질기게 습재드는 소리들을 격렬한 연주로 물리치곤 한다. 그 다음에야 깃드는 정적, 꿈과 명상을 낳는 나의 세계.

피아노건반을 누른다. 음향이 나래친다. 무겁게 감겨돌아간 방음용휘장은 순수한 음만을 되돌려낸다. 이어 조용히 흐르는 선율...

봄날의 아지랑이가 곱게 어우러 피어오르는 들, 거기서 뽕조롭게 솟아오르는 파아란 여린 싹! 아니, 초봄의 이른 새벽, 겨우내 얼어있던 얼음장 밑에서 귀엽게 돌돌거리는 꿀개물소리일지도 몰라. 흐느끼는듯한, 울고싶도록 젖어드는 오!...

《창문을 열어라. 넌 답답하지도 않니?》

때때로 이 세계는 어머니에 의하여 이렇게 깨쳐버리곤 한다.

《바깥공기를 쉼뿔라. 나가서 창작을 해라.》

《?...》

할수없이 일어난다. 문을 열고 나가자 기다린 듯 자극하는 소음들.

나는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묻고싶었다.

어머닌 언젠가 그러셨지요? 음의 인성원리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피아노건반으로 조성의 주요화음들을 짚고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선률형상에 이바지하는 화성들은 아주 많다. 그래서 노래를 두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화성결합체라고도 하는거란다. 하지만 따져보면 수많은 그 울림들은 주요화음들에서 파생된것이다. 그러니 근친성과 공통음을 가지고있겠지? 또 그렇기때문에 서로 강렬한 지향성을 가지고 주요화음들로 해결된다는 말이아니겠니. 너희들은 이 원리를 순 음향학적견지에서만 고찰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어머니, 말씀해주세요. 보느니 무척당어리고 들느니 기적소리뿐인 이 기관차대는 어머니와 어떤 근친성이 있습니까. 공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그랬다. 어머니가 입는 옷을 놓고봐도 알수 있었다. 나는 작업복차림의 어머니보다 작품시연회에 참가했을 때의 어머니를 보면 무척 기분이 즐거워지곤 한다. 은근한 빛을 뿜는 검은 치마에 눈부시게 흰 저고리를 받쳐입고 명상에 잠겨 봄날의 나비처럼 건반을 날아에는, 그러다가는 폭풍우를 만난듯 무섭게 파도치는...

그럴 때면 나의 마음은 아들된 자랑과 긍지로 가슴부풀어 오른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란 미분음같이 피곳 있는것이고 대개는 미색잠바를 입은 어머니의 옷차림이 일반적이다. 잠바옷을 입은 어머니는 기관사들속에서 늘 살다싶이하는데 놀라운것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란 전혀 없다는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는 환차기니, 견인조카운동이니 하는 귀설은 말들을 음악술어처럼 자연스럽게 입에 올렸으며 그들 또한 녀성작곡가의 작품을 상당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것이였다.

《난 글썽 모르겠더라. 명수,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에게 《물리위》 밖에 나올 때면 나는 이렇게 터놓곤 했다.

어느날, 명수는 울상이 되였다. 인민군대에 나

가려는 그의 희망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표준키가 못되는것이 원인이었다.

《키가 무슨 상관이니. 조국보위야 키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잖아.》

인차 우리들의 운명은 급격히 변화되였다. 나는 도예술학원에 입학하였고 명수는 뜻대로 인민군대에 나가게 되였다.

트럼페트처럼 작고 뚱뚱한 뱃! 한차례 불어제끼고는 거드름스럽게 허리에 손을 얹던 친우!

그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내앞에 섰다. 군복을 입어서 그런지 명수에게서는 이전에 늘 풍기던 사춘기의 허영대신 어떤 무게가 느껴졌다.

헤여지기 전날 우리는 기관차대 소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추억깊은 밤이였다. 이 밤이 새면 우리는 각기 떠나야 한다. 이렇게 헤여지면 언제 또 만날가. 애모쁜 심정이다.

《너두 참.》

한웅큼 퍼든 골개물을 미련없이 내던지며 그가 하는 말이다. 풀잎들에 맺혀있는 물방울들엔 별빛이 내려앉아 반짝이는데 그것은 이상하게 내눈길을 끌었다.

《제대될 때 음악대학추천을 받으면 되지않니. 그럼 우린 또 만나게 될텐데.》

나는 웃고 말았다. 여전히 호기있는 그의 말투, 복무후의 문제까지 벌써 예견한다. 얼마나 랑만적인가.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작별의 뜻으로 한곡조 불라고. 인차 나팔소리가 울렸다. 애정에 겨운 선률은 고요한 밤하늘을 가득 채우며 부드럽게 퍼져갔다. 맑고 랑랑한 그 밤의 나팔소리!

그 밤의 추억을 떠올려보면 금시라도 내 가슴은 젖어드는듯 싶다. 왜 그토록 정겹게 느껴지는지, 친우의 마지막 연주여서 그러지 않을까?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것 같다.

그해 나는 방학을 갔다. 집에서 명수의 사진과 편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반갑게 명수와 만나 마음속이야기를 나누었다.

(명수! 그새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얼굴빛은 청동색, 그런데 몸은 좀 축간것 같아.)

(응 벌써 키가 3센치나 컸다. 난 지금 훈련에 모든 박차를 가하고있다. 하루 빨리 일당백의 만능병사로 자라나기 위해서 말이다.)

문득 명수의 손수건생각이 난다. 언제나 하얀 명주천에 빨간색으로 《일당백》이라고 쓴...

(넌 그저 훈련에만 열중하누나. 음악을 그토록 사랑하던 네가. 이제는 음악과 멀어진것 같구나.)

(아니야 그것이 음악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야.

내 조국을 노래하는 음악, 우리 인민을 위한 노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기 시작했다고 할지. 그런데 넌 어떻게 지내니.)

(글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난 어려운 조건에서도 참다운 예술! 진정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나는 쓸쓸하게 말을 한다.

명수의 활짝 웃는 모습은 그대로 군사복무의 자랑찬 생활이 함뿍 어려있는 모습이다. 신심과 랑만에 넘친 웃음이다.

그앞에서 나는 왜 그런지 마음이 서슴어진다. 초췌한 모습을 명수의 앞에 드러내놓은듯한...

...

(꼭 2년만이로구나. 난 너를 몰라보겠다. 어쩌면 그렇게 달라졌니. 어깨는 꺾 벌어지고 그런데 함께 찍은 군인은 누구냐?)

(우리 구분대 광철상급병사야. 지내보니 그도 음악을 지향했더구나. 난 지금 그에게서 많은것을 배우고 있어 여전히 넌 공부하고있겠지?)

(물론. 난 지금 음악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어. 이를테면 새로운 협주곡을 준비한다고 할가. 그런데 힘에 부쳐. 착상이 좋아야 하겠는데 상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모대긴다. 넌 군대에 가서도 나팔을 부니?)

(응. 휴식때마다 불군 해. 그러나 창작은 매일 한다. 일기로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전투기록장이지. 영수. 이런걸 생각해봤니. 우리 시절엔 말이다 어떤 노래가 제일 훌륭하니?...)

(?...)

청춘시절은 위훈의 시절, 희망의 시절이다. 그만큼 허영에 들뜨기 좋아하는 시절이기도 하다.

그무렵 나는 음악대학 작곡학부를 가기 위한 창작의 나래를 퍼나갔다. 이름있는 예술가가 되기 위한 나의 꿈은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무한대한 춤을 추며 날아갔다. 세계 이름있는 음악가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들의 음악세계에 빠져 그것이 이 세상 예술의 무아경처럼 생각도 했다. 아니, 그것을 초월한 예술을 창조하겠다는 각오도 비상해졌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 생활의 파동속에 묻혀 나는 간난신고했다. 그중에서도 예술가로서의 외모를 갖추지 못하는것이 나의 가장 큰 불만이었다.

그해 여름방학,

집으로 온 나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불만이라기보다 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어머니에게 하는 웅당한 요구라고 해야 할것이였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머니, 옷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이제 탁쳐

울 겨울에 입을 솜옷도 말이에요. 지금 옷은 입고 다니기가 부끄러워요.》

어머니는 놀란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내친 걸음이라고 강경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옷은 낡은것이라고, 이번 겨울에는 입지 못할거라고, 사실 그랬다. 내게 있는 솜옷이란 학원에 입학할 때부터 입던것이다. 그나마 2년동안 입다나니 솜이 모두 다져져서 봄가을외투처럼 얇다. 형식은 두말할것없이 낡은것이였다.

한창 나이의 청년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자기 옷차림에 각별한 관심을 돌린다. 더우기 나는 예술인이다. 예술인은 옷차림부터가 깨끗하고 고상해야 하며 형식도 새것을 지향해야 한다.

《내가 미처 관심을 못돌렸구나. 올겨울엔 어떻게 하나 동복을 해주마.》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책과 함께 상심의 빛이 어렸다.

솜옷이 도착한것은 겨울이 가까와올무렵이였다.

소포를 다급히 헤쳐본 나는 그만 실망하지 않을수없었다. 색도 까맣고 고티나는 형식, 번번한 앞자락에는 어른손보다 더 큰 주머니들만이 볼품없이 넘적하게 붙어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가슴가득 차올랐다.

어머니는 예술가다. 예술가의 감각이 이게 다란말인가, 어머니의 미적세계가 이런단 말인가.

나는 인차 편지를 썼다. 원망의 편지를.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집에 가면 말을 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없다. 아버지는 과묵한 성격이였다. 활달하고 감각이 예민한 어머니에게 때때로 《몰리우는것》 같았으나 묵직한 말 한마디로 어머니를 놀려놓곤 하는 아버지의 성격이 두려웠던것이다.

방학에 가니 아버지는 마침 없었다. 먼거리집 중수송에 동원되였다고 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들은것은 어머니의 나때문에 아버지한테 되게 욕먹었다는 누이들의 말이였다. 내 편지를 본 아버지는 이렇게 추궁했다고 한다.

《이엔 제 엄마가 어째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지 몰라. 이제 크면 이 녀석이 과연 당신과 같은 음악가가 되겠는지 정말 모르겠소. 전혀 믿음이 안가거든. 당신은 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웠소. 어릴적부터 끼고 다니며 무얼 배워줬나 말이에요.》

나는 어머니를 보기가 멍적었다. 나때문에 어머니가 말을 듣게 된것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집에 있는동안 솜옷을 보며 느꼈던 그때의 불만을 터놓기가 저지기 어려웠다. 더우기 선뜻 말하지

못한것은 전에 없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어머니의 말 없는 태도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 나는 작품창작문제로 난생처음 어머니에게서 호된 추궁을 받았다. 어머니는 보던 신문을 내게 주며 한팔을 뻗쳐 창문을 세게 떠밀었다. 그 서슬에 단박 들어온 바깥공기에는 기관차대 구내방송소리가 강하게 실려 있었다.

《늙은 나무껍질? 어린 봄싹?... 이건 뭐냐, 바라. 들리겠지? 미국놈들은 우릴 먹겠다는데 너 도대체 뭘하느냐. 왜 그렇게 창백한 꼴을 해가지고 나악한 소리만 늘어놓는가 말이다.》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음악가들도 자기의 표현수단인 음향으로 일기를 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때 나의 일기장에는 초봄의 이른새벽, 구내공원에서 본 한껏 물오른 어린 싹이며 이상하게 눈길을 끄는 늙은 느티나무의 검회색껍질에 대하여 적혀있었다. 그것을 한창 건반에 담고있을 때 어머니의 눈에 띄었던것이다.

나는 아연해졌다. 어머니가 리해되지 않았다.

물론 강한 저 음조와는 비록 밀착감이 없다해도 이겨야 아직 습작이 아닌가.

그러나 너무도 노기찬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한마디의 대꾸도 할수 없었다.

오후내껏 침울한 기분상태에 잠겨 싱숭생숭한 생각에 모대기던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총보만 뒤적이며 말없이 앉아있었다. 온 집안사람들도 말없이 서로를 제할일에 연손놀리듯 하며 눈치만 살핀다. 나는 류다른 방안공기에 긴장해졌다.

《책은 이따가 보구 거기 좀 앉아라.》

머리를 들어보니 집안식구들이 모두 앉아있었다. 머리를 숙인 누이들의 모습, 어머니의 엄엄한 얼굴빛, 마른 강냉이를 바수는 단조로운 분쇄기 소리...

《너도 알다싶이 나라는 지금 힘겨운 강행군을 하고있다. 그럼에도 너의 음악적재능을 귀중히 여겨 나라에서는 너를 음악공부를 시키고있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불평이냐?》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묵묵히 새기려던 불만, 울분이 치밀어올랐다. 숨웃불만, 습작에 대한 평가, 그밖에도 마음속에 뭉쳐던 온갖 원망들이 간간이 새어나와서 어머니의 말들을 반박했다.

어머니는 아연해져 잠시 말을 멈추었고 누이들은 머리를 들어 질책의 눈길로 나를 쏘아본다.

《편지를 가져오너라... 네가 직접 읽어라.》

읽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읽을수 없었다.

가정의 안부로부터 시작된 편지는 온갖 애로와

힘겨움이 도수질게 표현되던 끝에 집에 대한 원망으로 번져졌다.

《그래 네가 하는 고생이란 도대체 그거냐? 모두가 겪고있는데 너만은 어째서 별로 힘들다고 생각하는거냐. 너도 알지. 너의 동무 명수말이다.

네가 그만한 고난도 이겨내기 힘들어 타말할 때 그 앤 손에 총을 잡고 초소에 서있다. 나라를 지키고 있단말이다.》

《...》

《언젠가 집에 온 그 애 편지를 읽고 난 생각해봤다. 나이는 같은데 어찌면 너와 생각하는 품이 다른가고 말이다. 그리고 겁이 다 났다. 네가 점점 심아대같이 멋없이 자라는걸 보고 말이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발심에 떠밀리워 귀전에서만 맴돌뿐이었다.

난 그럼 호사스럽게 공부한단 말인가. 안정되고 걱정없는 환경에서 피아노건반을 두드린단 말인가.

어머니, 집을 떠나 생활한다는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아십니까. 긴 겨울밤을 떨면서 자고 나면 보이는건 성에긴 창문입니다. 깊은 밤 등잔불에 연손을 녹여가며 창작하는 아들입니다. 그뿐인줄 아십니까. 밤에는 초나 등잔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은 이런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나라가 강행군의 어려운데이므로 이겨냅니다. 마침내 저는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런 아들이 어찌다 손을 내밀었는데 성의없이 숨웃을 해보냈지요. 아들의 기호와 취미에는 상관없이. 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수, 명수하는데 그는 군인입니다. 그 앤 군인이니 나라를 지켜야 할거구. 난 학생이니 공부를 해야 하는거지요.

바닥깊은 불만은 계속 솟구치는데 어머니가 나의 마음속 말을 중단시켰다.

《그 앤 사고가 났게 배겨거든. 음악이 무엇인가를 안단말이다. 명수는 이 다음에 아마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게다. 자기 생활을 가지고 말이다. 너는 안되겠다. 작품은커녕 무엇도 만들수 없는것이 네 지금 머리상태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명수는 명수구 난 나예요.》

불시에 깃든 고요.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어 울리는 노성.

《가라 가. 썩 나가.》

나는 힘껏 문을 떠밀며 밖으로 나왔다. 그 길

로 나는 학원으로 올라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말인가. 사실을 말했을 따름인데...

그때 열차를 타고 오면서 차창밖으로 훑는 내리는 겨울풍경이 비껴올 때도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변명이 남아있었다.

그해.

고향에서는 가장 아픈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있을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언제 일이였는지, 기관차대 구내공원에서 명수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넌 뭘 그렇게 들여다보니?》

한참 나팔을 불던 그가 팔개물을 보고있는 나에게 물은 말이였다.

팔개물은 간밤에 내린 비로 저르기 불어났는데 그것은 어떤 세계에로 나를 끄는듯 했다.

꼭다. 아침노을의 등황색빛을 실은 그것!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바위위에 몰아차있다가는 맑은 물방울을 튕기며 귀엽게 날아떨어지는 팔개물!

《그까짓거, 래일 다시 와보렴. 자취도 없을게다.

영수, 저길 좀 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아득히 넓은 바다가 펼쳐있었는데 수평선너머에선 태양이 한창 떠오르고 있었다. 허리까지 솟근 불덩어리에 바다는 쇠물빛처럼 작열하며 끓는듯 했다. 그것은 또 우리들이 서있는 여기도 비치는데 그 서늘에 이슬돋은 기관차며 차량들, 지어 전철기마저도 한결 더 싱싱한 생기를 띠는듯 하다.

명수는 환희에 찬 목소리로 웨치듯 말했다.

《영수, 너의 어머니가 그러는데 예술가가 되자면 이만큼 안을만 한 정신이 있어야 한대. 이만큼 안을만한 심장이 있어야 한대.》

명수는 팔을 벌려 자라는껏 허공을 열정적으로 그러안았다. 그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목소리는 오늘도 들리는듯 하다...

(어머니! 생각나시지요? 명수가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집에 들렀을 때 제게 하신 말씀들?...)

《너도 신문을 봤겠지. 얼마전 서해에서 벌어진 격전을 말이다. 명수는 그 전투에서 희생되었다. 이젠 명수가 네게 보내려했던 편지다. 광철이라는 그의 전우가 제대되어 대홍단으로 떠나면서 명수의 집에 들렸댔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병사생활을 못해본게 한이다. 그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았다면 난 정말 명수를 훌륭하게 그럴텐데.》

그때는 그 의미의 참 뜻을 다는 몰랐어요. 허나

지금은 고결한 마음이 차오를뿐입니다. 명수의 편지를 건반에 담았을 때, 참다운 세계를 진심으로 느꼈을 때 저도 모르게 차오르는 성장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명수의 편지는 진정 로동계급의 한 녀성작곡가에 대한 찬가인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떠올린 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

영수!

우리가 헤어진지도 벌써 2년이 켜 지났구나. 그동안 몹시 보고 싶었다. 지금은 뭘하고 있는지.

그 시절 그때처럼 열정에 넘쳐 건반을 애무하고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즐겨가곤하던 소공원 숲속을 거닐며 어떤 사색에 잠겨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소중한 추억의 갈피들을 번져볼때면 편지를 쓰는 이 시각도 마냥 가슴이 설레인다.

나를 축하해줘 영수!

우리 구분대는 오늘 련합부대에 예술소조공연에서 1등을 했단다. 얼마나 기뻐는지 몰랐어. 감흥이 컸다는건 말할 나위가 없다.

자장가처럼 젖어들던 기적소리며 정든 함선기의 퍼덕임소리처럼 나도 이미 자기의 노래를 부르고있었다는것, 그래서 모든것이 그토록 정겨웠다는것을 느껴서가 아니겠니. 네가 보고싶은것도 있지만 이 심정을 나누고 싶은 충동이 아마 나로 하여금 펜을 들게 한것같애.

내가 구분대 예술소조를 맡은것은 부대가 오종흠7련대청호 관정준비로 끊고있던 어느날이었어.

(원래는 광철상급병사가 예술소조를 맡았었는데 그가 다른데 동원되었으므로 내가 맡은것이 다.)

구체적인 임무를 받은 끝에 난 지휘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다.

광철상급병사의 노력으로 이때껏 우수한 예술소조로 손꼽혔는데 잘할수 있겠느냐겠지.

좀 불만스러웠어. 왜냐하면 그와 대비해보는 감을 느꼈기때문이다. 말하자면 그 어조에는 꽤 해내겠는가 하는 반신반의가 실려있었거든.

광철상급병사도 음악을 몹시 사랑한다. 제대되어 음악대학을 가려는 꿈을 안고있는 그였어. 우리 부대 기타명수다. 음악을 전문배우다 싶어한 나도 놀랄 지경이었어. 하지만 어릴적부터 너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나의 창작실력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란걸 너도 알고있지않니. 그래서 나는 이번에 꼭 광철상급병사보다 월등하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모범군인인 이 명수가 훈련만이 아니라 예술소조지휘능력에서나 작품준비에서나 만능병사라고 인정받고싶었어. 광철상급병사가 창

작했다는 작품대본을 참고하려고 보니 머리속엔 의문이 들더구나. 왜서인지 단조롭고 광광소리만 치는 강한 음조, 정서적감흥을 일으키는 고상한 예술성이란 없었어. 그건 성부편곡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거의나 단성부로 창작한데다가 수법 역시 소박하기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분대가 어떻게 소문났는지 리해되지 않았어. 하긴 음악을 동경하면서도 깊이있게 모르고 있는 그의 음악지식의 엉당한 귀결이라고 생각하면서 난 머리를 저었다.

구분대별로 작품준비를 맹렬하게 하고있었어. 나는 작품의 구상을 깊이 생각했다. 이번에도 그들은 예술소조의 모든 측면에서 틀림없이 혁신을 추구할것이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답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조로운 성부구조, 소리만 치는 음조, 이것이 문제다. 성과를 거두자면 종래의 방식을 버리고 다성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런합부대에서 아직 들을 수 없었던 화성세계! 깊은 사색으로 몰아가는 정서의 효과적인 울림만이 혁신일것이며 우리가 희망하는 우승의 목적도 실현할수 있다.

고심어린 분석끝에 명백한 결론을 얻은 나는 단 이틀사이에 이전 작품에 대한 다성부 편곡을 완전히 끝냈다. 4성부까지 도입하려다가 지내 힘들어할것 같아서 3성부로 했어. 작품을 구분대에 제출하면서 난 자기의 새로운 방안에 대하여 확신적인 지지를 의심치 않았단다.

며칠후에 구분대에서는 작품합평회가 열렸다. 그런데 합평회에서는 뜻밖의 목소리들이 울렸다. 어조들에는 거의나 회의적인것이 실려있었거든. 더우기 언제 왔는지 광철상급병사가 나타나서 완강하게 반대할줄을 어떻게 알았겠니.

후에 들은데 의하면 내 작품을 두고 논의가 많았다. 리해 못하겠다는것이였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여 그를 데려왔다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

《우리 전문단체가 아닙니다. 총을 멘 군인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지 난 한마디도 반박할수 없었다. 결국 그날 합평회는 다시 창작이라는 결론으로 끝났어.

다들 나가버린 교양실에는 둘만 남았다.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가요집을 한창 뒤적이는 그를 보며 생각했어. 솔직히 나는 광철상급병사라면 늘 선망에 차서 바라보곤 했어. 음악을 동

경하며 앞으로 음악대학을 지망한다는 나와 공통된 뜻도 있지만 구대원의 우수한 자질적측면에서도 그는 나의 마음속 존경을 받고있었거든.

《명수, 선물이란 이거야. 음악이란 바로 이런거란말이요.》

어느 땐가는 기관포사격시 탄피를 물려주며 사격자세를 봐주던 그가 한 말이였어. 그때 내가 쏜 포탄들은 빠른 속도로 류동하는 해상목표를 단 몇초만에 명중시켰었어.

음악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사수, 우리들의 음악은 무엇인가. 날아가는 탄두가 목표를 명중시켰을 때 울리는 폭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음악이다.

훈련을 시작하기전이면 늘 이리는 그의 말을 음미해볼 때 이날의 이야기는 나의 가슴속에 뜻깊게 새겨졌었다. 그래서 나는 광철상급병사처럼 우수한 병사가 되기 위해 애썼어. 그 나날에 모범군인도 되었고 예술소조작품도 잘하느라고 한 것이였어. 그러나 나의 작품에 대한 무자비한 비평은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았어.

그럼 3성부 구성안은 혁신적인것이 아니란 말인가.

생각끝에 나는 그에게로 다가갔어. 그리고는 대뜸 만날수 있는가고 보고했다.

《이제? 지금 만나잔거요?》

《그렇습니다.》

난 말했어. 합평회에서 한 상급병사의 말이 리해되지 않는다고.

《아직 납득이 안간다는거구만.》

그는 혼자소리로 되뇌이더니 팔을 잡아 결상에 앉히더구나.

《명수, 내 의견은 한마디로 동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거요. 이를테면 트럼페트를 부는 동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가.》

《?...》

《그건 동무의 작품에 나타나고있는 부족점들중의 하나요. 동무도 알다싶이 음악은 자기의 생활, 자기의 얼굴이 선물로 표현된것이 아니겠소. 포병이면 포병, 통신병이면 통신병, 우리도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소.》

이러며 그가 말하는데 우리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그건 해병의 이야기다. 구체적으로는 모범군인으로 성장한 나의 모습을 트럼페트선물에 담은 것이라는것이겠지.

《한번 대답해보라구. 고요한 바다, 저녁노을, 여기에 고상한 예술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에겐 잠자는 바다는 필요없단 말이요. 애상에 잠기게 하는것만있지 되성처럼 울부짖는, 귀전을

때리는 세찬 파도소리, 사나운 바다를 다스리며
 뚫고나가는 우리의 공격정신, 대담무쌍한 우리
 해병들의 투쟁정신이 없단말이요. 그래 가령 장
 군님께서 우리 구분대에 오시면 동문 뭘 보여드
 리겠소. 동무의 그 희한한 3성부 중창곡? 화성울
 림?...》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구나. 글썄 너무 생각해보렴. 노래
 란 생활에 대한 열렬한 공감이다. 생활을 사랑하
 지 않고서는 도무지 뽑아낼수 없는것이다. 이전
 에 난 언제나 이렇게 인정해왔고 나의 노래인 병
 사생활에 대하여 자부하고있었다. 그런데 난 자
 기의 이런 모습을 외면하고 어떤 조화에 매달렸
 어.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했다는 뜻이었다.

《라식할 필요는 없소. 이제부터 자기의것을 찾
 으면 되는거요. 나도 처음엔 다성부뿐만아니라
 후가까지 생각했댔소. 구분대의 전통악기인 중북
 까지도 고티난다면서 써먹으려고 하지 않았소.》

그의 말을 듣고 난 깜짝 놀랐다. 음악술어를
 그렇게 술술 꺼들이는데 그건 음악을 전문 배우
 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였어.

알고보니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소년궁전 음
 악소조에서 음악을 배웠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음악대학을 지망했는데 어머니가 반대했다는거야.
 생활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시절에 인민
 군대에 나가야 한다고 했대.

난 그의 앞에서 머리를 들수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던데 한 녀성작곡가에 대한
 이야기였어.

영수! 그의 이야기는 뜻밖에도 너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 틀림없이...

음악을 전공하려고 생각했던 그는 학교때 우연
 히 창작가들의 창작경험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었
 어. 그때 한 녀성작곡가의 창작경험토론이 청강
 생들의 마음을 끌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는거야.

영수, 난 어머니가 즐겨입던 옷이 생각나니?
 작품시연회때마다 입군하던 그 치마저고리말이다.
 녀성작곡가는 바로 그 옷에 대하여 말을 했대.
 작품의 리듬조직이며 화성구조에 대하여 들을것
 이라고 생각했는데 옷에 대한 말을 했어. 실상
 그 이야기는 창작기술적인 토론보다도 더 큰 감
 화력을 가지고 가슴들을 울려주었대.

...

《사람들은 저의 작품을 두고 쇠물과 석탄에 절
 은 노동계급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교
 는 저더러 후배들에게 그 창작경험을 이야기해주
 라고 권고하더군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많은 작

품들을 말할수있으랴만 꼭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
 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있는 이 옷에 대한 이야
 기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의 작품의 리듬이며 화
 성의 가치보다도 몇배로 귀중할거라고 느껴집니
 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에게는 동무들과 마찬가지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란 제가 제일 사
 랑했던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와 같은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고싶었던것이였어요. 고향
 도시의 XX예술단체작곡가로 배치되어 현실체험
 지가 정해지면서부터 그 희망은 더욱 강렬하게
 솟구쳤습니다. 저의 현실체험치는 시내 해안선에
 위치하고있는 기관차대였습니다. 전 이곳에 거
 의 출근하다싶이 하면서 저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어텐들 안가봤고 무엇인들 묻지 않
 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노동자들과 친숙해지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건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려워하는듯 했고 뭘 물어보면 상징
 적인 말들이나 한마디씩 하고는 화제를 피하는것
 이였습니다. 때로 그 행동은 나라는 존재를 아주
 귀찮아하는듯이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손풍금
 을 메고 손에는 총보며 당보해설문을 들고 현장
 으로 갔어요. 당위원회에 들리니 오늘은 구내환
 차기에 가보라고 이르더군요. 그 기관차의 주인
 인 젊은 기관사는 전기기관차를 끌다가 자진해서
 이 차를 맡았답니다. 폐차가 될번한 증기기관차
 를 새차처럼 되살려서 집단적혁신에 이바지한 모
 범기관사이니 무엇인가 얻을것이 있다면서 말이
 예요. 구내환차기란 전기기관차들이 끌어다 사방
 널어놓은 차량들을 자기 방향선에 옮겨놓는 작
 업을 하는 기관차예요. 가보니 견인기 대수가 모
 자랐던지 구내환차기는 증기기관차였습니다.

저는 운전실에 올랐습니다. 몹시 좁더군요. 그
 리고 어떻게나 더운지. 해설문읽기를 끝내고 어
 떻게 하면 말을 붙일가 했는데 그들이 먼저 이야
 기를 건네더군요. 메고온 손풍금소리를 들어보자
 는것이였습니다. 자리가 좁아서 난 망설였습니다.
 내 눈치를 알아차린 기관사가 애젊은 두 조사를
 자기에게로 끄당기더군요. 그동안 기관차는 계
 속 오가며 일했습니다. 나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
 서 나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어
 굳게 닫긴 마음의 문을 열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무들!

전 마음의 문을 열기는 커녕 연주조차도 할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유연하게 하려고 기초훈련
 이 시작된지 몇십초도 안되어 갑자기 온몸을 뒤

흔드는 기적소리가 고막을 자극하며 울려퍼졌어요. 보니 젊은 기관사가 무표정한 얼굴을 해가지고 계속 기적소리를 울리는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조사들이 일을 해야겠는데 내리라는것이였어요.

난 쫓기듯 기관차에서 내렸습니다.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들은 아마 내가 연주하는 기초훈련곡에서 이국냄새가 풍긴것이 싫었던가 봐요. 그렇지만 그거야 유원성훈련곡이 아닌가. 참을성없는 무뚝뚝하고 거친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런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음악문의한들과 다시는 상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길로 당위원회에 찾아간 나는 막 들이댔습니다. 어쩌면 그럴수 있는가고 말이에요.

당비서동지는 미소인 얼굴로 그저 말없이 저의 안타까운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선생, 난 음악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 같아서는 말ियो. 선생뜻대로 안된건 본인한테 원인이 있다고 느껴지오. 작업장에 작업복이 아닌 그런 멋진옷을 입고 나오니 우리 로동계급들이 말이나 어디 붙여보겠소. 어려워서 말ियो.>

난 싸늘한것이 전신에 퍼져가는 감을 느끼며 입고있는 옷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는 한창 처녀시절이라 나는 값비싼 류행복을 입고 다녔었어요. 명실공히 저의 옷에서는 음악가의 진정한 향기보다 처녀의 도고성만 풍겼을것이란건 두말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관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오? 그 처녀손님이 언제까지 목을 작정인지 모르겠다고 하오.>

이 말은 나를 제일 아프게 때렸어요. 동무들도 느껴보면 알겠지만 주인은 손님에게 레의상 도덕을 지키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손님답지 않게 시끄럽게 굴면 몹시 불쾌해하지 않는가요. 그러니 전 결국 그들에게 눈치 무딘 질련한 손님으로만 여겨진거예요.

울고 싶도록 창피했습니다. 내뎐엔 친절하든 음을 짓고 허심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되려 그들의 불쾌감을 자아냈다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다음날부터 저는 옷차림을 수수한 잠바옷차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뿐더러 그들과 함께 화실에 탄도 퍼넣고 그 불에 익힌 밥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달라지더군요.

그렇게 생활한지 1년후에 나에게 날아온 한장의 편지가 그걸 증명하고있었습니다. 말하기는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였습니다. 난 그것을 안고 행복한 심정에 싸여있었습니다. 이성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음악가인 자기 존재가 명백히 확인된데서 오는 행복이였습니다.

후에 나는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창작한 처녀작을 들었습니다.

놀랍더군요. 음악문의한으로 치부해버렸던 그들이 나의 작품을 누구보다 깊이 감수할뿐아니라 지적까지 하는게 아니겠나요.

어느날 저녁에 당비서동지가 나를 찾아와서 보자기에 쓴것을 주며 말합니다.

<우리 기관사들의 성의요. 처녀가 늘 작업복을 입고 힘든 일을 함께 하며 자기네 노래를 짓는다고 말ियो. 작품발표회를 할 때마다 입으라는 그들의 부탁이요. 이걸 입고서 우리 철도로동계급의 음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시오.>

...그때 난 이 옷을 단순히 성실하고 깨끗한 로동계급의 감사의 표시로만 여기고 싶지 않았습다. 그것은 현실속에 몸을 깊이 잠글 때에만 좋은 음악을 울릴수있다는 그들의 가르침으로 감수하였습니다.》

...

광철상급병사가 한 이야기는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어.

영수, 중학시절 우리는 어머니가 배워준 음의 인성원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론쟁을 했었지. 결국은 너도나도 생활의 인성원리를 똑바로 찾지 못했다.

생각나니? 넌 오히려 어머니와 기관차대사이에는 근친성과 공통음이란 도저히 존재 못할거라고 주장했지. 허나 오늘은 내가 너에게 확실히 말해줄수 있다. 시대정신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두 그루의 서로 다른 과일나무처럼 음악가와 로동계급은 서로 근친성과 공통음을 가지고 열매라는 기동화성으로 강렬하게 지향하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생활의 인성원리가 아니겠니.

그래서 너의 어머니 현실속에 몸을 잠그고 생활과 창작을 밀착시킨것이다. 하기에 그 선물속에 시대의 숨결을 지닌 로동계급이 진실하게 더 잘 형상된게 아니겠니.

영수,

나도 부르고싶다. 우리 시절의 노래를 말이다. 정겹도록 안겨오는 이 땅의 모든것, 가슴속에 북받치는 열렬한 사랑의 노래를 푸른 저 하늘끝까지 폭 젖어들도록 마음껏 터치고싶어.

...

어머니!

전 잠들수가 없었어요. 명수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거세찬 폭풍을 안아오며 강한 음조로 나의 귀를 쫑쫑울려주었어요. 그것은 원수들과 용맹히 싸우다 전사한 명수와 더불어 참된 삶의 세계를 떠올리며 울리는 음향의 폭, 걱정의 응축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전 떠났습니다.

광철상급병사를 만나 명수의 투쟁실담을 듣고 싶었고 명수가 노래하지 못한 우리 시절의 노래를 꼭 훌륭히 창작하여 명수를 위해주고싶었습니다.

...

3월이라고 하지만 백두대지는 흰눈속에 덮여있었다. 어디를 보아도 눈세계다.

눈보라가 짐승의 단말마적인 소리마냥 울부짖으며 눈갈기를 일으킨다.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일어나는 뽀얀 눈안개!

나는 그속을 뚫고 걸어갔다. 한차례 눈보라를 들쓰면 순간에 눈사람이 된다. 나는 솜옷깃을 울리고 한손으로 마주오는 바람을 막으며 모재비로 걸어갔다. 난생처음 맛보는 눈보라다.

얼마나 걸었는지 발바닥이 아파났다. 차에서 내렸을 때 운전사가 이제 20여리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먼가. 초행길이니 그러리라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 겁도 난다. 인적없는 눈보라길에 나 혼자만이 바람에 밀리우며 걸어간다.

내가 또 나약해지는것 같았다.

문득 어머니의 말이 생각난다.

<그늘속에서 자라난 심아대.>

그것은 허약한 나를 두고 한 걱정과 질책의 말이였다. 또 생각한다.

<사낸 거울을 좋아해야 한다.>

그것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명수의 모습도 안겨온다. 푸른 파도를 헤치며 원수들과 용감히 싸우는 모습이였다.

힘이 불끈 솟아난다.

나는 씨엥씨엥 걸음을 옮겼다.

어데선가 벽짝 고아대는 소리가 들려온다.

저 멀리 붉은기발이 보인다.

눈보라속에 사람들이 아물아물 보인다.

그들이 점점 가까와온다.

옷옷을 벗어던지고 곡괭이질을 하는 사람들, 지계를 지고 드바빠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이 점점 더 가까와온다.

분명 대홍단으로 탄원한 제대군인들 같다.

저게 무엇인가. 검은 흙?... 도로우에 무득무득 쌓여있는 검은 흙! 그들은 지금 진펄속에서 니

탄을 캐고 있었다. 그들은 백두대지에 감자풍년을 마련하기 위한 거름채취전투를 벌리고있는것이다.

온몸은 감탕판에 빠졌던 사람들처럼 온통 얼룩 얼룩해졌다.

감탕을 지고 길가로 나오던 한사람이 넘어졌다. 뒤를 따르던 사람이 그에게로 다가간다.

《왜 그러오?》

《오, 미끄러져 넘어졌소.》

넘어진 사람이 싱긋 웃어보인다.

《좀 쉬라구. 얼굴색이 말이 아니구만. 꼬박 밤을 밝히면서... 사람두 참. 무쇠몸인들 견디겠소.》

《일없소. 우린 장군님의 병사들이 아니요. 장군님의 뜻을 관철하기전에는 우리들에게 휴식할 권리가 없소.》

장군님의 병사!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혹시 광철이라는 제대군인을 모르는가고, 덧붙여 해병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동문 어데서 오우?》

나는 신분을 밝혔다.

넘어졌던 사람이 나의 아래우를 훑어본다.

대변에 얼굴이 밝아졌다.

《혹이 명수의 친구 영수동무가 아니요?》

《그럼 광철동지가?...》

《그렇소. 내가 광철이요.》

《광철동지!》

《영수!》

우린 서로 부둥켜안을듯 다가들어 두손들을 굳게 잡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도 눈물이 글썽해져 말을 머금었다.

부지불식간에 명수의 생각이 가슴을 파고든것이다. 한동안 눈들만 습벽이었다.

처음 만나는 우리들이었지만 생면부지같이 앓았다. 명수를 통해 서로 너무도 잘 알고있는 우리들이였다.

그날 밤.

광철동지는 명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서해바다에서 원수들과의 격전, 그것은 그대로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참고참았던 증오의 분출이었다.

...

그날은 안개가 몹시 끼였다.

적함선들은 안개를 리용하여 우리 측 명해로 깊숙이 침입해 들어왔다. 정상적인 해상경계근무

를 수행하고있던 우리 해군경비정은 안개속에 잠긴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은밀히 접근해들어갔다.

적들의 함선이였다. 적들은 우리 경비정을 발견하고 연막탄까지 피우면서 함포사격을 가해왔다. 잠잠하던 바다는 뜻밖의 세례를 받고 끓어번졌다.

불붙는 바다! 화염에 휩싸이는 적함선.

또 한척의 적함선에 불이 당겼다.

포소리, 포소리...

적들의 함포사격에 우리 경비정기관이 멎었다. 더는 움직일수 없게 된 우리 경비정, 적들은 사방으로 포위망을 치고 좁혀들었다. 우리의 경비정에도 불이 당겼다. 매캐한 연기, 타래쳐오르는 화염, 그속에서 명수는 적함선을 향해 기관포사격을 가했다. 순간도 포사격을 멈출수 없었다.

또 한척의 적함선에 불이 당겼다. 이어 폭음소리. 바다에 잠기는 적함선.

만세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명수는 갑판우에 쓰러졌다.

가물거리는 의식속에 보이는 푸른 하늘! 그것은 조국의 푸른 하늘이였다. 누워있는 갑판은 그대로 조국의 대지였다...

...

아- 나의 친구 명수! 그는 그렇게 갔다. 우리 시절의 노래를 푸른 저 하늘 끝까지 나래치도록 마음껏 부르리라던 그였다.

허나 그는 우리 시절의 노래를 가장 참되게, 가장 아름답게 부르고 갔다.

...

폭풍이 터졌다. 바다는 작열한다. 불, 굉음, 모든 피성을 짓누르며 날아오르는 기관포탄! 그것은 억세게 솟구치는 영웅의 노래였다. 우리 시절의 가슴들에서 끓고있는 수령결사옹위의 위대한 삶의 메아리였다.

격랑을 솟구치는 바다여! 파몰아 끓고있는 물결아! 그의 노래, 그의 삶을 더 높이 들어올리라.

그 삶의 퍼덕임과 더불어 우리 함께 부르리라 우리 시절의 노래를...

...

비는 여전히 내리고있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탄생을 약속하는 강의한 봄비겠지요. 성장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선물이 아니겠어요. 나약한 봄비가 아닌, 그래서 정원의 나무들이 더 싱싱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말대로 제가 솜옷을 가지고 투정질할 때 명수는 청춘을 바쳐 조국을 보위했습니다.

어머닌 아들의 참된 성장을 바라며 사연깊은 치마저고리로 저의 솜옷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수치로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금 이 아들의 심장은 어떻게 끓어번지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자신을 깨달았으며 나를 둘러싼 이 세계를 알았으며 그래서 시절의 폭풍속에 뛰어들려는 강렬한 자각입니다. 저의 노래를 어디서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를 저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광철동지에게 음악대학을 지망했다고하던데 어떻게 되어 대홍단으로 왔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제대군인병사들의 대지요. 이를테면 나의 음악의 대지란말이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 시절 부르던 노래가 로동계급의 거인적형상이였다면, 바로 우리 시절 우리가 부를 노래는 선군의 영웅적형상이라는것입니다. 광철동지가 불러왔고 명수가 부른 노래!

저는 압니다. 내가 서야 할 대지, 음악의 대지는 바로 조국보위초소임을 자랑스럽게 웨치고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보위초소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저는 우리 시절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저의 삶의 메아리를 일으키렵니다.

아들의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조국에 드리는 맹세, 우리 시절에 바치는 아들의 언약을 믿어주십시오.

어머니는 장갑을 뚝니다

박철웅

한코 두코 이어잡니다
한뜸 두뜸 누벼잡니다
젊은 어머니
아들애의 장갑을 뚝니다

농장벌을 살지우며
해종일 진거름 퍼낸
그 피곤도 다 잊었나
벌써 굳잡든 아들녀석
손가락길이라도 다시 맞춰보며
어머니 입가엔 웃음이 남실남실

사과알같이 동그란 색실토리
어머니 무릎밑에서
어리광부리듯 돌돌 굶니다
그 무릎아래서
소학교 1학년생
아들애의 고운 꿈도 싱싱 자랍니다

무럭무럭 어서 커서
장군님결사옹위의 총대를 잡을 이 손
참대마디처럼 곧고 굳게 키워야지
참대바늘 코코마다 이어지는 그 생각

창밖에는 벌써 달이 기울건만
그 사랑은 기울지 않아

열코 스무코 끝없이 이어잡니다
백날을 날아넘어 천날을 날아넘어
벌써 자기 아들을
먼 앞날에 내세웁니다

이 장갑낀 손에 틀어쥐며는
달랑달랑 그 가벼운 책가방에도
선군시대의 미래가 무겁게 담겨지거라
이 장갑낀 손이 몰아가며는
썩썩 얼음판우의 외다리썰매도
자주통일의 무쇠철마가 되거라
바라는 마음 것처럼 뜨거워

한컬레 장갑만이 아닙니다
이 밤에 어머니 떠가는것은
래일을 틀어잡을 아들의 새힘
강성대국미래를 향해
아들을 떠나보내는 간절한 소원...

한코 두코 가슴부푼 희망을 떠잡니다
한뜸 두뜸 무거운 믿음을 떠잡니다
아버이장군님 바라시는대로
내 조국의 장한 아들이 되라고
그 손이 거머쥔 새힘을 떠잡니다
그 주먹이 틀어잡을 미래를 떠잡니다

가사

기다리시는 선생님

김승복

기다리시리 나의 선생님
꿈결에도 달려가는 교문앞에서
영웅되어 오너라 손저어 바래준
그리운 제자의 기쁨의 소식
아 선생님 학창시절 나의 선생님
오늘도 병사소식 기다리시리 내 소식 기다리시리

기다리시리 나의 선생님
푸른 희망 펼쳐가던 책상앞에서
보풀이 인 출석부 조용히 펼치고
뜨겁게 우리를 불러보시리

아 선생님 학창시절 나의 선생님
오늘도 우리 이름 불러보시리 뜨겁게 불러보시리

기다리시리 나의 선생님
우리 학교 영웅들의 소개판앞에서
다음번엔 어느 제자 그 이름 오를가
오늘도 손꼽아 기다리시리
아 선생님 학창시절 나의 선생님
금별의 영웅들을 안아보실 날 믿음속에
기다리시리

나의 안해에 대한 추억(2)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전호에서 계속)

6. 《별은 반짝거리고있구나》

주체89(2000)년 9월 2일 통일각에서 가족과의 첫상봉이 있었다.

그런데 내앞에는 안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유를 물어보기도 두려웠다.

나는 마음속으로 혹시하는 극단의 생각도 하면서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했으리라 위안을 갖고 있었다.

고려호텔에서 모든 비전향장기수들의 안해와 가족과의 상봉이 있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에게 안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안해는 지금 이 세상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렇다고 주위사람들에게 안해의 안부를 물어 그들을 곤욕스럽게 만들고싶지도 않았다.

가족, 친척들이 호텔을 떠나가기에 그들을 바래워주려고 고려호텔앞 주차장에 나왔다.

나는 친척들의 떠들썩한 분위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첫날밤 평양하늘을 쳐다보았다.

아! 밤하늘에는 보석들처럼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나도 모르게 혼자 《별은 반짝거리고있구나》라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후일에 사람들로부터 그날밤 밤하늘을 쳐다보며 내혼자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안해가 없으니 외로움과 슬픔의 속삭임이었다고 해석했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에는 안해를 생각하여 한 말이 아니라 남조선의 서울에서는 밤에 연무로 하여 별을 볼수 없었던 나에게 있어서 평양의 밤하늘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순간적인 감탄이었을뿐이다.

나는 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우리 동지들의 부인과의 첫 상봉이야기를 듣노라면 많은것을 생각하게 된다.

로동신문 《어제와 오늘을 놓고》에 련재되는 비전향장기수 안영기동지의 글 《안해》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조국땅에 첫발을 내디딘 통일각에서 환영군중을 헤치고 한 녀인이 내앞으로 다가오더니 <수십년세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초면>의 얼굴이여서 나는 <누구인데?> 하고 되물었다.

<제가 계룡옥이예요.> 하는 녀인의 대답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안해의 이름이였던것이다.

(이 녀인이 꿈속에서도 그리던 내 안해란 말인가?)

서둘러 나는 <아,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요.> 하며 인사를 받았다.

그때까지 나의 머리속에는 39년전 스물여섯살의 젊고 아릿다웠던 안해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던것이다.》라고 쓴 그의 글을 읽으면서 나뿐아니라 우리 동지들은 시간의 흐름을 잊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였다.

매일 자고 일어나며 마주하는것은 0.75평 회색벽밖에 바라보는것이 없었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거기에서 30~40년전의 모습을 믿고있는 완고성과 순진성, 이것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성격의 일면이라고 본다.

그런 완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비전향장기수가 될수 없었을것이다.

7. 대학생야영

내가 은옥이를 처음 알게 된것은 대학시절이다.

처음에는 혁명학원출신 대학생이라는것외에는 별로 알아야 할 일도 자주 만나야 할 일도 없었다.

어느해 여름방학이였다.

민청중앙위원회(오늘의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는 여러 대학에서 몇사람씩 선발하여 100명으로 구성된 야영단을 조직하였다.

야영생은 학부와 학과에서 혁명학원출신과 무

의무탁자대학생들을 기본으로 하여 선발하였다.

당시 나는 학생으로서 대학민청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야영생명단을 보니 은옥이를 비롯한 혁명학원출신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그때 민청중앙위원회에서 그 100명대학생야영단책임자로 나를 정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명한 웅기(지금의 선봉)로 가는 길고 머나먼 렬차러행의 길에 올랐다.

거의 이틀만에 웅기역에 도착하니 웅기군민청위원장을 비롯한 군의 간부들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리들은 옛날 별장이었던 건물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낮에는 항일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고 바다에 나가 수영도 하고 배를 타면서 야영생활을 즐기었다.

그때 우리들은 두만강에 나가 로씨야로 뻗은 철교우에 올라가보기도 하였다.

밤에는 군극장에서 대학생공연도 했다.

8월 5일 그날 군체육대회때는 체육대학 학생들을 주축으로 군안의 인민들과 배구, 룡구, 축구경기도 하였다.

정말 흐르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 다음해 여름 대학생야영이 또 조직되었는데 은옥이는 야영명단에서 빠져있었다.

대학민청위원회에서 불러다 알아보니 금년에는 고향에 있는 제일 큰 언니집에 놀러가겠다고 하였다.

그래 고향이 어디인가고 물어보니 단천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내 고향도 단천이라고 하였더니 은옥이는 매우 좋아하였다.

언니에 대해 알아보니 그는 놀랍게도 나와 소학교 동창이였다.

나도 이번 여름방학에 부모님이 있는 고향에 가겠다고 했다.

언제 출발하는가 하기에 그럼 함께 가자고 했다.

그는 함흥에 있는 사촌동생집에 들리겠다고 해서 나도 함흥누님의 집에 들려야 했기에 함흥에서 함께 며칠 놀다가 가기로 했다.

이때 함흥이 처음인 그였고 나는 대학오기전에 함흥에서 몇년 살았기때문에 그곳을 잘 알고있었다.

우리는 함흥 반룡국수집(당시)에서 함흥비빔국수도 함께 먹고 반룡산공원(당시) 에도 같이 가보

았다.

함흥누님에게 인사도 시키였다.

그때는 아직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였고 그저 같은 대학생이었을뿐이였다.

며칠후 함흥에서 기차를 함께 타고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부감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내가 놀란것은 그가 혁명학원시절 우리나라 작가들의 소설과 세계문학작품중에 대표적 인 작품을 거의 다 읽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유명한 소설, 명화에 대한 화제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8. 고향에서 만난 안해

고향방문시 나는 안해의 묘를 찾아보았다.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묘옆에 그의 묘가 있었다.

꽃 한송이를 놓고 《은옥이, 내가 왔소.》 했지만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는 귀여워하던 며느리가 옆에 있으니 적적해하지는 않으리라. 나는 우리가 살던 고향마을앞을 내려다보았다.

산아래집들은 깨끗하게 단장되었고 새로 모내기한 논, 그 벌판을 가로지른 금골행철길 그리고 북대천이 흐르고있다.

좀 멀리 바라다보니 푸른 바다가 보인다.

마치 한쪽의 그림 같다.

나는 감옥에서 고향을 한순간도 잊어본적이 없다.

저 산과 흐르는 강, 바다 이것은 나의 힘의 원천이였다.

은옥이!

너는 매일 저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바라보며 조국을 노래하리라고 믿고있다.

나는 묘옆 푸른 잔디에 잠시 앉았다.

주위사람들은 내 정서를 생각해 그런지 아무도 말이 없었다.

나는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비문을 읽어보며 옛날의 모습들을 추억하였다.

리당비서가 나에게 안해의 비도 있는데 묘에 세우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사실 나는 비문을 세우려는 의견에 반대했다.

그 사연을 모르는지 산에서 내려올 때 리간부 한사람이 곧 비문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비문이 세워진다면 마치 그가 죽었다는 공개적

인 기록처럼 보이지 않을가.

나는 그가 죽었다는것을 지금도 믿지 않고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합창단에서 노래부르는 사람들, 군중무도회에서 춤추는 사람들속에, 대학생들속에 그가 있다는것을 믿고 바라고있다.

고향방문차에 안해가 살아있을 때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시인민보안서 서장부인을 인사차로 방문했다.

내가 대문에 들어서자 황급하게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는 부인의 얼굴에는 눈물이 벌써 흐르고있었다.

나는 《이렇게 인사가 늦어 미안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했다.

부인은 《이렇게 만나니 꼭 은옥이를 만난것 같습니다. 살아있었더라면...》하면서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목메여 울었다.

고향사람들의 티하나 없는 깨끗한 량심은 내 고향산천처럼 아름답기만 하다.

0.75평 어둡고 칙칙한 독감방에서 나는 고향사람들의 얼굴을 한시도 잊어본 일이 없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 처자, 자기 혈육에 대한 사랑이자 곧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옳다. 장군님말씀이 백번 지당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비전향장기수가 되어 고향땅을 밟을 자격도 없을것이다.

나는 고향땅과 고향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내가 살아서 고향땅을 밟고 고향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은옥이를 만나 그에 대한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덕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있다.

9. 안해의 사진

지금 우리 집에는 대학시절의 사진이 거의 없다.

얼마전에 동창들이 나에게 자기들이 갖고있는 사진중에 나에게 추억이 될만한 사진들을 보내왔다.

그 사진중에 바다가 바위우에 서서 달린듯차림으로 허리에 손을 얹고 활짝 웃는 은옥이의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뒤면에는 《서수라바다가에서 전국대학생야영중에》라고 씌여있었다.

아! 나와 함께 대학생야영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아닌가.

그 특유의 유치원아이같이 순진하고 천진란만한 웃음, 그의 성격과 품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준 옛 대학동창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나의 생일때 유명한 초상화화가가 결혼식사진의 내 모습과 은옥이의 모습을 합성한 연필화초상을 액자에 넣어 나에게 선물로 보내여왔다.

내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안해의 모습은 20대 초의 모습 그대로였다.

처음에는 그 사진들을 전실에 걸어놓았다.

그런데 그 연필화를 보는 사람들이 내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가 하면 은옥에 대한 평이 많아 지금은 내 침실에 갖다가 책상우에 놓고 그안에 은옥이가 좋아하던 진달래꽃병을 놓았다.

그런데 지난 생일날에는 한 친척이 그와 똑같은 둘사진을 선물로 보내와 할수없이 전실진렬대우에 놓았다.

우리의 사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물어본다.

그럴 때면 나는 그저 미소지을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결혼사진인줄 알고 《젊었을 때에는 미남이였습니다.》한다.

《미남이요? 그러면 지금은 추남입니까?》하면 지금도 미남인데 나이보다 췌 젊어보인다고 다른 평을 더 붙인다.

머리가 다 빠진 70대인 내가 미남은 무슨 미남이겠는가. 그들이 내 기분을 맞추어주려고 하는 말임을 알고있다.

《부인도 정말 귀엽게 생긴 미인입니다.》 한다.

귀엽다는 표현은 맞는것 같다.

그런데 미인이란 말에는 나도 좀 의문이다.

《지금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하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그렇다.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귀엽다는 말과 미인이란 칭찬을 받지는 못했을것이다.

참, 묘한 기분이 들었다.

10. 백사장의 발자국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으로 비전향장기수들이 부인들과 함께 휴양갔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부부동반으로 백사장을 걸으면서 해돋이를 감상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부부가 백사장을 걸어간 발자국, 다정하게 두

사람이 걸어간 흔적을 남긴 발자국을 나는 바라 보았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백사장 발자국, 아! 그것은 한사람의 발자국뿐이다.

지금 은옥이가 있었다면 우리도 두사람의 발자국을 남기었을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야영 갔을 때 우리는 웅기앞 백사장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며 당과 조국에 충실한 일군이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생활하자고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었던가.

지금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속

에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다.

비록 지금 은옥이가 내곁에 없어도 항상 내 가슴속에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다.

지금 내 안해는 스물여섯살의 아름다운 젊은 모습으로 내 추억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 추억은 변함없이 간직하고있을것이다.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 죽는 날까지 인생의 참된 자욱을 뚜렷이 찍어나갈것이다.

비상소집

김영옥

호실들을 불난듯 두드리며

놀란 가슴들을 불러내는 급한 목소리

《비상소집이래...》

《비상소집이래...》

바쁘게 호실문들이 열리고

긴장한 얼굴들이 달려나오고

다급한 걸음들

회의실로! 회의실로!

무슨 일일가

큰 사고라도

급한 환자가...

하얗게 모여앉아

숨소리마저 죽인

긴장의 팽팽한 금선우에

엄숙하게 떨어진 원장의 지시-아니 명령

꽃목걸이

꽃다발

꽃보라를

30분내에 준비할것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던 그 탄부가

뼈를 주고 피를 주어 일떠세운 그 탄부가

오늘은 대지를 짓고

병원문을 나서니

그 가슴에 안기여줄

꽃목걸이

꽃다발

꽃보라...

식어가는 몸을 더웁히던 붉은 피는

뼈를 이어준 눈물겹던 소행은 덜 귀했던가

죽음을 딛고 일어난 그 한몸이 더 장해

향기로운 잎잎을 엮는것인가

나를 바쳐 너를 일으키는 이 시대

억만금을 던져 생명을 안아주는 그 인간사랑

아 고마운 내 나라가

불을 달아 일으킨 비상소집

꽃목걸이, 꽃다발, 꽃보라...

푸른 언덕

홍영남

맑게 개인 가을 어느날,
오늘은 방목공으로 일하는 말손자가 장가가는 날이다. 금옥은 온 가족을 앞세우고 《말잔등》 언덕이라 부르는 푸른 등판으로 올랐다.

그의 나이도 이제는 칠순고개를 넘어 방목일을 놓은지 오랬지만 녀인은 자주 여기에 오르곤 한다. 염소떼가 하얗게 널린 등판에서는 방목공 처녀의 청아한 노래소리가 푸른 산발너머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들 앉자꾸나.》

아들,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이 금옥의 주위에 빙 둘러앉았다.

금옥은 자기의 한생이 흘러간 푸른 등판을 생각깊은 눈매로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에게는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오랜 방목공으로서, 생활의 년장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이다.

1

한낮이 되여오자 세찬 눈발은 어느새 멎어버리고 따스한 햇빛에 길가의 눈은 시루떡처럼 뭉쳐졌다.

《이랴!》

눈덮인 벌판에서는 처녀의 되알진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거름달구지가 남긴 두줄기 자욱이 멀리 벌판 한끝까지 뻗어있었다. 넘적한 소잔등에선 김이 문문 피어올랐고 수건을 제껴버린 처녀의 당당한 코등엔 땀발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그래도 처녀는 잠시도 실념을 잃고 부지런히 거름을 실어날랐다. 하기야 제땅에서 힘껏 농사를 지어 봤으면 하는 대대로 내려오던 소원이 해방과 함께 성취되었으니 힘들것도 없었다. 그렇게 부지런한 덕에 금옥이네 집은 열성농민으로 군안에 이름이 자자했다.

마지막달구지를 물고 거름더미로 다가가는데 불쑥 한 청년이 앞을 막아섰다.

끼끗한 체격의 미남자였다. 보기 좋게 다스려 넘긴 머리모양새며 진중한 얼굴표정,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옷차림... 척 보기에든 학식이 있어 보이는 도시풍의 청년이었다. 도에서 살고있는 오빠의 소개로 벌써 두번째로 찾아오는 청년이었다.

《좀 생각해보았습니까?》

청년은 은근한 어조로 덧붙였다.

《빨리 결심하십시오. 행복이란 날마다 시간맞춰 다니는 완행렬차가 아닙니다. 기회란 한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지요.》

금옥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옥물었다. 상기된 처녀의 얼굴엔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고 아름다운 두눈은 착잡한 시선으로 멀리 벌판 한끝을 헤매고있었다.

《혹시 약속한 대상이라도 있는가요?》

청년은 초조감이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저...》

금옥은 더 말을 못잇고 고개를 숙이었다.

지금 그의 머리속에서는 어렴풋한 룡광으로 자리잡혀있던 산골청년이 싱글벙글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 처녀를 괴롭히고있었던 것이다.

마치 《동문 날 기다려야 하오.》 하는듯 싶어 처녀는 지금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고요한 들판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마침내 청년은 속이 답답한지 안타까운 어조로 웨치다싶이 물었다.

《무엇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때문에...》

청년에게는 농촌처녀에게 거절당할 하등의 리유도 없었던 것이다.

한동안 묵묵히 서있던 청년은 단념한듯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처녀의 침묵을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던 것이다. 청년은 후- 한숨을 내쉬며 맥없이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자꾸만 시끄럽게 군것을... 부디 행복하기 바랍니다.》

《잘... 가세요.》

금옥은 얼버무리듯 입속으로 말했다.

청년은 고르롭지 못한 발자국을 남기며 멀어져갔다.

금옥은 그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런듯이 서있다가 걸이대를 들고 두엄무지로 다갔다. 그리고는 마음속의 번거로움을 털어버리듯 거름을 푹푹 퍼실었다. 잘 썩은 거름더미에선 흰 김이 문문 피어오르고 들큰하면서도 쉬지근한 냄새가 주위에 퍼돌았다.

(내가 혹시 오늘을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나타나지 않을까? 그가 정말 오긴 올가?...)

처녀는 두그루 풍양나무가 흰눈을 소담하게 띄우고 거연히 서있는 동구박너머를 안타까이 더듬으며 지난여름 그 산골청년을 처음 만나던 때를

그려보았다.

...

《아저씨! 미안하지만 성냥 좀 없나요?》

《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길가던 손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처녀를 향해 돌아섰다. 순간 금옥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 사람은 아저씨라고 불리울만큼 나이드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허름한 농립모와 땀에 절은 무명저고리에 가리운 허우대 큰 몸에서 싱싱한 젊음이 뿜어나오는 청년이었다.

금옥은 부끄러워 몸둘바를 몰랐다.

청년은 순박해보이는 커다란 눈으로 금옥의 손에 들려있는 풀단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불쑥 손을 내밀었다.

《그걸 좀 봅시다.》

금옥은 엉겁결에 풀단을 그에게 내밀며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청년은 무릎을 꿇고 엉거주춤 앉더니 여러가지 잡풀이 뒤섞인 풀단을 이리저리 헤집으며 무슨 풀인가를 골라냈다. 자세히 보니 밭쪽과 개울가에 흔히 나는 개자리풀이었다.

청년은 함응قم되게 골라낸 풀대들을 모아놓고는 마디뚝은 손가락으로 자그마한 꼬투리모양의 풀이삭들을 툇툇 따다. 그리고는 장알박힌 큼직한 손바닥에 풀이삭을 몇개씩 올려놓고 썉썉 비벼서는 입바람을 훌훌 불었다. 그러자 도리끼에 얻어맞은듯 티검불은 말끔히 날려가고 까맣까뭇한 풀씨앗만이 남아 해빛에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런 풀씨앗은 모아 대체 뭘하자는걸가?...)

금옥은 영문을 알수 없어 청년의 행동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청년은 반죽도 안되는 풀씨앗을 놓고 진귀한 보물이나 얻은것처럼 싱글싱글하며 말했다.

《이건 양이나 염소들이 잘 먹는 개자리풀이라는거우다.》

《?!...》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산골방목공들은 이런 좋은 풀씨앗들을 모아두었다가 방목지에 뿌리곤 하지요. 이 씨앗들을 내가 가져도 일없겠수?》

《어서 그러세요.》

금옥은 꽤히 수락하였다. 자기는 그걸 짱그리 태워버리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하찮은 풀씨앗이 이 청년에게 그처럼 귀중한것이란 말인가.

청년은 허리춤에 질렀던 허름한 무명수건에 풀씨앗을 소중히 싸서 건사하고나서 주땃거리며 말했다.

《저- 거긴 연수리 한금옥동무지요?》

《어마나?! 저를 어떻게...》

금옥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지난해 가을 군에서 열린 농축산물품평회때

동무네 강냉이가 1등을 하지 않았수. 나도 그때 내가 키운 양들을 내놓았는데 그만 등수에도 들지 못했수다. 1등을 하구 무대에 올라 상이랑 타구 꽃다발이랑 받는 동무네가 어찌두 부럽던지... 그래서 거기 이름이랑 새겨두었던거우다.》

금옥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서서 신발 앞끝으로 땅바닥을 허비며 잠자코 듣기만 했다.

《난 저 원추풀이란데서 사는 우천이라고 하우다. 우리 원추풀은 산세가 하두 험해서 방목지도 변변한게 없는데다 땅이 너무 척박해서 막풀이나 자라지 이런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우다.》

이제부리라두 이런 좋은 풀씨앗으로 방목지를 잘 꾸려서 래년엔 어떻게 하나 송아지만한 양이랑 염소랑 내놓자구 하는데... 그래서 우리같은 산골놈들에게두 잘살 길을 열어주신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을 하자구들 너도나도 뛰고있는데...》

원추풀, 그 이름은 금옥이도 들었었다. 여기서 근 2백리나 더 들어가야 한다는 길디길은 산골막바지... 아직 한번도 가본적은 없지만 이 고장에서 원추풀은 사람못살 고장의 대명사로 되어있었던 것이다.

금옥은 해방전 그 사람못살 고장에서 고생스레 살아왔을 청년에 대한 동정심이 살아올랐고 축산을 잘해서 **김일성**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려고 아글타글하는 그의 열성에 감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처녀의 마음속에는 은연중 그를 도와주고싶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저- 가을에 다시 오세요. 그럼 제가 풀씨앗을 모아두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던 금옥은 그만에야 혀를 깨물며 말끝을 흐리마리해버렸다. 어떻게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는지 자신도 놀라울 지경이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우?》

청년은 어찌나 반가웠던지 열결에 손을 내밀러다가 얼른 움츠러뜨렸다. 얼굴을 붉히며 어쩔줄 몰라하는 청년을 뒤에 남기고 금옥은 웃음을 참으며 마을길로 줄달음을 놓았다.

그때부터 금옥은 그 산골청년과의 약속을 지켜 한알 두알 풀씨앗을 모았다. 어떤 때에는 길옆이나 개울가에 주저앉아 씨앗거둠을 하느라 해지는줄도 몰랐다.

그런데 어느날 밤 금옥은 한밤중에 깨어났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벌었으나 꿈속을 헤매었던 탓인지 눈이 새록새록해졌고 다시 잠자리에 들고싶지 않았다. 나직이 뜻모를 한숨을 쉬고난 그는 조용히 장을 열고 품평회때 상으로 받은 옷감을 꺼내들었다. 어머니가 레장감으로 간수해두었던 비단옷감이었다.

선뜻 가위질하기가 주저되었지만 허름한 무명수건에 귀한 보물처럼 풀씨앗을 싸서 건사하던 그 청년의 모습이 떠올라 입술을 옥물고 가위질을 했다.

가물거리는 등잔불아래서 처녀는 정성껏 바느질을 해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가... 마침내 자그마한 비단천주머니가 만들어지고 그안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풀씨앗을 한가득 채워넣었을 때 새벽닭이 첫새를 쳤다.

잠을 깬 어머니가 의아해서 물었다.

《그건 해서 어디 쓰려고 그러느냐?》

《...》

《원 계집애두... 새벽에 바느질하면 새아기될 조짐이라는데 너에게 신앙감이 생기려나보다.》

《어마나! 큰일날 소리...》

《큰일나긴... 그저 너자란 제때에 남편 잘 만나서 아들딸 많이 낳고 잘 살면 그만이야.》

《그게 너자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락후해!》

《허튼 소리 말구 오빠가 보낸다던 그 사람이 괜찮으면 올해중으로 잔치를 하자.》

어머니는 까만 실타래처럼 치렁치렁한 딸의 머리태를 쓰다듬다가 부엌으로 내려갔다.

금옥은 그런듯이 앉아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말대로 너자의 행복이란 그게 전부일가?

아니, 아니야... 금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너자의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또 자기가 어떤 행복을 바라고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기다리던 그 산골청년은 초가을 어느 새벽에 아무런 선통도 없이 나타났다. 물동이를 들고 박우물로 나갔던 금옥은 가을날의 쌀쌀한 밤공기에 시퍼렇게 얼어든 청년이 불쑥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다. 순박한 청년은 처녀의 집대문을 종시 두드리지 못하고 온밤 박우물결에서 기다렸던것이다.

금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청년에게 감동되었다고 할가... 만약 자기가 이 청년과의 약속을 소홀히 대했더라면 어쩔변 했는가.

처녀는 자기를 믿고 먼 길을 찾아온 그가 고맙게 생각되었다. 금옥은 동이를 내려놓고 날듯이 집으로 달려갔다.

비단천주머니에 가득찬 풀씨앗을 받아든 청년은 숯불처럼 이글거리는 눈길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자그마한 주머니안에 세상의 행복이 다 들어있거나 한듯 청년은 오래도록 거기에서 눈길을 땔줄 몰랐다.

《양들을 잘 키우세요. 그래서 다음번 품평회때엔 꼭 송아지만한 양들을 내놓으세요. 약속할수

있겠지요?》

《약속하우다. 내 꼭...》

청년은 더 말을 잊지 못했다. 그가 떠나려 할 때 금옥은 수집음을 무릅쓰고 치마폭에 감춰가지고 나온 딱딱딱한 고무마를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먼 길에 요기라도 하세요.》

청년은 무엇인가 말할듯 입귀를 실룩거리다가 몸을 홑 돌려 마을길로 씨엉씨엉 걸어갔다...

그때부터 금옥의 눈앞에는 온통 그 산골청년의 모습뿐이었다. 그가 꼭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쩐지 그 초가을 새벽처럼 아무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날것만 같아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얼마나 생각에 움뻐있던지 어느날 금옥은 물을 길러 나갔다가 빈 동이를 그대로 안고 들어온적도 있었다. 텅빈 물독은 처녀의 이상스러운 행동이 놀랍다는듯 입을 항 벌린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제야 처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빈 물독이 누군가를 기다려오는 자신의 텅 비여있는 마음처럼 생각되었고 다름아닌 그 산골청년이 자기의 허전한 마음속 공백을 가득 채워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나 청년은 여전히 나타날줄 몰랐다.

...

금옥은 검둥개가 반갑다고 치마자락을 물어당겨서야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어느새 집앞에 당도했던것이다. 마당안에 들어선 그는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버렸다. 퇴돌우에 놓여있는 낫선 신발들을 보았던것이다.

(누굴가?)

처녀는 호기심이 동해 방안에서 두런두런 울려나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예로부터 소는 길러 산으로 보내구 자식은 키워 도회지에 보내라구 했수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을 고이 길러 그 험한 원추풀에 보낸단 말이우? 아예 두말마시우.》

반가움에 뛴뛴하던 처녀의 가슴은 어머니의 목소리로 하여 싸늘하게 얼어들었다.

(왔구나! 그런데 이 일을 어쩌나?)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었다. 대답이 궁했던지 애꿎은 헛기침소리만이 방안의 뻥뻥한 분위기를 깨뜨려보려는듯 간간이 들려왔다.

한참후에 귀에 선 석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말이 옳수다. 우리 원추풀엔 옛날부터 시집오겠다는 녀자가 없어서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하고 그럴수도 없는 사람은 평생 홀아비로 늙어오는 사람 못살 고장이우다. 왜정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양 한마리 잃은것때문에 지주놈에게 맞아죽었수다. 아버지가 남긴 빚때문에 이 사람

은 열두살때부터 양몰이를 하면서 짐승처럼 자랐지요. 해방이 될 때까지는 양우리가 이 사람의 집이었수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동안 듣던 어머니는 더 참지 못하고 흑-흑- 흐느끼었다.

《그만하시우. 그 세월이야 누군들 고생이 없었겠수.》

《하지만 지금은 모든게 달라졌수다. 왜놈들도 쫓겨가구 우리 세상이 왔단 말이우다. 우리 산골 농민들도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은덕으로 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제 양을 방목하며 사람답게 살게 됐지요.

나라에서는 우친이 저 사람에게두 지주놈에게서 몰수한 양을 여러마리나 주었수다. 그 은덕에 어떻게 해서나 보답을 하겠다고 저 사람은 산에서 살다싶이 하며 아글타글하는데… 곁에서 도와줄 가까운 사람이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니 어머니, 다시 생각해보시우.》

어머니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에그… 나두 모르겠수다. 그 애 마음이 어떤는지…》

《허허… 그럼 됐수다.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구 처녀한테 무슨 판 마음이 있겠소. 팔밥하구 처녀총각사이느 돌수록 신다는데 우리 오늘중으로 약혼식을 해치웁시다.》

《애개개… 번개불에 콩담아 먹겠수다. 헌데 그 쪽에선?…》

《이거 인사가 늦었수다. 내 우친이 이 사람이 살고있는 원추골 세포위원장이우다.…»

나두 처음엔 저 사람의 속마음을 통 몰랐지요.

그저 한숨만 푹푹 쉬다가는 멍청히 하늘만 쳐다보곤 하는데 곁에서 보기에다 딱했수다. 그래 하루는 큰소리를 쳤지요. 이제부터는 형님이란 소리를 입밖에도 내지 말라고 울러뻤더니 저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형님! 나 장가들고싶소.> 하지 않겠소. 눈물이 납니다. 이제야 우리 세상이 왔는데 홀아비로 늙을 리유가 뭐겠소?

그래 봐둔 처녀가 있는가 물었더니 특별히 약속한것도 없대, 처녀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겠대, 게다가 이 궁벽한 산골에 누가 선풃 시집 오겠는가고 하며 한숨을 쉬는데 나두 앞이 캄캄해 집니다. 하지만 가만 있을수 있어야지요.

<당장 처녀네 집에 가자! 나라가 해방되었는데 사람인심이 그렇게 박정할테냐…> 그래서 이렇게 온길이우다.

우친이! 뭘하고있나? 갓고온 레장감이랑 장모님앞에 내놓으라구.》

처녀는 더이상 그 자리에 서있을수 없었다. 그를 기다려온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기쁨과 마음속에서 움터난 첫 사랑을 꽃피울수 있

게 되었다는 순정의 환희가 처녀의 가슴을 높히게 했던것이다.

문밖을 뛰쳐나온 금옥은 발길닿는대로 향방없이 달렸다. 쟁쟁하던 하늘에서는 신기하게도 눈썹치가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다. 새털처럼 가볍고 포근한감을 주는 흰눈은 처녀의 래일을 축복하듯 차츰 세차게 내렸다.

눈부신 해빛에 흰 꽃보라처럼 반짝이며 아득한 공간에서 쏟아져내리는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처녀는 행복에 겨워 속삭이였다.

(우린 행복할거야! 그렇지, 흰눈아!)

2

원추골에서의 첫날밤…

행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 밤에 금옥은 종시 잠들수 없었다.

《생각했던것보다 더 놀랐을거요. 이 외진 산골에와서 당신이 고생하게 되었수.》

원추골에 당도했을 때 남편이 미안쩍은 표정으로 한 말이였다. 금옥은 산골생활이 힘들것이라고 각오는 했지만 그래도 순박하고 믿음직한 남편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와보니 원추골은 너무도 험한 산골이였다. 넓고넓은 하늘은 높은 산발들에 둘러막혀 손바닥만하게 울려다보이고 집들도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한두채씩 널려 있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건만 금옥은 잠이 오지 않아 몸을 뒤척이다가 아예 일어나 앉고 말았다.

문을 빠끔히 열고 밖을 내다보니 캄캄한 어둠과 소름끼치는 맹수의 울음소리에 머리카락이 쭈뼛해졌다. 그는 얼른 문을 닫아버렸다. 문고리를 쥐고 한참 바재이던 그는 더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을 조심히 흔들어 깨웠다.

《왜 그러우?》

남편은 잠에 취한 소리로 물었다. 금옥은 얼굴을 붉히며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밖에 좀 함께 나가요.》

《무슨 일이요?》

남편은 얼른 일어나 앉았다.

《무서워서…》

그제야 금옥의 말뜻을 알아차린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문을 활 열어제겼다.

《허참… 어린애처럼 무섭긴.》

다시 자리에 누웠을 때 금옥은 남편의 넓은 가슴을 파고들며 물었다.

《당신은 무섭지 않아요?》

《무섭긴 뭐가 무섭겠소? 왜놈도 지주도 없는 우리 세상인데… 이제 당신도 여기에 정이 들거요.》

《그렇게 될가요?》

…며칠후부터 금옥은 양방목을 배우기 시작했다.

원래 눈썰미있고 이악하기로 처녀때부터 소문이 났던 그인지라 얼마후부터 가까운 산에서 하는 방목은 혼자서도 해내게 되었다.

…아침이면 우리안의 양들을 몰아낸다. 후끈한

열기에 뒤섞인 양누린내가 청신한 아침대기속으로 기분 좋게 퍼져나간다. 간혹 맛있는 풀만 먹느라고 무리에서 떨어졌던 놈들도 금옥이가 회초리를 휘두르면 심술을 부리지 않고 제격 무리를 따라서군 했다. 온순한게 양이라더니…

시간맞춰 물을 먹이고 풀판을 옮기군 하는 방목일에는 일종의 낭만적인데가 있었다.

요즘 남편은 《말잔등》 언덕이라 부르는 넓은 산등판에 샘터를 만들어놓느라 금옥은 며칠째 혼자 방목을 하군 했다.

《어제도 양들을 잘 먹었더군.》

아침에 방목길에 나서며 남편은 안해를 칭찬해 주었다.

《제가 뭐 방목일도 제대로 못할줄 알았어요? 양들도 령리한데가 있어요. 산속으로 방목을 다닐 때엔 수십마리의 양들이 제 뿔뿔이 달아날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당신도 방목일에 재미가 붙는게로구만.》

《그런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세요. 부엌당반을 매야겠는데… 갖고 온 그릇이랑 단지랑 아직 들여놓지도 못했어요.》

《알겠소!》

남편은 시원스레 대답하며 삽과 곡괭이를 메고 산으로 올라갔다.

금옥은 갓 등지를 트는 부지런한 메새처럼 요사이 집을 꾸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산짐승가죽이 사방 붙어있던 바람벽엔 시집을 때 가져온 도배지를 발랐고 반질반질 때가 오른 돗자리를 깔았던 방바닥엔 장판을 하고 콩물까지 발라 알른 알른 대우를 냈다. 구멍이 송송하면 창문엔 하얀 창호지를 바르고 농우에 그냥 얹혀있던 이부자리에는 처녀때 째째이 떠놓았던 흰 이불보를 쳤다. 그러자 구석구석 남아있던 로종각의 구점스러운 세간살이체취는 가셔지고 알뜰한 너자의 향취가 방안에 차고 넘쳤다.

그날도 금옥은 방목을 일찌감치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반위치도 잡아보고 널판자며 각자따위를 꺼내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노루꼬리만한 산골해가 마지막잔광을 남기며 서산으로 기울어질 때까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참다 못해 그는 큼직한 망치와 톱을 찾아들었다.

자르고 박고… 서둘러 망치를 휘두르던 그는 《아!》하고 비명을 지르며 망치를 떨구어버렸다. 망치가 빗나가면서 손가락을 때렸던것이다. 아픔이 뼈속까지 파고들었고 눈물이 쿡 솟아올랐다. 그 순간 아직까지 돌아올줄 모르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함께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쓸쓸하고 허전한 감정이 그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남편은 밤이 켜 깊어서야 돌아왔다. 봉대를 싸맨 안해의 손가락과 좋지 않은 기색을 일별한 남편은 그제야 생각난듯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내 그만 잊었됐소. 샘줄기를 찾은 바람에 너무 기빠서 그 주변을 손질하다나니…》

남편은 샘을 찾았다고 기뻐했으나 그 기쁨은 금옥의것으로 되지 못했다. 금옥은 남편이 가정 생활에 애착을 못가지고 있는것만 같았다. 해방전 중태기에 남비 하나를 넣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양치기생활을 해온 《유목민》 습벽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는걸가. 아니면 가정의, 구체적으로는 금옥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가?… 금옥은 몸을 뒤적이며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금옥은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옥땀했던 마음이 봄눈처럼 사라져버리는것 같았다. 어느새 일어났는지 남편은 어제저녁 자기가 하다가 썰개친 당반을 희한하게 만들어놓았던것이였다. 널판자도 매끈하게 대패질하고 받침대도 얼마나 맵시있게 만들었는지 저절로 감탄이 새어나왔다.

(이렇게 손재간이 좋으면서 왜 집꾸릴 생각을 안한담… 그런데 어딜 갔을가?)

집주위를 한바퀴 돌아본 금옥은 양우리에 가보았다. 남편은 거기서 참나무토막을 타고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어쭙게 웃으며 변명조로 말했다.

《새끼뻔 어미양의 배를 가리워주자고… 덤불속을 싸다녔는지 젖통이 굼혔더구만.》

금옥은 모닥불이라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해졌다. 어제 방목을 일찍 끝내려고 양들을 풀숲으로 때려몰던 일이며 골짜기로 덤벼치며 양무리를 옮겨가던 일들이 떠올랐던것이다.

금옥은 한마디 욕설은커녕 제손으로 배땀을 만들고있는 남편앞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제가 하겠어요.》

남편은 오히려 제쪽에서 더 미안해하는것 같았다.

그날부터 남편은 한시도 양우리를 떠나지 못했다. 어미양이 오늘래일로 《해산》할 날자가 림박했던것이다. 똥똥한 배를 옥초우에 깔고 누워 운신조차 못하는 《산모》를 간호하느라 남편은 물론이고 금옥이까지 온밤을 지새웠다. 밤새 진통을 겪고난 어미양은 날이 샅녘에야 순조롭게 쌍

둥이를 낳았다.

《여보! 해방된 이 땅에 복둥이들이 태어났소! 하하...》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을 낳는 법인지... 금옥은 그즈음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또 하나의 《사변》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있었다. 그것이 분명 새 생명이 태동하는 징조임을 확신했을 때 그 녀자는 끝없는 환희에 휩싸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달콤한 꿈속에 잠기곤 했다.

그런데...

꿈이 달면 인차 깨어진다더니 그해 여름 조국 해방전쟁이 터졌다. 남편은 전선으로 떠나는 날 까지도 건초를 베어들었다. 양들의 겨울나이먹이를 마련하자면 한여름철이 제일 바쁜 때였던 것이다.

남편은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변조차 잊은 듯 진종일 산갈은 풀더미를 가려놓는데만 정신을 쏟았다.

떠날 시간이 되어서 남편은 씨앗주머니를 퇴기 등에 단단히 매달아놓고 안해와 작별했다. 금옥이가 처녀때 만들어주었던, 두사람사이에 인연을 맺어준 그 비단천주머니였다.

《이 씨앗주머니를 잘 건사하오. 풀씨도 항상 그득그득 채우고... 이 주머니가 넘쳐나야 우리 행복도 넘쳐나는게 아니겠소. 그러구보면 이 주머니가 우리에게 있어선 복주머니 한가지거든.

전쟁을 이기구 돌아와서 이 복주머니의 씨앗으로 방목지를 더 잘 꾸리구 우리 한번 본때있게 일해보지요.》

남편은 떠나가고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다.

양방목, 전선원호... 그 세찬 흐름에 휘말려 금옥은 눈코뜰사이없이 바빠 돌아갔다. 파중한 피로때문에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신발테두리가 팽팽해지도록 발창등이 부어오르곤 했다. 그래도 밤늦게 집에 들어서면 숨처럼 나른해진 육체에 쓸쓸한 고독감이 잊지 않고 찾아들곤 했다. 이렇게 힘들 때 남편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까? 나와 이제 태어날 아기에 대해 생각할까? 아니야! 그인 아마 양들을 더 걱정하고있을거야. 어쨌든 제발 몸성히 돌아왔으면...)

그리움에 겨워 너인은 베개잇을 축축히 적서놓고서야 쪽잠에 들곤했다.

어느날엔가 원추꼴에 한명밖에 없는 산파녀인이 금옥의 집을 찾아왔다.

《이달이 해산달이라면서?》

《어마나, 그걸 어떻게?...》

《세포위원장이 나한테 찾아왔더군. 임자가 혼자 있다가 큰일날수 있다면서 날더러 오늘부터

여기서 살라는거야.》

《세포위원장이저씨가요?》

그제야 금옥은 엇그제 세포위원장의 처가 해산달이 언제인가고 지나가는 말처럼 묻던 일이 생각났다. 사실 금옥은 본가에 가서 몸을 풀 작정이였다. 마을에 진료소는 고사하고 조산원도 없는데다 집들도 골짜기마다 한두채씩 널려 있어 외딴 집에 혼자있다가 진통이 오면 어쩌나 하고 은근히 걱정스러웠던것이다. 밤중에 본 어둑서니 불수록 커진다고 처음 당해보는 일이어서 생각할수록 두렵기만 하던 일인데 세포위원장이 그렇게 마음써줄줄이야.

《글쎄 내가 제집 세간살이 팽개치고 언제 팔-할지 모르는걸 어떻게 기다리겠는가고 했더니 무슨 당적분공이라면서 으름장을 놓더군.

그래서 <당적분공이라는데 뭐요?> 했더니 그제 법이나 같은거라나. 그러니 낸들 법을 어기는수가 있어야지. 내 이제부터 그림자처럼 딱 붙어서 한달이구 두달이구 해산방조까지 다 해줄테니 걱정말라구. 산골인심이라는데 그리 박하지는 않아.》

《고마워요. 아주머니.》

산과 들에 봄빛이 질어가던 어느날, 새벽려명이 동쪽 산마루를 물들일 때 금옥의 집에서는 새생명의 고고성이 힘차게 터져올랐다.

아들이였다. 모두들 제집 경사처럼 기뻐하며 닭알이며 산골이며 이 산골에선 귀한 미역까지 들고 왔다.

남편은 전선에서 보내온 편지에서 아들의 이름을 철룡이로 부르자고 써보내었다.

《...우리 그 애를 훌륭한 방목공으로 키우자구.

그래서 미국놈을 몰아내고 승리한 땅에서 평평거리며 잘 살아봅시다. 지금 내 눈엔 우리 고향만 아니라 이 땅의 산과 들에 염소때, 양떼가 구름처럼 흐르는 모습이 눈에 선하오. 그 구름바다 한복판에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들 철룡이가 나란히 서있소...》

(아이 참, 그인 아마 세상에서 방목공이 제일인 줄아나봐.)

그러던 어느날 미국놈들의 비행기는 그 외진 산골마을에도 달려들었다. 놈들이 떨군 소이탄에 산들이 불타고 집들도 불길에 잠겼다.

방목지에서 허둥지둥 달려온 금옥은 서슴없이 그 사나운 불길속에 뛰어들었다. 몇가지 집세간을 겨우 건져냈을 때 기둥이 와지끈-소리를 내며 집이 통채로 주저앉고 말았다.

꺼먼 재무지만 남아 연기를 피워올리는 집터앞에 그는 망연히 서있었다. 행복이 넘치던 보금자리를 순간에 잃어버렸으니 이제 무슨 낮으로 남편을 맞이한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하고 눈앞

이 캄캄했다...

그 이듬해 전승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상봉, 승리자의 희열...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기쁨과 환희도 컸지만 상실의 아픔을 단번에 가져주지는 못했다. 불타버린 땅,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전선에서 돌아온 남편은 불탄 집터앞에서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속에는 아직도 타버린 잔해들이 삐죽삐죽 솟아있었다.

《너무 상심말게. 그래두 사람이 살아남지 않았다. 철룡이도 잘 자라고... 이제 사느라하면 세간살이들이야 생겨나겠지.》

세포위원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으나 남편의 얼굴은 밝아지지 못했다.

《세포위원장형님! 내 그래서가 아니우다. 불탄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요.》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나?》

아바이는 가볍게 책망했다. 남편은 침통해진 얼굴을 숙이며 힘겹게 말했다.

《전... 너무도 귀한걸 잃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세간 귀한줄은 알면서 씨앗 귀한줄은 모른단 말이우다. 농사군은 굶어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데 방목공이라는게...》

한줄기 서늘한 바람이 금옥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자기는 보금자리를 잃었다는 엄청난 슬픔으로해서 감감 잊어버리고있던 그 자그마한 씨앗주머니가 남편에겐 그렇게 큰것이었던 말인가.

금옥은 우듬지가 타버려 몽둥이처럼 되어버린 돌배나무아래서 남편에 대해 생각했다. 남편은 그새 많은것이 달라진것 같았다. 순박하고 어질기만 하던 표정은 심각해진듯 싶었고 온순하던 눈빛도 예전보다 날카로워졌다. 아, 전쟁이란 이렇게 무자비한것인가. 남편에겐 전쟁의 불길속에서 살아남은 안해와 자식보다 풀씨앗이 더 귀한 말인가...

어느덧 새봄은 또다시 이 땅에 찾아왔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은 대지는 날마다 푸르러갔다. 파아란 봄하늘밑에선 풀싹들이 하나둘 파릇파릇 움터올랐다.

남편은 비루먹은 소잔등처럼 군데군데 맨땅이 드러난 방목지에 씨를 뿌려보려고 건초더미를 헤치며 씨앗을 찾아내곤 했다.

어느날 금옥은 마구간에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교쟁이질을 하고있는 남편을 띄여보고 가까이 다가갔다. 도대체 뭘하는가 해서 어깨너머로 바라보니 남편은 마른 말뚱무지를 헤치며 씨앗들을 골라내고있는것이였다.

《아, 당신이요? 이걸 좀 보오. 말 못하는 짐승도 맛있는 풀만 골라먹었구만. 이젠 됐소! 래일부

터 짐승우리들을 몽땅 들춰서 거름을 <말잔등>언덕에 냅시다. 그럼 땅도 걸구고 그속에 섞여있던 씨앗들은 저절로 씨불임될거요.》

남편은 싱글벙글 웃고있었다. 잃었던것을 되찾은듯한 기쁨에 웃고있는 남편을 바라보느라니 금옥은 자책감에 가슴이 졸아드는것 같았다. 자기가 그 씨앗주머니를 태워버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남편이 고생하지 않을걸...

《용서하세요. 저때문에...》

《좀 앉지요.》

남편은 마구간옆의 건초로 자리를 마련해주고 담배쌈지를 꺼내들었다.

《당신이 그새 애를 데리고 고생이 많은줄 내 모르지 않소. 그러나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건 어느때나 났을 지니고 사는거요. 집재산같은건 없다가도 생기지만 사람의 났은 그렇지 않거든. 씨가 없는 열매를 생각해보우. 아무리 크고 싹한 열매라도 씨가 없으면 끝장이거든.》

옛날부터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겨야 한대구 하지만 난 이름 석자보다 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우. 누구나 다 세상에 이름이 남도록 살수는 없거든. 허허...》

금옥은 달아오른 얼굴을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다. 남편의 말을 다는 리해할수 없었으나 뭘가 크고 귀중한것을 자기에게 심어주려 한다는것만은 똑똑히 느낄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그때 다 알았더라면...

3

그후 남편의 말대로 원추골은 천지개벽이 되어갔다. 이 산골에도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전기불이 들어오고 기와집이 일떠섰다. 마을앞 들메나무에 매달아놓은 고성기에서는 약동하는 새 생활의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다. 그중에서도 원추골을 제일 들썩하게 한것은 나라에서 산골농민들의 생활을 넘려하여 술한 종자양들을 보내준것이였다.

불그스레한 석양이 산마루를 비치고 깊은 골짜기엔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했다.

벌써 방목을 끝냈는지 한무리의 양떼가 건너편 등판에서 천천히 내려온다.

《철룡이네도 빨리 가자요! 우리 마을에 영화가 왔대요!》

애젊은 방목공이 금옥이에게 소리치는것이였다.

금옥은 어쩐지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이 산골에도 영화가 오다니...

《여보! 우리도 빨리 가자요!》

금옥은 마음이 초조해져서 남편에게 소리쳤다.

남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안해를 돌아보았다. 산비탈 방목길에 돌담을 쌓느라 며칠째 땀을 흘리던 남편도 영화구경이라는 말에 귀맛이 동하는 모양이었다.

《당신은 양들을 몰고 먼저 내려가 차비하오. 내 제걱 끝내고 내려가겠소.》

금옥은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왔다. 울타리를 빙 둘러친 양우리에 양들을 몰아넣으면서 세여보니 한마리가 차이나는것 같았다. 잘못 세지 않았나 하고 금옥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산에서 내려올 때 별다른 일이 없었으니 분명 잘못 세였을것이라고 그는 자신을 위안했다. 시간이 바쁘데 언제 이것들을 몽땅 몰아냈다가 하나씩 다시 세여넣는단 말인가!

서둘러 저녁을 지어먹은 금옥은 벌써 여섯살잡힌 철룡이에게도 옷을 입혀주고, 거울앞에 서서 이것저것 새옷을 입어보았다. 결혼식때 입었던 비단치마저고리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연하게 화장까지 하고나니 누구에게 짝지지 않을듯 싶어 금옥은 마음이 즐거워졌다.

프락에서 마차를 메우던 남편은 새옷을 입고 나서는 안해를 놀란듯 바라보았다. 병싯하게 열린 그의 입가엔 찬란의 미소가 어리었다.

《멋있구만. 선녀가 왔다가 울고 가겠소.》

《당신두 참. 놀리긴...》

《정말이요! 철룡아! 네가 말해봐라. 엄마 곱지?》

《응! 그런데 난 새끼양이 더 곱와!》

《하하하... 여보! 들었소? 이엔 틀림없이 훌륭한 방목공이 될거요.》

《원 애두...》

그들은 마차에 나란히 앉아 웃고 떠들며 시오리 남짓한 리소채지로 떠났다.

돌아오는 길엔 기분이 별로 울적했다. 밤정적이 깃든 산길엔 푸벅거리는 말발굽소리만 달빛어린 숲속으로 퍼져갈뿐이었다. 어디선가 지쳐버린 듯한 밤새의 울음소리가 맥없이 울려왔다.

잠에 취한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는 금옥에게는 영화에서 받은 감동보다도 영화가 끝난뒤 영사막으로 리용되였던 리선전실 벽체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던 화려한 장면들이 사라지고 비물에 얼룩진 텅 빈 회벽체가 외등불빛에 드러났을 때 금옥은 별스레 허전함을 금할수 없었다. 행복만을 바라던 자기의 꿈과 리상도 화려한 영화화면처럼 사라져버리고 빈 영사막같은 산골생활의 고달픔만 남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과 위구가 그 녀자의 마음을 쓸쓸하게 했던것이다. 산골생활이 과연 이 불안감을 가져줄수 있겠는가...

그의 가슴속에서는 터쳐놓지 못하는 불만이 슬

며시 차올랐다. 하지만 이 산골의 방목일을 천하의 으름으로 아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라...

캄캄한 밤하늘에서 느닷없이 둔중한 천둥소리가 메아리쳐왔다. 그러더니 조금후엔 번개가 불안스럽게 밤하늘을 가르고 요란한 천둥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사위는 먹물이라도 뿌린듯 캄캄해지고 비꼬치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마차우에 엉겨주춤 일어서서 연방 채찍을 휘둘렀다. 마차는 사정없이 들추어대며 험한 산길을 위태롭게 달렸다. 비발은 점점 더 세차지고 금옥의 나들이옷은 어느새 흠뻑 젖어버렸다.

《천천히 모세요. 아무래도 옷이 다 젖었는데.》

《양우리에 빨리 가봐야겠소. 이렇게 번개가 치면 양들이 놀라 우리에서 달아날수 있단 말이요.》

금옥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녀자인가. 남편의 생각은 온통 양우리에 가 있는데 자기는 새옷이 젖을가봐 말을 때려모는줄로만 알았으니...

집앞에 마차를 세운 남편은 금옥을 내려놓고 서둘러 양우리로 달려갔다.

그런데 조금후에 다급한 발자국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여보! 양 한마리가 없어졌소!》

《예?》

《당신이 방목지에서 돌아왔을 땐 분명 다 있었겠지?》

그제서야 금옥은 아까 자기가 잘못 세지 않았다는것을, 분명 방목지에서 급히 오던 길에 한마리를 잃어버렸다는것을 깨달았다.

《아니, 저...》

남편은 안해가 떠뜸거리며 하는 말을 채 듣지도 않고 대번에 노기를 띠었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하우? 예익!》

그것은 금옥이 남편과 함께 살오면서 처음으로 들어본 큰소리였다. 남편은 성난 표정으로 안해를 노려보다가 저벅저벅 대문가로 걸어나갔다.

《아니? 어딜 가요?》

《양을 찾아야 할게 아니요? 그게 어떤 양이요. 나라에서 우리 산골농민들도 잘살라구 보내준건데...》

《정신있어요? 이 밤중에...》

남편의 눈길은 어둠속에서 날카롭게 변덕이였다. 부드럽기만 하던 남편의 눈빛에 습관되였던 금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렸다. 한동안 안해를 바라보던 남편은 무슨 말인가를 더 할듯 하다가 그대로 발길을 돌려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얼어 붙어 버렸다.

금옥은 남편을 따라나설 생각도 잊고 대줄기

같은 비발속에 몸을 맡긴채 오래도록 서있었다.

《여보! 너무해요. 양 한마리가 뭐라고...》

비는 온밤 그치지 않았다. 세찬 폭우는 온 세상을 통채로 잠그어버릴듯 억수로 쏟아지고 바람은 우-우- 태질하면서 미친듯 불어쳤다.

금옥은 아궁앞에 쪼그리고 앉아 이제나저제나 남편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차츰 가늘어졌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으나 금옥은 더이상 앉아 기다릴수 없어 불망치를 해들고 집을 나섰다.

산속은 뽀얀 안개비속에 묻혀있었다.

《여보!- 여보!-》

그의 애타는 부름소리는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깊은 산속에선 가느다란 메아리만 되돌아왔다. 미끄러운 풀숲에 넘어져 무릎에선 피가 흐르고 얼굴이며 손등도 사방 핏퀴였으나 그는 아픈줄도 무서운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헤매었다.

그러다가 금옥은 문득 가느다란 양울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나는 쪽으로 허둥지둥 달려가던 그는 눈앞의 광경에 그만 정신이 아찔해졌다.

마치 거대한 갈퀴로 긁어낸듯 한쪽 산비탈이 몽청허물어져 내렸는데 남편은 반나마 그 흩사태에 묻혀있었다. 온통 피범벅이 된 옷자락, 상처투성이 얼굴, 찌진 불망치... 쓰러진 남편의 품에 꼭 안겨있는 새끼양이 공포에 질린 새노란 눈알을 굴리며 애처롭게 울고있었다.

《여보! 이게... 이게 무슨 일이요. 여보!》

...그후에 일어난 일들을 금옥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터져오르는 곡성, 슬픔을 더해주며 타오르던 향불, 술내것은 조객들의 탄식...

《글쎄 양 한마리가 뭐라고...》

누군가 취중에 억이 막혀 껌껌거리며 한 그 말이 벼락같이 흘러가버린 남편의 장례식 뒤끝에 웅이처럼 그의 가슴에 들어박혀 유일하게 남은 기억이었다. 어찌보면 남편의 길지 않은 생이 집약되어있는 말이기도 했다. 실로 남편은 그 한마리의 양때문에 아버지를 잃었고 그때문에 어릴적부터 고역살이를 시작했으며 오늘은 그 한마리의 양을 위해 목숨을 잃은것이다.

...금옥은 그것이 가슴에 맺혔고 남편의 희생과 함께 자신의 행복에 대한 꿈도 산산이 깨어져버렸다는 상실의 아픔으로 하여 앞이 캄캄했다.

4

며칠간 허탈감에 빠져 자리에 누워있던 금옥은 점점 더 커지는 피로움을 견딜수 없어 일감을 찾아들었다. 며칠 더 쉬라고 사람들이 권고했지만 그는 하루종일 피약벌에서 풀을 베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허리가 끊어질듯 아팠지만 그런 육체적고통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되었다. 그것마저 없으면 잊으려고 애쓰는 슬픔이 또다시 머리를 쳐들가봐 두려웠던것이다.

그 덕분에 저녁이면 온몸이 땅속에 잦아드는듯한 피곤이 몰려들곤 했지만 정작 잠자리에 누우면 정신이 새록새록해지면서 남편에 대한 생각이 가슴을 지지군 했다.

...슬픔속에 날이 가고 달이 지나 어느덧 1년세월이 흘렀다. 집에 편지도 안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뜻밖에도 어머니가 찾아왔다.

혼자 살기 적적하다면서 몇년전에 도시에 있는 오빠네 집으로 이시간 어머니는 딸의 불행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백리 먼길을 허둥지둥 달려온 것이다. 어머니는 금옥을 부둥켜안고 울기만 했다.

《실컷 울자꾸나. 그럼 아픈 마음이 좀 후련해진다.》

눈물을 찼찰 흘리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위안해주는 어머니의 주름깊은 얼굴을 바라보며 금옥은 더욱더 설음이 복받쳐올랐다.

《이제부터 남편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러니 딴 생각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어머니는 품속에서 오빠의 편지를 내밀었다.

《...》

금옥아! 사람의 인생이란 미리 예측할수 없는 것이니 어찌겠니... 난 네가 언제까지나 슬픔에만 잠겨있지 말고 희망을 안고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기 바란다. 너야 아직 젊은 나이가 아니냐?... 여기에 맞춤형 대상자가 있으니 바람도 쏘일겸 한번 다녀가거라. 네가 우천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해 하는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기는 괴롭다만 어쨌든 너도 남들처럼 행복해야 할게 아니냐? 사람의 행복이란 많은 경우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린거란다. 네가 처녀때 내 소개신을 가지고 너를 찾아갔던 그 사람이 지금은 도축산처에서 일하는데 우리 옆집에서 살고있다. 네가 그때 결심을 옳게 했더라면...》

금옥은 편지를 맥없이 떨구어버리고 방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래 어찌겠느냐? 네 나이에 평생 이 산골에서 과부로 늙을수야 없지 않느냐?》

어머니의 독촉에 금옥은 아무 대꾸없이 다래끼를 메고 대문을 나섰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이 고장에서 믿고 의지할 기동도 없이 외롭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차라리 아무런 미련도 없이 여기서 떠나버리고 말가...

어느날 아침 방목을 떠나려는데 작업반실앞에 전부 모이라는 연락이 왔다. 금옥은 양우리를 청소하느라 맨 나중에야 작업반실로 갔다. 함께 일

하는 방목공치너가 깔고앉았던 나무토막을 밀어 놓으며 자리를 권했다.

《무슨 모임이래?》

《우리 원추골이 신문에 난걸 독보한대요.》

금옥은 이상하게 가슴이 높뛰었다. 이런 두메 산골이 신문에 다 나타나니?!...

마침 신문을 접어든 세포비서아바이가 사람들 앞에 나섰다.

《동무들! 어제 <로동신문>에 우리 원추골소식이 큼직하게 실렸수다. 옛날 사람못살 고장으로 소문났던 우리 고장이 천리마시대에 와서 기와집이 생겨나고 전기불을 보게 되고 골짜기마다 양떼, 염소떼가 구름처럼 흐르는 살기좋은 락원으로 천지개벽되었다는 소식이우다.

그리구... 박우천동무에 대한 이야기도 실렸소. 한마리의 새끼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참된 애국자라고, 그런 훌륭한 사람을 낳은 우리 고장은 앞으로 더 잘살 날이 꼭 올거라고...》

아바이는 목이 메어 더 말을 잊지 못했다.

금옥은 낯색이 하얗게 질렸다. 더이상 아무말도 들리지 않고 웅- 하고 전류흐르는 소리만 귀전을 멍멍하게 했다. 그는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났는지 몰랐다. 자기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세포비서아바이가 저녁에 그 신문을 들고 집에 찾아왔을 때야야 이 모든게 현실이라는것을 믿지 않을수 없었다.

《신문을 잘 건사해두시우. 나라에서 우천이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니 내 마음이 한결 풀리는것 같수다. 애국자란 말이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지는건 아니지요...》

금옥은 지금에야 비로소 남편의 희생이 자기에겐 슬픔만 가져다준것이 아니라는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자기는 여태 남편이 양 한마리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남편이 양 한마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라고 말하고있지 않는가. 잃었다는것과 바쳤다는것사이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는것이다. 이제 와서 금옥은 자기가 절대로 남편을 잊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어쩌서 부디 잊으려 했던가.

(아, 나는 과연 앞날을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장마철도 지나가던 어느날 금옥이 말은 양우리에서 뜻밖의 사고가 생겨났다. 몇마리의 양들이 병해충의 피해로 쓰러졌던것이다.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 《말잔등》방목지가 풀진드기에 오염되었다는것을 밝히내게 되었다. 아무리 좋은 풀판이라도 새풀이 돌아나게 일정한 기간씩 비우군해야 하는데 금옥은 그동안 이동방목을 다니기 싫어 온 여름내 그 방목지만 리용했던것이다. 그

러니 풀판은 매일같이 양들에게 밟히우고 장마비에 계속 젖어있어 병해충의 발생조건으로 되었었다. 조합에서는 당분간 그 방목지의 폐기문제가 지 제기되었다.

사고가 생긴 날부터 금옥은 제 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풀판이 그렇게 되도록 정신을 어디에 팔았어? 그게 어떤 풀판이라고... 철룡이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의 눈앞에는 전선에서 돌아온 남편이 《말잔등》언덕에 기름진 풀판을 조성하려고 아글타글에쓰던 모습들이 생생히 떠올랐다.

금옥은 도축산처에 방목지폐기를 반대하는 편지를 보내놓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지겠는지...

며칠후 도축산처에서는 제기된 문제를 료해하기 위해 검열성원들이 내려왔다.

그날도 피로운 마음안고 《말잔등》언덕에 올라가있던 금옥은 현지조사를 위해 풀판을 찾아온 검열성원을 알아본 순간 한자리에 굳어져버렸다. 삭막해진 기억속에서 번개치듯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던것이다. 해방후 눈덮인 고향벌판, 거름달구지, 점잖은 차림의 미남자... 알곳은 운명이라더니 어쩌면 이런 처지에서 이 사람을 만난단 말인가. 얼마전 오빠의 편지에서 이 사람이 도축산처에서 일한다더니...

그 사람도 금옥을 알아보았다.

《그러니 박우천동무의 안해가 바로 동무였군요. 오빠의 말을 들으면서 예감했었지만 설마했더니... 참안됐군요.》

《오래간만이예요.》

따분한 침묵이 흘렀다. 금옥은 어서빨리 자리를 뜨고싶었으나 그 사람은 할 말이 있는듯 움직일념을 안했다. 한참만에야 그 사람은 안경을 추스르며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알고보니 동무의 남편은 참 훌륭한 사람이였습니다. 그의 희생은 누구나 쉽게는 할수 없는 영웅적이고 값비싼것이라고 할수 있지요. 난 결코 동무를 위로하자고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남편이 가꾸던 이 풀판에 서있는 동무를 보니 방목지폐기를 반대한 리유를 알만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진심이 비껴있었다. 금옥은 고개를 숙이고 방금 들은 말들을 음미해보았다.

그의 말이 옳았다. 사실 남편은 그 한마리의 새끼양에서 잃었던 조국을 보았고 그래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기어이 찾아낸것이 아니겠는가. 다시는 노예로 살지 말자고, 자기 고향 원추골을 락원으로 꾸려보자고... 그래서 남편에게는 그 한마리의 새끼양이 잃어서는 안될 행복이었으며 목숨바쳐 지켜야 할 조국이었던것이다.

그런데 금옥이 자기는...

금옥의 복잡한 심정을 알리없는 그 사람은 격정에 넘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난 동무가 남편의 녀이 깃들어있는 이 방목지를 영원히 지켜가려는 그 결심을 지지합니다. 그건 먼저 간 사람의 녀를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결심이지요. 참된 녀를 지니고 산 사람은 그렇게 영생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그런 훌륭한 사람을 사랑해온 동무는... 행복한 셈입니다.》

금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모진 피로움에 입술을 바르르 떨며 온몸의 힘을 모아 날카롭게 웨쳤다.

《아니예요!》

그 사람의 말을 부정하는 금옥의 새된 웨침소리는 《말잔등》 언덕을 넘어 아득한 하늘공간으로 퍼져나갔다.

영문을 몰라 굳어져버린 그 사람을 뒤에 남기고 금옥은 얼굴을 찡찡해 정신없이 달렸다.

뜨거운 걱정과 쓰라린 자책감이 심신을 마구 흔들어대는듯 싶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한 너자란 말인가? 난 불행한 너자다! 아무것도 모르고 청맹파니로 살아왔으니 불행할수밖에... 내가 진정 남편의 녀를 사랑했다라면 원추꼴을 떠나려 하지부터 앓았을것이고 풀판을 못쓰게 만들지도 앓았을게 아닌가.

파연 나는 어째서 지금껏 방황했는가?)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갔다고 해서 그 사랑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사이에도 분명 사랑은 있다! 그것은 먼저 간 사람이 남겨놓은 녀으로 이어지는 참되고 영원한 사랑일것이다!

문을 꼭 닫고 집안에 들어서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한동안 움푹 앉고 서있던 그는 어머니가 며칠전부터 이사를 가자면서 한가지씩 궁겨놓았던 짐작들을 와락와락 풀어헤쳤다.

그속에서 사진첩에 끼워놓았던 신문조박을 찾아들었다. 남편의 위훈을 소개한 기사를 오려두었던 신문이었다. 그는 그 신문조박을 벽에 걸려있는 거울 한귀퉁이에 정성껏 붙여놓았다. 이제는 매일 이 거울앞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살리라는 결심이 녀인의 가슴에 깊숙이 뿌리박혔던것이다.

《너 왜 그러니?》

어머니는 놀란 기색으로 짐작들을 풀어놓는 딸의 팔목을 부여잡았다. 금옥은 잔약한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에 겨워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전 여기서 살겠어요! 전 이제야 진정으로 그이를... 사랑하기 시작한것 같아요.》

《너 그게 참말이냐?》

금옥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녀으로 이어지는 사랑은 더없이 행복하고 영원하다는 스스로 발견한 생활의 진리를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어머니에게 납득시킨단 말인가.

그러나 어머니는 모든걸 리해한것 같았다. 어머니는 웃고름으로 눈굽을 훔치며 딸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래... 이제 너두 철이 들었구나. 너자란 그래야 한다. 살아보면 너자의 행복이란... 제 마음에 달린거란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부터 금옥은 《말잔등》 언덕에서 살다싶이 했다. 언젠가 남편이 그랬던것처럼 녀인은 집일을 잇다싶이 했다. 산불저지선을 파느라 종일 방목지에서 일할 때면 학교에서 돌아온 철룡이가 엄마의 밥을 해두고 찾아오곤 했다...

마가울의 해별이 따스하게 비치는 《말잔등》 언덕에 금옥은 불망치를 들고 서있었다. 가을바람에 바삭 마른 풀썩이 와술렁거린다. 락엽이 흩날리고 나무가지들이 춤추듯 휘적거린다.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방목지에 불을 질렀다.

재촉하듯 설레이던 풀썩은 삽시에 불길에 휩싸였다. 세찬 불길은 풀진드기에 오염된 풀판을 깨끗이 태워버렸다. 이제 봄이 오면 방목지엔 새싹이 돌아날것이다. 푸른 등판, 구름처럼 흐르는 양떼, 염소떼... 더욱더 행복해질 이 땅의 래일...

그것은 아직 미래에 있었으나 녀인은 굳게 믿고있었다. 마치 눈앞에 보는것처럼, 듣는것처럼, 피부에 닿는것처럼...

...

녀인이 그러보던 그 모든것은 세월과 더불어 성취되었다. 한생을 방목공으로 살아오면서 녀인은 진정 행복을 느낄수 있었으니 그것은 남편이 심어준 참된 사랑의 힘을 심장으로 깨달았기때문이라고 녀인은 확신하고있었다.

아들 철룡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축산기사가 되어 지금은 여기 목장에서 일하고있다.

...

이야기를 끝낸 녀인은 자기의 한생이 흘러간 푸른등판을 추연한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염소떼가 하얗게 널린 등판에서는 아직도 방목공처녀의 청아한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있었다.

《...사람은 한생에 참된 사랑을 찾을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행복으로 꽃피울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련속에서도 영원히 지킬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먼저 간 사람들의 뜻대로 이 땅을 가꿀수 있단다. 이제 너희들이 이 등판의 주인이 아니냐...》

하루와 한생 외 1 편

리옥

새소리 바람소리 어우러져 덩구는
심심산중 방목지에
아 글썄 우리 장군님 찾아오실 줄
꿈엔들 알았습니까

산관에 흐르는 염소떼를 보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시는 장군님 우러러
저는 울었습니다.
방목지에 엮고산 1년 열두달이
달려와 함께 울었습니다.

오로지 염소만을 세이며
살아온 날과 달들
날이 많았던가 염소가 많았던가
기쁨도 아픔도
말 못하는 염소와 나누었습니다

아 장군님 찾아오신 이 하루에
겪은 고생 봄물처럼 흐르고
장군님 기뻐하신 이 하루에
방목공녀인은 한생을 고이고 삽니다

《원호대표단》

겨우내 여름내 애중히 키운
살진 염소를 앞세우고
방목지 내려 초소로 찾아가는 길
어느새 알고
발통을 구르며 저마끔 나서니
이 《대표단》 구성을 겨우 했어요

명절때마다 이 성화지요

그것들이 뭐 알기나 하는지...
초소로 찾아가는 길
마치 뽀히운 견학생들같이
하늘 향해 뿔저으며 으쓱해하오

아 인민군대로 떠나보내는 이런 때이면
힘든 때 속상한 일 언제런듯
기쁜날 이 하루가 다 씻어주네

가사

저의 고향은 영웅의 고향입니다

리남준

금천강기슭에 뛰놀며 자란
위훈의 꿈많은 나 어린 병사
고향이 어딘가고 누가 물으면
언제나 힘차게 대답한다네
저의 고향은
리수복영웅의 고향입니다

장군님 초소에 오신 그날에
아버이품에 안긴 나 어린 병사
고향이 어딘가고 묻는 말씀에

꿈같은 행복속에 대답올렸네
저의 고향은
리수복영웅의 고향입니다

영웅의 뒤를 이을 심장의 맹세
복무의 나날속에 더욱 불타네
장군님 아시는 용감한 병사
기어이 총폭탄영웅이 되리
저의 고향은
리수복영웅의 고향입니다

고려지경

리 빈

1530년에 편찬된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0권 회령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공험진

선춘령 동남 백두산동북부에 있다.

윤관이 북방을 개척할 때 공험진을 구축하고 선춘령

마루에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 새기기를 《여기는

고려땅이다》라고 하였다.…”

동너진 완안부는 아르초강(송화강지류)류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제미년(고려 숙종8년, 1103년)에 영가의 뒤를 이어 완안부추장이 된 오아속은 집권 3년후부터 몸에 병이 생기었다. 병은 해를 넘기면서 점점 더 심해갔다.

왜 생겼는지도 무슨 병인지도 똑똑히 알지 못할 피이한 탈이었다. 머리가 터지는듯 아프고 오금이 저려서 정신을 차릴수가 없으니 꼭 미칠것만 같았다.

다행히도 식욕만은 왕성하였다. 여느 사람 세네곱의 밥을 먹고 하루에 술 한말쭙은 게논감추듯 제껴버렸다. 어찌보면 병이 생긴후에 먹기는 더 잘하는것 같았다.

너진족들이 널려사는 남북 천리안에서는 물론 료(거란)나라까지 사람을 띄워 명의란 명의는 다 불러다가 맥을 보았지만 누구도 신통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너인의 배속에 생긴 녀태도 침한대, 약 한첩으로 능히 남태로 되뒹어놓는다는 동경(료양)의 명의도 《의업 40년동안에 처음 보는 병이다》고 도리를 내젓고 돌아가버렸다.

(그러니 나는 나이 마흔에 이 병으로 죽고만단 말인가!)

천하를 울리던 추장 오아속은 와들와들 떨리는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잡고 비명을 올리는 때가 점점 잦아졌다.

이제 조금만 더 세력을 늘이면 완전한 한개 나라를 세우고 국왕이 될수 있는 그였다.

아, 그런데 금빛찬란한 통상을 눈앞에 두고 죽고 말다니!

《보천지하 막비왕로 술토지민 막비왕신 (넓은 하늘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가운데 왕의 부하가 아닌 자가 없다)》이라고 내것이 다 된 천하를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병이 심해져서보다 먼저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회춘-이것은 곧 왕을 의미하며 나라안의 땅덩이 전부와 모든 억만재산 그리고 남녀백성들 전부가 다 내것임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거늘 건강회복을 위해 무엇을 아끼랴. 쌓아둔 천금도 아까울것 없고 살인도 배신도 서슴울것 없다. 할수만 있다면 하늘의 해라도 훔쳐다가 병을 고쳐야 한다.…”

사흘을 굶으면 쌀자루를 둘러메고 찾아오는 은인이있다더니?!

오아속, 그는 분명 하늘이 돌봐주는 인물이었던지 어느날 그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송나라 휘종황제가 롱잠시(세자로 있을 때) 고황에 든 병을 고쳐 송조왕통을 이어준 신의가 지금 아달래에 와있다.》

오아속은 귀가 번쩍 띄었다.

이래전 송나라 세자(후에 휘종)가 병으로 다 죽게 된것을 어떤 의원이 나타나 그를 고치고 즉시 어의로 책봉되었으며 만인들속에 신비스러운 의원으로 널리 불리우고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있는 그였다.

그때 벌써 그를 불러다가 병을 고치고싶은 욕망이 불갈았으나 송나라조정이 저희네 나라를 위협하고있는 료나라와 너진을 한동아리로 보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은 감히 엄두도 못낼 노릇이었다. 그런데 제발로 찾아오다니?!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도 잡는 법이어늘 하물며 이런 행운을 어찌 마다할수 있으랴.

(병이 고황에 들면 그건 벌써 송장이다. 그런 송장에게 목숨을 이어줬으니 그 의원은 틀림없이 내 병도 능히 다스릴게다.)

오아속은 펄듯이 기뻐다. 그러한 믿음 하나만으로도라도 벌써 병은 한절반 나았는지 머리가 다 거뜰해지는듯 싶었다.

아달래고을까지는 거의 300리가 잘되었다.

신의는 점잖고 엄엄한 기풍의 로인이었다. 독수리부리마냥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눈은 슬기로 번뜩이고 시원한 이마에서는 굳센 힘과 총명이 느껴졌다. 유능한 의원이라기보다 어딘지 모르게 장수같은 위엄이 풍기는 사나이였다. 아무튼 첫 눈에 믿음이 갔다.

오아속은 그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목숨을 건져달라고 간청을 했다. 의원은 무겁게 고개를 가

로저였다.

《내 의술로는 추장의 병을 다스리기 어렵소.》
《?!》

오아속은 눈앞이 캄캄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로구나 하는 절망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듯 싶었다.

《로인장, 저의 목숨은 로인장의 수중에 달려있소이다. 다 죽었던 송휘종까지 소생시킨 어른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오. 제 병을 고쳐주시면 그 은혜를 꼭 갚아드리리다. 머리털을 베어 신을 삼아드리는 수고도 아끼지 않겠소이다.》

오아속은 애걸복걸 빌고 또 빌었으나 로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송나라 궁중에 있을 때 여기 완안부추장이 병고로 고생이 막심하다는 소문을 듣고 곧 고쳐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소. 서민도 아닌 추장이, 그것도 장차 임금에 될 인재가 중병에 시달린다니 가슴이 아프더라 말ियो. 그래서 속을 털어놓으면 필경 휘종이 막을것이기애 아무도 몰래 이리로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잠시 묵으면서 병상태를 소문으로 알아보니 유감스럽게도 내 힘으로는 자신이 없지 않겠소. 그런 까닭에 곧장 거기를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예서 망설이고있는중ियो.》

(?…)

오아속은 자기를 위해 만리를 온 그 성의에 고마움보다도 의심이 먼저 들었다. 어디까지나 오아속은 오랑캐종자여서 믿음과 의리같은 고상한 감정과는 인연이없는 야인이었다.

(내가 수만 녀진인들의 우두머리이고 우리 녀진의 위세가 더욱 높아지니 나에 대한 소문이 료나라를 지나 송나라에까지 흘러갈수는 있다. 그런데 여느 의원이라면 또 모르거니와 만금도 부럽지 않을 대국 어의가 이른바 오랑캐로 치부되는 녀진족의 한개 추장을 위해 그 멀고 험한 만리길을 오다니… 휘종이 가라고 령을 내려도 나서기 힘든 길이어늘 한결음도 허락없이 움직이다가는 엄벌을 면치 못할 어의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는가. 그럴수 없다. 필경 여기에는 무서운 흉계가 있어!)

오아속은 이렇게 단정하였다. 그는 비록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하여 살아날 생각에 이미 반미치광이로 변하기는 하였지만 남쪽의 고려국과 서쪽 료국을 넘보리만큼 큰 세력인 녀진의 우두머리로서 교활하고 음흉함에 있어서도 역시 범상치 않은 존재였던것이다.

하여 그는 사례를 하는척 하면서 은근히 상대를 떠보았다.

《군왕의 윤허를 받기전에는 궁실어의가 함부로 자리를 뜨기 어렵거늘 로인장은 어찌 그리 큰

마음을 먹으셨소. 심산궁곡의 한개 필부를 돌보 고저 대국궁실의 귀인께서 만리원로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성의 실로 측량하기 어렵사운데 힘도 약한 자그마한 종족의 추장으로 보답할 생각에 앞서 무례한 청만 드러 죄스럽기 그지없소. 널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이다.》

로인은 대답이 궁하였던지 저르기 난색을 짓고 묵묵히 마주보기만 하였다.

(옳거니!)

오아속은 속으로 패재를 올렸다.

(송나라렴탐군인가? 아니면 고려렴탐군?… 아무튼 내 이제 네놈의 본색을 밝혀내서 각을 떠버리고말테다!)

처음에 속은것이 분하기는 하였지만 간사한자의 정체를 발가낸다는 생각에 병에 대한 생각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무슨 생각을 더듬는지 한동안 잠잠해있던 로인은 (오아속은 이를 그가 뜻밖의 궁지로부터 빠져나갈 생각에 급급한것으로 보았다.) 움쭉 일어서며 《오지 말아야 할데를 온듯이 말을 하니 섭섭하군. 내 60평생애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한즉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야겠네. 허, 내가 사람을 잘못 알고 찾아왔더라 말인가. 야인들이 레법을 모른다가에 웬 소리가 했더니 그게 거짓이 아니였군그래.》라고 자못 서글픈 한탄을 터뜨리었다. 그 음성과 태도가 어찌나 진실하고 무게가 있었던지 오아속은 자기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즉시 깨달았다. 바빠맞은 그는 로인의 팔소매를 붙잡고 애절한 어조로 사정을 하기 시작했다.

《아 아니, 로인장, 널리 헤아려주소이다. 내 원체 칼밖에 모르는 무부인이라 만사에 눈이 무디오이다. 의술은 곧 인술이라는데 도량이 넓으신 분께서 널리 용서하소이다. 로인장!》

울상이 된 그를 측은히 내려다보며 로인은 입을 열었다.

《난 원래 이곳에 태를 묻은 사람ियो. 그대와 같은 녀진족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단 말ियो.

일찌기 선친의 뜻에 따라 문명개화한 송나라에 가서 의업을 익혀 부귀공명을 얻은후에도 동족의 피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오. 고루거각, 금의옥식도 모두 시답지 않았소. 그런데 그대가 중환에 들었다가에 겨례를 위하는 마음으로 천리길도 멀다않고 여기를 찾아왔더니 고작해서 의심대접이로군. 내 속이 다 거북하오. 어힘.》

《아! 이 미련한 오아속이 한피줄도 몰라보고 죽을 죄를 졌소그러. 알지 못하면 제 부모도 죽이는 법이라 모르고 한 소리오니 널리 용서하여이다.》

《진정이 그러하다면 내 좀 힘을 기울여보겠

소.》

《고답소이다. 정말 고답소이다. 그 하늘같은 은혜를 어이 다...》

오아속은 코가 깨지도록 수없이 절을 하고나서 다시금 공손히 꿇어앉았다.

로인은 눈을 찔프리고 그의 얼굴을 이모저모 찬찬히 뜯어보더니 혼자소리로 조용히 뇌이었다.

《수한지 구십구요, 권재지 무한계라.》

(!)

조용히 울리는 로인의 말소리는 오아속의 가슴을 터질듯 격동시켰다.

수한구십구는 아흔아홉까지 산단 말이요. 권재 무한인즉 권세와 재산에 끝이 없다는 뜻이니 이는 곧 내가 왕이 되어 장수한다는 말이렸다. 아!

허나 충격은 폭발의 한순간일뿐이었다.

(이 늙은것이 허튼 소리를 켜쳐대는군.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내가 이리도 죽게 앓는단 말인가...수한이 어떻게 권재가 어떻게 하는 소린 다로망한 늙다리의 녀두리가 분명해!)

로인은 그에게 생각의 여유를 주려는듯 퍼그나 사이를 두었다가 은근한 랑소를 던졌다.

《나의 진언을 의심하면 성한 사람 못돼볼걸!》

(?!)

오아속은 깜짝 놀랐다.

(이 늙은이가 내 속마음을 말끔 들여다보고있구나. 저 남쪽 고려건국이전의 태봉국왕 궁예가 《관심법비술》을 가지고있었다 하더니 지금 이 령감 역시 그런...

진실로 신비스런 의술을 지녔다면 죽히 그럴수 있지. 안되겠다. 내가 이제 더 불량한 마음을 품었다가는 그 때문에 망하고 만다.)

마치 귀신앞에 서기라도 한듯 속이 막 떨렸다.

신통력을 지닌 늙은이로부터 분노의 벼락이 떨어질것만 같아 조이는 마음속에 뜻밖에도 빗발이 날아들었다.

《앞서 많은 의원들은 그대의 병의 원인을 잘 몰랐지만 내게는 그게 뚜렷하오.》

오아속은 버럭 소리를 지르다싶이 환성을 올렸다.

《아, 그렇소이까! 이제는 내가 살아났소이다!》

《좋아하기는 아직 이르이.》

《...》

《그 원인인즉 의불성심화일세.》

《아-니, 뜻 못이룬 까닭으로 병이 생겼단 말이오이까?... 아니, 그럴수 없소이다. 나는 하고 싶은것은 무어나 다했는데 지어 내가 뜻하는 왕위마저 차지한것이나 다름이 없지...》

《가만! 그 <아니>란 내가 할 말이지.》

말허리를 꺾으며 울리는 이 대답은 오아속의 생사를 결정짓는 판결처럼 엄숙하게 들렸다. 오

아속은 아직까지도 속마음을 숨긴다고 무서운 질책이 날아드는것만같아 다급히 정신을 가다듬었다. 곧 떠오르는 생각이있었다. 과연 이 늙은이가 궁예와 같은 《관심법》을 지니지 않았을가...

《예, 예, 있소이다. 그건 저... 저...》

《<저, 저>란 바로 삼키고싶어도 못삼키는 고려 땅이렸다.》

《?!》

오아속은 가슴이 뜨끔하여 말문이 막혔다. 정통이 찢렸던것이다. 오아속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때껏 만리밖 송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까? 과연 귀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란 말인가.

그렇다. 그 탐스러운 고려를 집어삼키지 못해 얼마나 애타우고있는지 모른다.

여기 너진족이 차지한 사방천리는 불모의 산악지대인데다가 여름은 짧고 기나긴 겨울은 혹독히 춥다. 그래서 사람들조차 거칠기 그지없다. 거친 사람들이란 머리가 둔하여 불화를 만들줄 모른다. 하기는 이들에게도 한가지 재간은 있으니 곧 그것은 싸움질이다.

이와는 근본이 다르게 저 남쪽 고려는 따듯하고 땅이 기름진데다가 화목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문명한 생활을 하고있다. 거친 땅, 횡포한 족속들이 옥실거리는 한개 나라를 통치하기보다는 고려처럼 개명하고 레의에 밝은 사람들이 사는 한개 고을을 다스림이 몇배 더 보람이 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를 휘몰아 그곳을 덮치곤 하였지만 매번 정수리가 뜨끔하게 된 때를 얻어맞고 쫓겨나곤 하였다. 고려사람들은 천성이 온순하고 점잖지만 일단 침입자를 맞받아 창검을 들고 일어서기만 하면 막능당의 성난 호랑이가 되어버린다.

그가운데서도 행영도통사 윤관장군이 이끄는 고려북벌군의 강력한 타격은 더욱 무자비한것이다.

윤관은 군사와 백성들을 동원하여 동해안으로부터 백두산동북변에 이르는 북방전역에 아홉개의 성을 쌓았다. 이 9성은 너진인들의 남침을 막아선 요새이다. 아홉개중에도 백두산동북변의 공협진은 가장 무서웠으니 만약 9성이 너진을 겨누어 내댄 창이라면 그곳은 창끝이라 할것이였다.

아, 그 날카로운 《창끝》에 걸려 얼마나 많은 우리 군사들이 황천으로 갔던가.

눈에 든 가지, 아니 염통에 박힌 못인 공협진을 들어내던지려고 내 몇번이나 수천의 정병을 이끌지 않았던가!

그러나 철옹성같은 진에 의지한 그들의 방어에 의해 패하기는 그 몇차례더나...

고려군사들은 성에 의지하여 싸울뿐 아니라 서북쪽에 솟아있는 선춘령을 차지하고 녀진군을 죽쳐냈다. 선춘령은 남쪽으로 통하는 기본길목으로서 피하기가 어려웠거니와 공협진을 먹자면 선춘령을 넘어야만 하였다. 하기에 이 지세를 잘 알고있는 고려군사들은 늘 선손을 쓰곤 하였던 것이다.

《선춘령 그것은 우리 나라를 해치려고 밀러드는 북방오랑캐무리의 남하를 막으라고 조종 백두산이 자기몸 한갈래를 똑 떼여 옮겨놓아준 방패이다.》고 한 윤관의 말을 통해서도 그를 잘 알수 있을것이다.

윤관이 힘을 들여 설치한 북방 9성에 목이 걸려 것처럼 삼키고싶은 고려땅을 한귀때기도 다칠수가 없으니 오아속은 악이 반치고 애가 끓었다. 속에서 타는 불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기만 하였다.

(...아, 그래서 병이 생겼단 말이 옳다. 한즉 향간의원의 재간으로써는 진단과 처방이 불가할수 밖에 없다. 앓는 나조차 원인을 모르던 병을 알아맞힌 이 늙은이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명의가 분명하다.)

이 늙은이에 대한 공경심은 더욱더 커졌다. 아울러 그가 마음 먹고 나선다면 자기의 이 병도 능히 고칠수 있다는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오아속은 너무 기빠 구원자를 보내준 하늘에 마음속으로 몇번이나 감사를 보냈는지 모른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진대 어찌 이런 은인이 나타날수 있으랴.

신심이 생긴 그는 로인을 부처님처럼 우러러보며 간절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로인장님께 나의 이 목숨을 다 맡기겠소이다.》

《아니, 그대 목숨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말아안고 있으니 난 어쩔수 없네.》

오아속은 아연했다.

《다른 사람들?! 그제 누구오이까?》

이제는 그의 말이라면 《지마위록》, 말을 사슴이라 해도 끝이 들을판이라 사뭇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던것이다.

《누구라고 차마 찍어 말하기 어려운데...》

급하면 부처님 다리라도 끌어안기마련이다. 칠성판에 오른 목숨보다 더 급한것이 어디 있겠는가.

오아속은 령감의 두다리를 와락 불안으며 애원하였다.

《의원어른, 이 오아속을 부디 불쌍히 여겨주소이다. 내 목숨을 맡은이가 대체 누구오이까. 예? 로인장님!》

《그들은 자네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 어떻게

이론단 말인가. 난 그런줄은 모르고 왔는데 와서 알아본즉 그런 사정이 있으니 어쩔수 없구만...》
《가장 가깝기는 나의 부장 셋뿐인데 그들이란 말이오니까?》

로인은 말로 차마 대답할수 없는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아니, 그럴수 없소이다. 그대들이 내 목숨을 쥐고 있다니! 가장 충실한 부하들인데 어찌...》

오아속은 너무 놀라운 나머지 억이 막혀 말이 안나갔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르느니...》

《아니! 아니! 결코 그럴수 없소이다. 나는 그네들을 나 자신만큼이나 믿소이다.》

《하, 이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군, 쯔-쨏! 사람이 그렇게 아둔해서야 장차 어떻게 건국대업을 이룬담... 아무래도 이왕 도와주는바엔 까닭을 밝혀주어야겠군. 명심해듣게...》

오아속은 주장으로서 고려땅을 다문 얼마라도 차지해야 위신이 서고 그 위신의 힘으로 부하들을 복종시킬수 있다. 그런데 고려에 집적거리어 애매한 군사들만 자꾸 있으니 그것은 큰 허점이 아닐수 없다. 그러니 부하들은 무능한 그런 패전피수를 우습게 알것이다. 사정은 이러한데 뜻을 못이루고 이렇듯 앓고만 있으니 그들이 추장을 어떻게 보리라는것은 볼보듯 명백한 일이다.

위엄이 서슬푸를 때에도 추장을 꺼꾸러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할 기회만 노리고있을 부하들이 지금처럼 추장의 위신이 떨어지고 힘이 쇠약해진 이때를 그냥 보낼수 있겠는가.

원췌는 한사람도 많다 했거늘 그들앞에서 내가 추장의 병을 고쳐놓는다면 그들이 잘한다고 그저 보고만 있겠는가...

《그런 뜻에서 나는 그대 목숨을 그네들이 맡고 있다 하는거요.》

오아속은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전에 눈알이 획 뒤집혔다. 마치 심장이라도 벗어버린듯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었다.

로인은 그를 진정시키려는데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한마디 덧붙였다.

《서둘며 격하지 말고 곰곰히 잘 생각해보라구. 진지하면 닫긴 문도 열수 있되 조급하면 열린 문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법이지.》

어리석은 족속일수록 의심이 많다. 신뢰는 리해의 산물이며 리해의 바탕은 지성인 까닭에 무지한자의 본색이란 어리석음밖에 없는것이다.

(그렇단 말이지!)

오아속은 이를 갈았다.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선대추장 영가의 자리를 가로채려고 몸부림을 치던 어제날의 자기 모습이 선하게 떠올랐다.

부장으로 있던 그때 주장자리를 노리면서 어떻게 하나 본색은 가리우고 주장 영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갖은 간계를 다 부렸다. 충실한 부하로 인정된 다음 완전한 신임을 얻어 무슨짓이든 제멋대로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를 없애치웠다.

궁지에 빠진 오늘날 의원로인의 경고를 받고보니 세명의 부장들 특히 아골타의 언행에서 그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여러가지 사실들이 부쩍 의심을 일으켰다.

《구밀복검》이라고 배속에는 칼을 품고도 입으로는 꿀발린 소리를 한다더니 아골타의 언행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아골타와 다른 부장들의 충실한 언행, 그게 다 나를 제껴버릴 음모의 그림자였던가... 하기는 내가 한때 그랬으니 지금의 그들이라고 다를수 없지.)

사태의 진면모가 뚜렷해질수록 간담이 서늘하였다. 아니, 기가 막히고 통분하기까지 하였다. 자기 목숨을 거머쥐고있는 자들을 당장 도륙내고 싶어 치가 떨렸다. 하지만 지금은 앓는 몸인데다가 그럴만한 근거를 잡지 못하였으니 함부로 칼부림을 해서는 안되겠기에 애써 자신을 억제했다.

서둘러 접어들다가는 도리어 제물가미에 걸려 지레 명줄이 끊어져버릴수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인가 자기가 부여준 독주를 마시고 짹소리 한마디 못한채 그 자리에서 꺼꾸러지던 영가추장의 참혹한 모습이 자기의 모상처럼 우렷이 떠오르기도 했다. 와들와들 떨리는 속을 도저히 진정할수가 없었다. 미칠지경으로 소름이 끼치고 악이 받쳐 정신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처방인즉 다르게 아니라 고려땅을 점거하여 위세를 돋구는걸세. 음모군들이 감히 생의를 못내도록 고려전로는 몰라도 갈라전(두만강류역과 함경도지방)쯤 타고 앉아 백두산천지의 물을 복용하면 그제 곧 <수한구십구> 바탕이 될걸세. 백두산은 물만 만병통치인게 아니라 온갖 열매와 풀들이 전부 보약과 같소. 이제와서는 다 지나간 일이라 숨길것도 없는데 송나라 휘종의 병도 실은 내가 백두산천지수처방을 내서 고쳐준거요. 하지만 똑똑히 듣게. 요는 그대의 병이 휘종과 달라 일생을 복용할 때 효험이 있다는거네. 일생 복용, 알아들었나?》

《!》

웅글은 로인의 목소리는 오아속의 귀에 쏙 들어와박혔다.

의심할바없는 처방이거니와 왕년에도 늘 들어오며 부러워마지 않던 소문이다. 《백두산천지수는 천하일품 명약이다. 천지(하늘뜻)라는 물의 이름이 결코 우연치 않다.》던 말이 문득 생각나서

믿음은 더욱 굳어졌다. 그럴수록 애가 타 오아속은 날고기를 물고도 먹지 못하는 주린 범처럼으르렁거리듯 부르짖었다.

《백두산천지물이 소생수, 생명수인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덕을 입자면 적어도 갈라전은 타고앉아야 하지 않겠소이까. 하나 출정할 때마다 선춘령, 공협진에 걸려 골탕만 먹으니 이렇듯 복통할 노릇이 어디 또 있겠소이까. 그 백두산의 파수병같은 선춘령, 공협진을 어떻게 하면 짓밟아버릴수 있겠는지 계책을 가르쳐주소이다.》

《난 의원이지 장수는 아니네.》

쌀쌀한 대답에 오아속은 애가 끓었다.

《구생처방을 내리신 어른께서 어찌 제약처방은 마다하시오니까. 틀림없이 어른의 가슴속엔 명철한 지혜가 있을것이오니 부디 이 외로운 냇에게 베풀어주소서!》

《말에게는 말에게 맞는 집이 있고 소에게는 소에게 맞는 집이 있는 법일세.》

칼로 베이듯 차갑게 잘라던진 로인은 이로써 모든 일이 끝나버렸다는듯 조용히 문밖을 나서며 지나가는 말처럼 한소리 뇌이였다.

《구명려지점 장수천지수.》

오아속의 락망은 절정에 이르렀다.

머리가 터질듯 아픈 정도가 아니라 불길에 싸인듯한 고민속에 허덕이는 그는 벌써 남의 눈에는 미치광이로 보일 정도였다.

아골타를 비롯한 팔다리노릇을 하는 부장들이 자기를 없애치우고 주장자리를 호시탐탐 노릴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병문안을 오는 그들이 따뜻한 말로 위안을 하고 귀한 보약을 내놓아도 《구밀복검》으로 속에 품은 칼끝이 들여다보이는듯 싶어 치가 떨렸다. 모조리 줄잡아 주리를 틀었으면 10년고질이 툭 떨어질것만 같았다.

《아, 어떻게 해야 살아날수가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번씩 타드는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스스로 묻고는 역시 스스로 대답하곤 하였다.

《고려! 고려! 고려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구원된다!》

이때마다 마치 메아리처럼 의원로인의 조용한 목소리가 귀전을 광광 울리곤 하였다.

《구명려지점 장수천지수(고려땅을 먹어야 목숨을 구하고 천지수를 쓰면 장수하리라.》

사정은 이렇거늘 고려지경에는 범접도 못하거니와 백두산천지는 고려땅안에 있으니 목숨은 이미 끝장난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사태가 뚜렷해질수록 오아속은 안타까와하던 나머지 몇번이나 기절을 했다. 이러한 절망의 암흑속으로 한가닥 희망이 희미하게 비쳐들었다.

그것은 의원로인의 신통역에 대한 믿음이 점점 굳어지는 그것이었다.

(귀신같은 신통력을 지닌 그가 화근을 없앨 비방을 모를수 없다. 뻔히 알면서도 어떤 연고로 해서 알려주지 않는게 틀림없다.)

드디어 이런 결론에 이른 그는 그사이 번민에 싸여 며칠동안 내내 들어박혀있던 부증을 떠나 아달래로 또다시 의원을 찾아갔다. 둘이 마주 앉았을 때 오아속은 자신과 의원사이 한복판에 시퍼런 칼을 쿡 꽂아놓았다.

《오늘 이 칼이 로인장이 아니면 나를 끝장내버릴것이오이다.》

자그마한 여유도 흥정도 용납치 않을 결사의 몸부림이었다.

오아속은 요사이 어떤 알지 못할 원인으로 하여 자기의 처신을 돌이켜보게 되었는데 목숨건질 생각에 골몰하던 끝에 의원로인앞에서 자신이 지나치게 비굴하였음을 깨달았다. 의원로인이 그로록 높은 뜻을 지닌 인물일진대 사나이 아니 추장답지 못한 자신의 비굴한 언행에서 혐오를 느꼈으리라하는것, 이 혐오가 그로 하여금 자기를 멀리하는 원인으로 되었으리라고 보았었다.

그의 비위를 몹시 거슬린 이 혐오를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입에서 비방을 바랄수 없다...

로인은 칼앞에서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놀음인가 하고 생각하는듯 칼을 덤덤히 바라보다가 한손으로 툭 쳐서 넘어뜨렸다.

《내앞에 감히 칼을 내대는걸 보니 용기는 있군. 그만하면 병을 땡죽하이, 추장.》하며 로인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

오아속은 드디어 안심했다. 예측이 들어맞은것이다.

그런데 숨이 나가는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계 그의 무사다운 팔짓에 까닭없이 불안을 느꼈다.

(모든 언행이 틀잡히고 억세고... 아무리 봐야 무관풍이거던...)

더 생각을 더듬을 사이도 없이 《무관풍》의 로인은 이런 처방을 내리었다.

고려군의 보루 선춘령마루에는 북벌원정군의 윤관장군이 손수 세운 표식비가 서있다.

윤관이 서울(개경) 송악산돌로 만든 비석을 안고 북방으로 와서 맞춤형 자리를 찾아 여기저기를 다닐 때 선춘령마루에는 밤마다 푸른빛 서기가 어리고 낮에는 칠색무지개가 비끼었다.

《하늘이 선춘령을 점지하는구나!》

윤관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비를 세웠는데 그후에는 서기와 무지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석네면에는 똑같이 《고려지경》이라는 글이 깊이 새겨져있다. 추장은 비석기단밀의 흙

한줌을 손을 대지 말고 먹어야 한다. 피묻은 손으로 먹으면 부정탈수 있기때문이다. 추장은 식욕이 왕성할것이니 흙한줌쯤은 수월히 소화시킬수 있을것이다...

오아속은 마치 살아있는 부처앞에 선듯 그를 우러러 쳐다보며 마음속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여기는 고려땅이라는 의미로 세워놓은 비석, 그것은 고려 그자체를 말해준다. 그것이 자리잡은 땅은 바로 고려사람들의 녀의 바탕이다. 하기에 하늘이 그곳을 점지한것이 아니겠는가. 한즉 그 흙 한줌을 먹는다는것은 곧 고려를 삼킨다는것과 같을것이다.

이 명백한 리치에는 그 어떤 의혹도 없고 해석 또한 필요치 않다고 오아속은 믿었다.

열흘후였다.

고려사람으로 변장한 오아속은 선춘령에 이르렀다.

그는 비석의 위엄에 놀려 얼른 다가설수가 없었다. 그것은 인력으로 세웠다기보다 세상이 생겨나던 그때에 벌써 깊은 땅속으로부터 불끈 솟아오른 바위같았다. 문득 비석이 송도의 돌이라고 한 의원로인의 말이 생각나면서 저것이야말로 진정 고려의 녀이라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다. 이 확신은 병을 고칠수 있다는 희망을 병든 가슴에 가득 안겨주었다. 백두산이 거느린 북방파수와 같은 이 선춘령에 저렇듯 비석을 곳곳이 세워놓은 윤관이 과연 큰 인물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하늘이 점지는 했다 하더라도 그의 뜻한바가 장하지 않았다면 어찌 장한 실행이 있으리오. 윤관원수는 너진이 무서워 떨도록 지략만 뛰어난것이 아니렸다. 저 비석 어쩌면 저리도 천하지맥을 다 걸어쥔듯 위엄찰수 있을고?!

그는 삼가 무릎을 꿇고 비석기단밀의 흙을 한줌 입에 물었다.

...완안부부중에 이르러 오아속은 밀물처럼 새까맣게 무리지어 마중나온 부하군사들의 인사에 득의양양히 대답하였다.

《그대들 천만 너진군사들은 이 오아속추장을 다시금 똑똑히 보라. 나는 하늘의 뜻을 지닌 명의의 처방에 따라 목숨을 위협하던 고질을 때버렸다. 천은을 입어 이 세상에 환생한 나는 천의에 따라 천하를 평정하게 될것이다. 먼저 고려를 삼켜 백년숙망을 성취...》

갑자기 혀가 굳어지더니 목이 팍 메였다. 머리가 핑글핑글 돌아갔다. 결의 호줄이 미처 불들사이도 없이 그는 말우에서 떨어졌다. 말잔등우에서 흘러간 40평생 그 어떤 경우에도 말에서 떨어지는것과 같은 수치는 한번도 당해본적이 없건만...

완안부주장 오아속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그렇듯 식욕이 왕성하던 그것전만 물 한모금도 넘길수 없었다.

숨이 막히여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밤마다 뜬 눈으로 밝혀야 하는 고통속에 《고려지경》이라고 새긴 비석의 엄엄한 모습은 그의 동공속에서 사라질줄 몰랐다.

그것은 날에 날마다 소생의 희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운명이 최후에 림했음을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달레마울에 있는 의원로인을 찾아가서 묻지 않고도 스스로 똑똑히 깨달았다.

어느날 그는 막하부장들과 여러 고을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다놓고 엄숙하게 타일렀다.

《내가 이제 남기는 말은 내 일생의 마지막말로서 천운을 받은 유언이니 명심해들거라. 나는 고려를 탐내다가 뜻을 이루지 못해 골수에 죽을 병이 들었고 나중에는 고려땅 흙 한줌에 목이 걸려 끝내는 영원한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다. 단 한줌의 흙도 삭이지 못해 목숨을 바쳐야 하거늘 하물며 고려땅 전역이겠느냐. 내가 선춘령비석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것은 벌써 너진이 고려에 무릎을 꿇은것이나 같다. 고려를 먹으려는 사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다가는 우리 수만 년진족전부의 목이 다 뿔수 있느니라. 앞으로는 누구든 고려를 넘겨보며 침도 삼키지 말고...》

너진우두머리들은 채 끝맺지 못한 추장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오랜 세월 전란으로 어지럽던 고려의 북방은 조용해졌다.

윤관의 공적을 칭송하여 쓴 오연총의 《운공행장기》중에서 필요한 대목만 일부 여기에 첨부하여 이야기의 맺음을 대신하는 동시에 《의원》의 정체를 밝히고저 한다.

...윤공이 조정의 뜻을 받들어 나라 북방에 9성을 일으킨 목적은 그 첫째가 북호(너진)의 남침예기를 꺾어버리는것이며 둘째는 장차 고구려, 발해의 옛 강토를 다시 찾기 위한 큰 뜻에 있었다. ... 9성을 설치한후에도 북호는 계속 끊치지 않고 북변에 침입하여 고려군민들로 하여금 자주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윤공은 숙적 북호를 송두리채 멸족시켜버리거나 그들이 남하기도를 스스로 단념하도록 근본방책을 세워놓지 못한다면 나라는 불안을 털어버릴수 없으며 두고두고 크고 작은 피해를 면치 못하리라 보고았다. ... 년로의 고달픔과 쉴지도 불속에 들어감과 같은 신변의 온갖 위험을 근심하여

극력 만류하여나서는 막하들에게 공은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도 우리 동족이 피를 계속 흘려야 한다면 그들을 보호코저 칼을 들었던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못할것이다. ... 범의 굴에 들어가지 않고 서야 어찌 범을 잡겠는가. 범의 굴인즉 범의 아가리라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생의를 못낼바이지만 나는 이미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군사로서 두려울것이란 없다. ... 그곳에서 예로부터 살아오는 고구려, 발해유민들이 나를 도울것이라 과히 근심말라.》고 안심을 시킨 다음 완안부중에 변장 밀입하였다. ... 동족 《고구려, 발해유민》들의 도움을 받아 추장 오아속을 비롯한 호족괴수들의 동태를 낱알이 알아낸 윤공은 일문지십(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것)의 슬기로 적군 수부의 허점을 다 간파하게 되었다. 이어 그는 오아속의 고질을 다스린다는 《명의》가 되어 선춘령 비석기단의 《흙 한줌》 처방을 내렸고 오아속은 급한 마음에 이를 선뜻 받아들였다. 포악한 족속일수록 우둔하기마련이라는 리치를 리용한 흥계(속임수)는 적중했다. ... 공이 평생의 힘을 들여 터득한 박학다문 즉 병법은 물론 지리풍수, 관상복술, 해박의술이 이 계책을 성공으로 이끌었는바 이것은 무식한자는 큰 일을 치를수 없다는 교훈으로도 의미가 깊다. ... 윤공에게 있어서 오아속은 북호로 하여금 고려를 다시금 넘보지 못하도록 바짝 정신을 차리게 한 책략의 리용물이였을뿐 당자 그 하나의 운명쯤은 전혀 관심밖이였다. 공이 적피를 상대로 쓴 이 《투하조리지계》 즉 새우를 던져 잉어를 낚는 계책에서 오아속은 한갓 새우에 불과하였다. ... 사나운 무리속에서의 하루하루는 죽음의 위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아슬아슬한 순간들로 이어졌건만 공은 오로지 나라를 위한 한마음으로 이를 이겨냈다. 이 성공의 바탕에 여러모로 그를 도와나선 고구려발해유민들의 뜨거운 애국지성이 깔려있는 사실에 대해서 력사는 알고 있어야할것이다. ...

이미 세훈 공적만으로도 충신록에 이름이 올라 국사에 빛을 내련만 목숨을 바쳐 적굴로 들어간 공의 애국충정은 곧 만인의 뜨거운 감동과 공경을 자아냈으며 이 감정은 공을 칭송하는 갖가지 미담들을 많이도 낳았으니 그 이야기들은 후세만대에 길이 전하여지면서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게 될것이다.

예종 7년 임진(1112년) 지
추밀원사 한림학사
승지 부원수 오연총 서

마리떼

마리떼 멜니카이페는 이전 소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시기 파쑈도이첸란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공청원처녀로 널리 알려져있다.

마리떼 유오조브나 멜니카이페는 주체12(1923)년 3월 18일 리프바 자라싸이시에서 평범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났다. 중학교졸업반때인 주체29(1940)년에 공청원의 영예를 지닌 마리떼는 주체30(1941)년~주체31(1942)년에 소개지인 로씨야의 쥘멘시에서 《메하니크》기계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군수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자기에게 삶의 요람과 행복을 마련해준 쏘베트 조국을 위하여 손에 총을 잡고 싸울것을 열렬히 갈망하던 마리떼는 주체31(1942)년 6월 전선에 탄원하여 붉은군대 제16저격사단에 입대하였다. 그후 그는 선발되어 특수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주체32(1943)년 5월 적강점지역인 리프바에 들어갔다.

마리떼는 고향도시에서 지하구역공청비서로 사업하면서 적들의 후방을 교란하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한 맹렬한 활동을 벌였다. 고향사람들은 마리떼를 사랑하고 따랐으며 그의 지하공작을 잘 받들어주었다.

마리떼는 빨찌산부대를 조직하는 사업에 참가하고 전투행동에도 뛰어들었다.

마리떼는 그해 7월 빨찌산소부대와 함께 적군 용렬차습격전투에 참가하였다가 부상을 입고 그만 놈들에게 체포되었다.

적들은 그를 통해 지하에서 활동하고있는 공청조직과 빨찌산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회유와 기만, 위협공갈과 모진 고문을 들이댔으나 끝끝내 그의 입을 열수 없었다.

악에 반친 놈들은 7월 13일 이그날린구역 두크쉬따스마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리떼를 총살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스무살밖에 안되었다.

마리떼는 비록 적들의 손에 희생되었으나 그의 영웅적위훈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리프바와 로씨야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마리떼가 처녀의 몸으로 놈들의 야수적악행을 이겨낼수 있는것은 그의 신념과 지조가 굳세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소련정부는 다음해 주체33(1944)년 3월 22일 마리떼에게 소련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하여 마리떼는 리프바의 첫 녀성영웅으로 되었다.

조국을 사랑하고 원수를 증오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그의 희생정신과 영웅적소행은 오늘날 사람들의 추억속에 지워지지 않고있다.

김왕섭